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정책연구 2024-3

ISBN 979-11-90449-08-3

# 인천시 노인의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 조사

**책임연구원**

양지훈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부연구위원



# 목차

## 요약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절차 .....	5

### 제2장 조사 설계

제1절 조사 개요 .....	9
제2절 조사 대상 .....	10
제3절 조사 내용 .....	15

### 제3장 분석 결과

제1절 일반적 특성 .....	21
제2절 노후생활실태 .....	29
제3절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 .....	102
제4절 정책 욕구 .....	137

### 제4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적 제언 .....	155
제2절 결론 .....	161

참고문헌 .....	163
부록 1. 설문지 .....	165
부록 2. 조사결과 시각화 .....	179

## 표 목차

〈표 2-1〉 모집단 분포 .....	11
〈표 2-2〉 지역별 배분 .....	12
〈표 2-3〉 성별·연령별 배분 .....	13
〈표 2-4〉 최종 표본 수 .....	14
〈표 2-5〉 선행조사의 조사항목 .....	16
〈표 2-6〉 조사항목 .....	18
〈표 3-1〉 성별 .....	21
〈표 3-2〉 연령 .....	22
〈표 3-3〉 지역 .....	23
〈표 3-4〉 최종학력 .....	25
〈표 3-5〉 혼인 상태 .....	26
〈표 3-6〉 주거유형 .....	27
〈표 3-7〉 주택 점유형태 .....	28
〈표 3-8〉 주관적 건강상태 .....	29
〈표 3-9〉 미진료 경험 여부 .....	31
〈표 3-10〉 미진료 이유 .....	32
〈표 3-11〉 만성질환 .....	34
〈표 3-12〉 처음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한 나이 .....	36
〈표 3-13〉 지난 3개월 동안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 여부 .....	37
〈표 3-14〉 건강행태 .....	39
〈표 3-15〉 우울 .....	40
〈표 3-16〉 일상생활 도움 여부 .....	41
〈표 3-17〉 일상생활 도움 제공자 .....	42
〈표 3-18〉 가족 돌봄 제공 여부 .....	43

〈표 3-19〉 가족돌봄 대상자 .....	44
〈표 3-20〉 돌봄 비용 부담 .....	45
〈표 3-21〉 돌봄 지원 서비스 및 자원 .....	46
〈표 3-22〉 월평균 가구 소득 .....	49
〈표 3-23〉 가구 주 소득원 .....	51
〈표 3-24〉 현재 가구 자산 .....	52
〈표 3-25〉 주된 자산 유형 .....	53
〈표 3-26〉 현재 부채 유무 .....	54
〈표 3-27〉 부채 규모 .....	55
〈표 3-28〉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 금액 .....	56
〈표 3-29〉 현재 생활비 마련 부담도 .....	58
〈표 3-30〉 현재 생활비 중 부담이 되는 항목 .....	59
〈표 3-31〉 가구 경제수준 .....	61
〈표 3-32〉 일일 영상 시청 시간 .....	62
〈표 3-33〉 여가 및 사회공헌 활동 참여 경험 .....	64
〈표 3-34〉 적극적 여가활동의 동반자 여부 .....	65
〈표 3-35〉 소극적 여가활동의 동반자 여부 .....	66
〈표 3-36〉 자원봉사나 사회공헌활동의 동반자 여부 .....	67
〈표 3-37〉 시민(사회) 및 정치단체 참여 동반자 여부 .....	68
〈표 3-38〉 종교활동 참여 동반자 여부 .....	69
〈표 3-39〉 친목·사교활동 참여 동반자 여부 .....	70
〈표 3-40〉 교육활동 참여 동반자 여부 .....	71
〈표 3-41〉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사 .....	73
〈표 3-42〉 사회공헌활동 참여 희망 유형 .....	74
〈표 3-43〉 현재 일 참여 여부 .....	75
〈표 3-44〉 현재 일을 하는 이유 .....	76
〈표 3-45〉 현재 직업 .....	78
〈표 3-46〉 현재 종사상 지위 .....	80
〈표 3-47〉 향후 일 지속 연령 .....	81

〈표 3-48〉 현재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83
〈표 3-49〉 향후 일자리 참여의향 .....	85
〈표 3-50〉 가구주 여부 .....	86
〈표 3-51〉 동거가구원 유형 .....	87
〈표 3-52〉 동거가구원 수 .....	89
〈표 3-53〉 비동거가구원 유형 .....	90
〈표 3-54〉 평균 비동거가구원 수 .....	92
〈표 3-55〉 전체 가구원 유형 .....	93
〈표 3-56〉 전체가구원 수 .....	95
〈표 3-57〉 자녀의 사회적지지 .....	96
〈표 3-58〉 배우자의 사회적지지 .....	97
〈표 3-59〉 지인의 사회적지지 .....	98
〈표 3-60〉 사회적관계망 .....	100
〈표 3-61〉 외로움 .....	101
〈표 3-61〉 노후준비 시작연령 인식 .....	102
〈표 3-62〉 영역별 노후준비도 평가 .....	104
〈표 3-63〉 영역별 노후준비 시작연령 .....	105
〈표 3-64〉 현재 생활 대비 영역별 중요도 .....	107
〈표 3-65〉 현재 생활 대비 영역별 우선순위 .....	108
〈표 3-66〉 영역별 중요도 대비 준비도 .....	110
〈표 3-67〉 개인적인 돌봄 준비 방법 .....	111
〈표 3-68〉 노년기 월평균 생활비 인식 .....	113
〈표 3-69〉 노후준비교육 경험 .....	114
〈표 3-70〉 노후준비교육 내용 .....	116
〈표 3-71〉 노후준비상담 경험 .....	117
〈표 3-73〉 노후준비상담 내용 .....	119
〈표 3-74〉 현재 자산 관리 및 노후 재무 설계 .....	121
〈표 3-75〉 노년기 성격특성과 신체변화 등의 정보 .....	122
〈표 3-76〉 금연, 금주, 식이조절 등 건강관리 .....	124

〈표 3-77〉 우울증, 치매 등 정신건강관리 .....	125
〈표 3-78〉 새로운 또는 확장된 취미·여가활동 .....	127
〈표 3-79〉 가족관계 재정립 및 의사소통 .....	128
〈표 3-80〉 인터넷, 스마트기기 이용방법 등 .....	130
〈표 3-81〉 새로운 직업을 위한 직업능력 및 기술개발 .....	131
〈표 3-82〉 노년기 일자리 정보 및 구직방법 .....	133
〈표 3-83〉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및 단체 활동 .....	134
〈표 3-84〉 노후준비 정보 획득 경로 .....	136
〈표 3-85〉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노력 .....	138
〈표 3-86〉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 인지 여부 .....	140
〈표 3-87〉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 이용 경험 여부 .....	142
〈표 3-88〉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 이용만족도 .....	143
〈표 3-89〉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 이용 의향 .....	145
〈표 3-90〉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 확대 필요성 .....	147
〈표 3-91〉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및 기관 인지 여부 .....	150
〈표 3-92〉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및 기관 필요도 .....	152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	6
〈그림 4-1〉 전라북도 노후준비 광역협의회 기관(2022년) .....	156
〈그림 4-2〉 인천광역시 노후준비 협의회 구성(안) .....	158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빈곤율(OECD, 2023),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등 노인 빈곤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무적 노후준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노인 빈곤뿐만 아니라 건강 악화, 우울, 자살, 고독사, 사회관계망 약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를 경험하므로 전반적인 영역에서 공익적 목적의 포괄적 노후준비 지원이 필요함.
- 노년기를 잘 준비하기 위한 지원은 향(向) 노인세대의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파악하거나 현 노인세대의 현황과 실태를 기준삼아 필요한 노후준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현재 노인의 노후준비 경험에 대한 조사는 미비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 이후의 노인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이들의 준비경험을 조사함으로써 향 노인세대의 노후준비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함.

### 제2절 연구 내용 및 절차

- 노후준비 관련법과 정부 정책에서의 노후준비 영역 검토 및 선행조사 탐색하여 조사영역과 조사표를 설계하고,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사문항을 확정함.
- 만 60~74세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근거하여 모집단을 설정하고 지역별 및 성별, 연령별 표본을 추출하여 2024년 5~6월에 627명을 3주간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함.
- 결측을 제외한 619명의 응답을 성별, 연령, 지역, 최종학력, 혼인 상태, 주택 점유형태, 가구유형에 따라 횡단 분석하고, 결과를 빈도, 퍼센트 및 점수로 보고함.
-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중점 노후준비 영역 등 노후준비 지원방안을 제시함.

## 제2장 조사 설계

### 제1절 조사 개요

- 선행 조사 자료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조사표를 확정하고, 여론조사 전문업체를 통하여 약 3주간 인천시 거주 만 60세~74세의 인천시민 600명을 조사함.
- 결측 발생을 고려하여 627명을 최종 조사하였고, 응답이 부실한 사례를 제외한 619명을 분석에 활용함.

### 제2절 조사 대상

-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만 60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인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이며, 모집단(565,149명) 기준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2.5\%p$ 의 최소 표본 수는 384명임.
- 지역별 제공근비례배분 및 성별과 연령 비례배분을 통해 표본을 할당함.

### 제3절 조사 내용

- 조사표 구성을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 고령화고용패널, 인천시 노인실태조사,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실태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공통 항목을 포함하여 문항을 구성함.
- 조사 내용은 일반적 특성, 노후생활실태,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 정책 욕구의 네 영역으로 구성함.
  - 일반적 특성: 조사자의 기본 정보 확인. 연령, 성별, 지역 등
  - 노후생활실태: 건강, 돌봄, 재무, 취미·여가 및 사회공헌, 일, 가족, 사회적 관계 현황 조사
  -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 전반적 노후준비 시작 연령, 영역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등
  - 정책 욕구: 노인서비스 관련 인식,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정책지원 인식 등

## 제3장 분석 결과

### 제1절 일반적 특성

- 성별은 남성(48.6%)보다 여성(51.5%)의 비율이 더 높음.
- 평균 연령은 66.2세, 60~64세(42.6%), 65~69세(31.0%), 70~74세(26.3%)의 순임.
- 최종학력은 고졸(49.9%), 중졸(25.0%), 전문대졸 이상(15.7%), 초졸(8.4%), 무학(1.0%)의 순으로 높음.
- 혼인상태는 혼인 중(66.2%)이 가장 높고, 사별(15.0%), 이혼(12.9%), 미혼·비혼(4.2%), 별거(1.6%)의 순으로 높음.
- 주거유형은 아파트(40.5%), 다가구 주택(34.2%), 단독주택(22.3%), 임대주택(2.9%)의 순으로 높음.
-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73.3%), 월세(13.9%), 전세(12.8%)의 순으로 높음.

### 제2절 노후생활실태

#### 1.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23점으로 긍정평가(49.4%)가 부정평가(21.3%)보다 높음.
- 7.4%는 지난 1년간 진료가 필요하지만 진료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58.7%)임.
- 73.8%는 만성질환이 있으며, 고혈압(48.1%), 고지혈증(38.4%), 당뇨병(22.9%), 골관절염(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은 평균 56.8세 때 처음 앓기 시작하였으며, 96.1%는 지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함.
- 건강행태를 보면, 음주(40.4%), 흡연(19.1%), 정기적 건강검진(92.7%), 운동(83.2%), 구강관리(54.0%), 치매검진(8.2%)을 하고 있음.
- 우울 증상이 있다는 응답은 17.4%임.

- 일상생활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은 1.1%이며, 도움을 제공하는 대상은 주로 배우자(42.9%)와 외부서비스(42.9%)임.

## 2. 돌봄

- 4.8%는 가족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부모(60.0%), 배우자(33.3%) 등임.
- 돌봄 비용 부담은 심리적 부담(3.63점), 경제적 부담 및 신체적 부담(각 2.90점), 시간적 부담(2.67점)의 순으로 나타남.
- 돌봄 지원은 주로 비동거 가구원 및 친인척의 현금 지원(33.3%), 민간보험(30.0%), 장기요양서비스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23.3%) 등이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33.3%에 달함.

## 3. 재무

- 가구 월평균 소득은 308.6만원이며, 주 소득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54.4%), 기초연금 외의 공적이전 소득(21.2%), 본인 및 배우자의 사업소득(15.5%) 등의 순임.
- 가구자산은 평균 3억 2515만원이며, 주로 부동산자산(93.4%)에 치중되어 있음.
- 20%는 부채가 있었으며, 부채 규모는 평균 9621만원임.
-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 금액은 평균 211만원임.
- 현재 생활비 마련 부담은 평균 3.61점으로 다소 부담을 느끼며, 부담이 되는 항목은 식비(89.8%), 주거관리비(86.1%), 보건의료비(45.2%), 통신비(25.4%) 등의 순임.
- 가구의 경제수준은 평균 2.13점으로 낮게 평가함.

## 4. 취미·여가 및 사회공헌

- 일일 영상 시청 시간은 평균 4.2시간임.
- 여가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 경험을 보면, 소극적 여가활동(98.9%), 친목·사회활동(91.3%), 적극적 여가활동(55.7%), 종교활동(29.4%), 교육활동(10.0%), 자원봉사나 사회공헌활동(9.7%), 시민 및 정치단체 참여(3.2%)의 순으로 나타남.

- 활동별 동반자 응답률을 보면, 친목·사교활동(99.6%), 자원봉사나 사회공헌활동(98.3%), 종교활동(96.2%), 시민 및 정치단체 참여(95.0%), 적극적 여가활동(93.3%), 교육활동(75.8%), 소극적 여가활동(42.3%)의 순으로 높았음.
- 51.5%는 보상이 있어도 사회공헌활동에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고,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 무보상(22.9%), 약간의 수당(15.2%), 교통비 정도 보상(10.3%)을 희망함.
- 사회공헌활동 참여 희망 유형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76.3%)가 가장 높음.

## 5. 일

- 63.5%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노년기 생계(86.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저축(70.2%), 건강한 생활(34.4%), 지루해서(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직업은 단순기술조립 및 노무직(34.6%), 서비스·판매직(32.3%), 자영업(20.9%), 전문직(6.6%), 경영·관리직 및 사무직(각 2.3%), 농림어업직(1.0%)임
  -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36.1%), 임시근로자(30.0%), 단독자영업자(16.0%), 일용근로자(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 74.4세까지 계속 일을 할 것이라 응답함.
- 일을 하지 않는 36.5%는 장애·부상·노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50.4%),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22.6%), 가사노동·(손)자녀 돌봄을 하고 있어서(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3.5%가 참여의사가 있었으며, 시장형사업단(55.1%)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음.

## 6. 가족

- 응답자의 66.7%는 가구주이며, 단독가구는 27.9%, 동거가구는 72.1%였음.
  - 동거가구원은 평균 1.1명이며, 배우자(66.2%), 자녀(27.3%), 손자녀 및 부모(각 2.1%) 등의 순임.
  - 비동거가구원은 평균 4.4명이며, 자녀(80.9%), 배우자(67.5%), 손자녀(58.6%), 부모(20.5%) 등의 순임.

- 동거 및 비동거를 모두 포함하여 가구원이 없는 사례는 5.2%였고, 가구원이 있는 경우 평균 가구원수는 5.4명이며, 자녀(92.9%), 자녀의 배우자(68.3%), 배우자(66.2%) 등의 순으로 많음.

○ 배우자의 사회적지지는 3.16점으로, 자녀의 사회적지지(2.95점)보다 높음.

## 7. 사회적 관계

- 지인의 사회적지지는 평균 2.81점이며, 외로움은 평균 1.82점임.
- 사회적 관계망으로 도움을 받을 상대가 있다는 사례를 보면,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경우 51.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85.5%,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96.3%였음.

## 제3절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

- 평균 46.1세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함.
- 영역별 노후준비경험을 보면 가족관계(58.0점), 건강(47.2점), 재무(45.4점), 일(40.0점), 돌봄(37.6점), 취미여가 및 사회공헌(31.2점) 영역의 순으로 준비함.
- 영역별 노후준비 시작 연령은 가족관계(46.1세), 재무(47.9세), 사회적 관계(50.0세), 건강(52.8세), 돌봄 및 일(각 52.9세), 취미여가 및 사회공헌(54.0세)의 순으로 먼저 준비하였음.
- 현재 생활에 비추어 영역별 중요도를 보면 건강(99.7점), 가족관계(96.0점), 재무(93.9점), 일(87.5점), 돌봄(83.5점), 사회적 관계(73.9점), 취미여가 및 사회공헌(69.4점)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여김.
- 영역별 중요도와 준비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건강(-52.5점), 재무(-48.4점), 돌봄(-45.8점), 일(-47.5점), 취미여가 및 사회공헌(-38.2점), 가족관계(-38.0점), 사회적 관계(-27.2점)의 순으로 중요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함.
- 개인적인 돌봄 준비는 민간보험 가입(63.7%)이 가장 높고, 자산마련(45.4%), 자녀와의 관계(43.88%), 신체·정신건강 관리(43.5%), 없다(17.0%)의 순으로 나타남.

- 1인가구의 노년기 월평균 생활비를 보면 최소 생활비 109.3만원, 적정 생활비 170.9만원, 의료 생활비 243.4만원임.
- 부부가구의 노년기 월평균 생활비를 보면 최소 생활비 185.7만원, 적정 생활비 276.1만원, 의료 생활비 386.6만원임.
- 5.0%는 노후준비교육을, 4.0%는 노후준비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두 서비스 모두 그 내용으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여가활동을 위한 취미 개발, 자기계발을 위한 준비 등의 순으로 받았다는 응답이 높음.
-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준비내용의 평균 필요도를 보면 노년기 일자리 정보 및 구직방법(3.37점), 우울증·치매 등 정신건강관리(3.65점), 금연·금주·식이조절 등 건강관리(3.61점), 새로운 직업을 위한 직업능력 및 기술개발(3.31점), 노년기 성격특성과 신체변화 등의 정보(3.28점), 가족관계 재정립 및 의사소통(3.28점), 인터넷·스마트기기 이용방법 등(3.15점), 현재 자산 관리 및 노후 재미 설계(3.09점), 새로운 또는 확장된 취미·여가활동(3.08점), 자원봉사 수요처 및 단체활동(2.95점)의 순으로 나타남.
- 노후준비 정보의 획득 경로는 주로 TV나 라디오 방송(97.3%)이며, 주변사람(84.8%), 유튜브 및 인터넷 검색(64.3%), 행정기관(19.1%) 등의 순이었음.

#### 제4절 정책 욕구

- 중앙정부나 인천시는 노인 일자리 지원 충분도는 2.99점으로, 긍정평가(25.7%)가 부정평가(24.9%)보다 다소 높았음.
-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99.7%), 경로당(99.7%), 방문요양서비스(99.0%), 노인의료복지시설(98.2%), 노인일자리지원기관(92.6%), 주간보호서비스(89.8%), 노인보호전문기관(60.7%), 긴급돌봄서비스(54.6%)의 순으로 나타남.
  - 이용 해 본 서비스 및 기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11.0%),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9.4%), 경로당(1.1%), 방문요양서비스(0.3%)의 순이었음.
  - 이용만족도는 방문요양서비스(3.50점),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3.48점), 노인일자리지원기관(3.43점), 경로당(3.00점)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지속)이용 의향은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88.9%), 방문요양서비스(83.5%), 노인의료복지시설(80.3%), 노인일자리지원기관(76.4%), 긴급돌봄서비스(75.4%), 주간보호서비스(72.4%), 노인보호전문기관(65.8%), 경로당(56.9%)의 순이었음.
- 확대해야 할 기관은 주간보호서비스(96.8%), 노인일자리지원기관(96.4%), 방문요양서비스(95.8%), 긴급돌봄서비스(95.3%),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93.5%), 노인의료복지시설(92.9%), 노인보호전문기관(92.9%), 경로당(83.8%)의 순이었음.
-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및 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노인일자리사업(97.6%),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64.6%), 노후준비서비스(57.4%), 귀농귀촌종합센터(42.2%), 사회적기업 등(38.9%), 고령자 인재은행(36.0%), 모두 모름(1.5%)의 순으로 나타남.
- 필요 인식은 노인일자리사업(99.2%),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98.7%), 노후준비서비스(98.4%), 고령자 인재은행(94.7%), 사회적기업 등(83.4%), 귀농귀촌종합센터(82.2%)의 순으로 높았음.

## 제4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 제1절 정책적 제언

#### 1. 시민 욕구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준비할 수 없었던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 기준에서 건강(-52.5점), 재무(-48.4점), 일(-47.5점) 영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요구됨.
- 대부분 교육 형태의 제공을 선호하며, 개별화된 진단과 실천 계획이 필요한 재무, 건강행태, 정신건강, 일자리는 상담 형태의 선호 또한 높음.
- 건강은 영역별 우선순위 1순위, 노후준비 중요도 대비 노후준비도에서 가장 준비하지 못한 영역이며, 시작연령도 52.8세로 늦은 편임.
- 신체건강 관리(만성질환 관리, 건강행태 개선 등)와 정신건강 관리(우울 및 스트레스 등), 자신 및 가족 대상 돌봄 계획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과잉정보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가 필요함.

- 노후준비지원센터는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므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노후준비 실천을 도움.
- 인천시는 시민 욕구를 고려하여 건강과 재무 영역을 중심으로 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선정기준은 공적 전달체계이며 광역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
  - 회의나 보고의 형식적 활동이 아닌 사업 연계와 공동사업 수행 등 실질적인 노후준비 협의체 활동을 위하여 참여 기관의 수는 점진적으로 늘려야 함.
  - 구성(안)은 재무 3개소(국민연금공단,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비스금융복지지원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또는 노인인력개발센터), 건강 3개소(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팀 또는 인천광역시 의료원, 인천광역시치매센터,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여가 2개소(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노인복지관), 대인관계 1개소(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임.

## 2. 1인가구 준비를 위한 특화서비스 개발

- 노인 1인가구는 생활 전반에서 다른 가구유형보다 취약한 집단이며, 노후준비 욕구는 높았으나 노후를 잘 준비하지 못한 집단임.
- 미혼·비혼인 사례와 응답의 차이를 보이는데, 사별, 자녀분가 등의 이슈로 노인이 되었을 때 1인가구가 되는 사례에 대한 노후준비가 필요함.
  - 노년기에 자녀와의 단절은 자녀라는 지지체계가 부적 영향요인으로 기능하고, 주택 규모 축소에 따른 지역 이전으로 사회적 관계 또한 단절됨.
- 기존의 노후준비지원서비스는 부부나 가구 구성을 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노년기에 1인가구가 되는 준비를 돕는데 제한적으로, 이를 특화서비스로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3. 생활실천 기반 상담 프로토콜 제공

- 대부분 50대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후준비도 평가는 중요도와 비교하여 매우 낮음.

- 전반적인 노후서비스가 부족하여 노후준비 진단과 체계적인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노후준비교육과 상담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 제공이 필요함.
- 개별화된 특성을 가진 영역에서 각 사례별 적용할 수 있는 노후준비 상담서비스를 구조화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토콜(protocol) 마련이 요구됨.
  - 가구유형, 혼인상태, 연령 등을 조합하여 상담 대상 유형을 구체화하고, 각 영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과 연계기관 정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제2절 결론

- 활동적 노화와 건강 노화의 패러다임 하에서 예비노인세대에게 노년기를 잘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포괄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예비노인세대가 노년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인의 노후준비 경험과 현 실태를 기준으로 제시함.
- 만 60세부터 74세까지의 인천시 거주 619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노후생활실태,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 정책 욕구의 네 영역의 실태를 조사함.
- 이를 통하여 노후준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민욕구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근거자료를 마련함.
- 향후 예비노인세대와의 결과 비교에 대한 후속연구 수행으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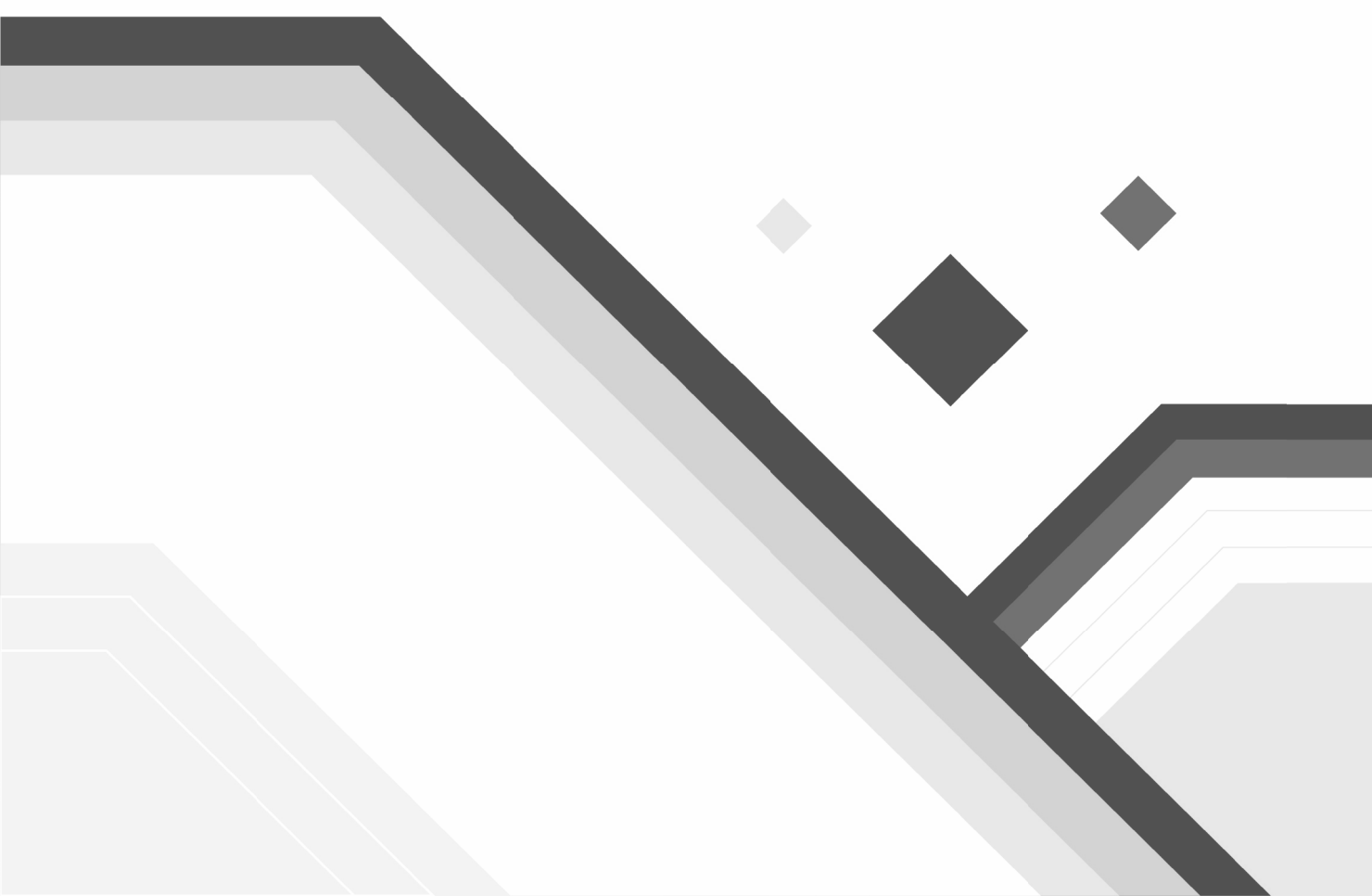
# 1

---

#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절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은 82.7년으로(OECD, 2022), 정년퇴직 연령<sup>1)</sup>인 60세 이후 약 33년의 노년기를 영위한다.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나 건강노화(Healthy ageing)과 같은 새로운 노년기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 또는 증진하면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예비노인세대는 노인 빈곤을 대비하기 위해 주로 경제적 준비에 집중하여 노년기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양지훈, 2022).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OECD, 2023), 노동인구의 감소로 다음 세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민연금 고갈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노인 빈곤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재무영역에 대한 노후준비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노인은 빈곤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 단절을 비롯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를 경험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쇠해지고, 여가는 소극적이 되며, 사회적 관계망은 약화된다(양지훈 외, 2022).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법령인「노후준비 지원법」은 빈곤 질병·무위·고독에 대한 대처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로 노후준비 영역을 구분한다(법제처, 2024b).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은 복지시설, 금융기관, 평생교육시설 등 여러 주체에서 교육, 상담, 진단 등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상품 위주의 노후준비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특정한 사항에 목적을 두고 일부 영역만을 다루는 등의 한계가 있다. 공익적 목적의 포괄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적 전달체계는 상기 법에 따른 노후준비지원센터다. 노후준비지원센터는 당초 국민연금공단이 지정·운영되었으나,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1) 정년퇴직 연령은 직업이나 종사상 지위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법제처, 2024a), 이를 기준으로 정년퇴직 연령을 60세로 정하는 편이다.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지자체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였고, 2022년 시범사업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절차를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는 공공기관 등에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는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광역시 또한 인천시민의 체계적 노후준비를 돕고자 광역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광역센터는 동법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명시된 사업인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조성, 지역센터에 대한 지역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특화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과 자원, 그리고 지역 내 인구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년기에 대한 기대는 사회적 상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양지훈, 2022), 변화하는 노년기 삶에 대한 욕구에 맞춘 노후준비 지원이 요구된다.

노년기를 잘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대상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향(向) 노인세대의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 노인세대의 노후준비 현황과 실태를 기준으로 삼아 필요한 노후준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선행한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예비노인세대를 중심으로 노후준비 수준인식과 노년기 기대를 알아보는 조사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김양아이채우, 2008; 박지현, 2018; 배문조, 2009; 이소정, 2009; 이용재, 2013; 이지운·최현자, 2023; Chan & Yap, 2009; Collinson, 2016; Robison et al., 2013; Sullivan et al., 2009). 인천시는 2018년 및 2022 예비노인세대 조사를 통해 이들의 노후준비도와 노년기 기대를 조사하였다(양지훈·권미애, 2018; 양지훈, 2022). 반면 노인의 노후준비 경험에 대한 조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노후생활에 대한 관련된 노인 대상 연구는 주로 노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향 노인세대에게 노후준비 수행에 함의를 줄 수 있는 조사 결과는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은퇴 이후의 현재 노인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이들의 준비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향 노인세대에게 노년기 생활에 비추어 자신의 노후준비를 자가 점검 하고 구체적인 노후생활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년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실증적인 조사결과는 광역센터에서 인천시민들의 실제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 때 필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노인들의 노후준비 경험과 현재 생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노후준비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向) 노인세대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절차

### 1. 연구 내용

노후준비 관련법과 인천시 정책에서 나타난 노후준비 영역을 검토하고, 국민노후보장패널, 2022년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실태조사와 같은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조사를 탐색하여 조사 영역과 조사표를 설계하였다. 인천시 노인실태조사와 고령화고용패널과 같은 노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선행조사의 조사 문항 또한 참고하였다. 설문문항은 내부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정한 후 확정하였다. 조사항목은 조사대상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선별질문을 포함하여 일반적 특성, 노후생활실태, 노후준비 경험, 정책 욕구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3주간의 조사기간 동안 대면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시점인 2024년 4월 말 기준 인천광역시 만 60~74세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근거하여 모집단을 설정하고, 인천시 10개 군구 및 성별과 연령에 따라 제곱근 비례배분으로 표본을 층화 추출하였다. 총 627명이 응답을 완료하였고, 그 중 결측을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된 응답은 61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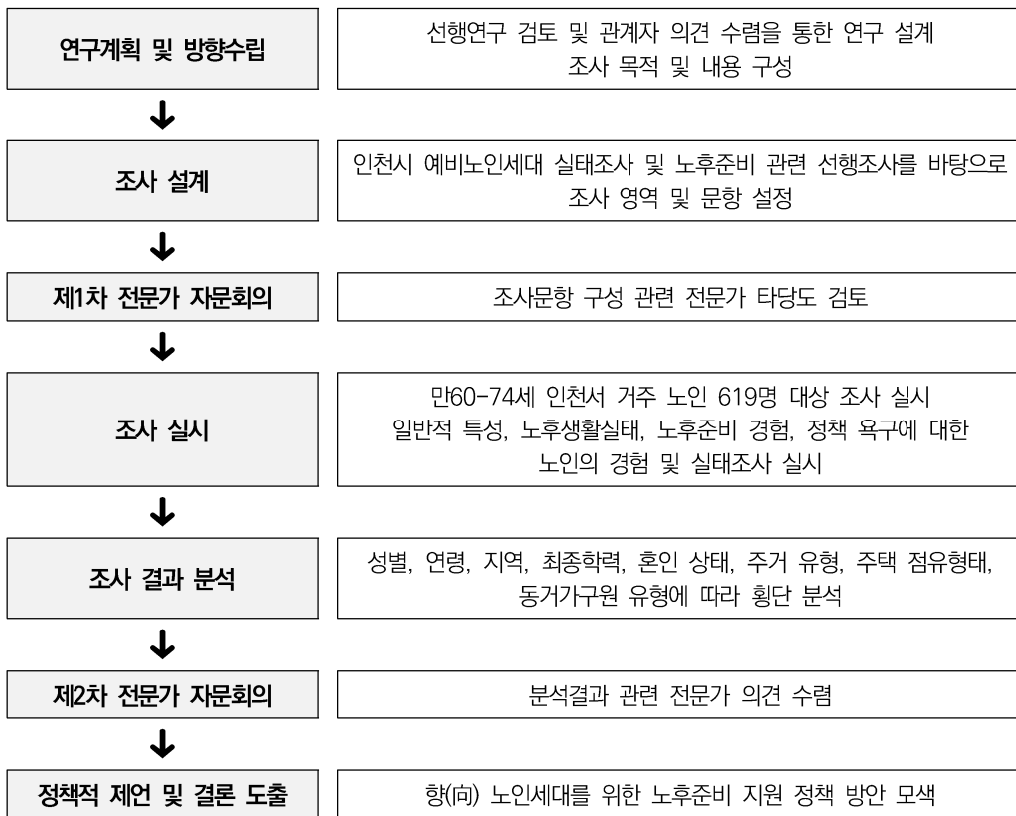
수집된 응답은 성별, 연령, 지역, 최종학력, 혼인 상태, 주택 점유형태, 가구유형에 따라 횡단 분석하였다. 전체 결과는 빈도, 퍼센트 및 점수로 나타내었다. 퍼센트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되어, 전체 합계가 10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도 100으로 보고하였다.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 노인세대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중점 영역과 특화서비스 등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추진 절차

본 연구의 추진절차는 아래 <그림 1-1>과 같이 연구계획 및 방향수립, 조사 설계, 전문가 자문회의, 조사 실시, 조사 결과 분석, 정책적 제언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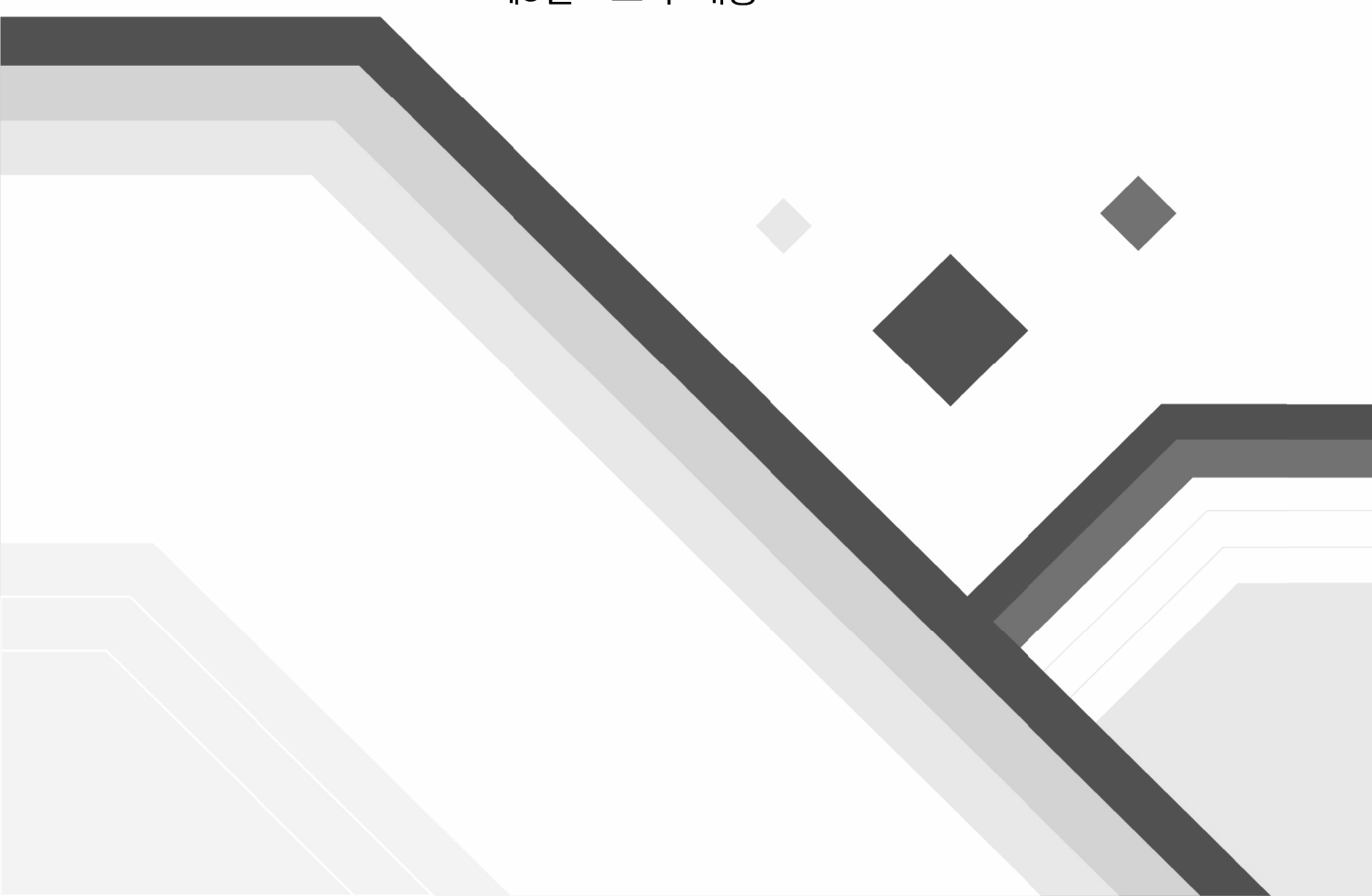
---

## 조사 설계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대상

제3절 조사 내용





## 제2장 조사 설계

### 제1절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아이알씨에 의뢰하여 2024년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3주간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에서 만 74세 이하의 인천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실태조사 내용 중 노후준비에 관한 문항 및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민 노후보장패널 등 관련 선행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표를 수립하였다. 이후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 제공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조사문항을 수정하고, 노인이 응답하기 용이하도록 조사업체와 논의하여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조사문항에 관한 내용은 본 장 제3절의 조사내용에 수록하였다.

조사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면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12명의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의 목적과 내용, 목표표본 등을 교육하고, 설문지의 흐름과 로직을 설명하였다. 면접조사 직후 조사원은 응답을 검토하여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결측 발생을 고려하여 계획한 조사인원인 600명을 초과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27명이 응답하였고 응답률은 104.5%이다. 분석에 활용된 사례 수는 응답이 부실한 8사례를 제외하고 619명이며 결측률은 1.3%이다.

설문지의 응답은 Excel 데이터로 입력되었으며, 응답의 로직과 결측을 확인하였다. 이후 데이터의 병합을 통해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으로 변환하였다. 항목 수가 많은 경우 이를 범주화하여 값을 병합하였고, 척도 문항이나 2순위 이상 합계를 산출하는 문항은 신규 변수를 생성하는 등 전체 실태를 파악하기 쉽도록 데이터클리닝을 진행하였다. 또한 척도로 제시된 문항에서 역체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산 후 합계를 산출하였으며, 절단점을 통해 집단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단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석은 통계패키지인 SPSS를 활용하여 응답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등으로 제시하였다. 2순위 이상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1개만 답변하는 등 결과값을 모두 보고하지 않거나 해당 없다고 한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비율의 보고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 또는 소계를 제시하여, 그 값이 100 퍼센트를 넘거나 부족하게 나타날 수 있다.

## 제2절 조사 대상

### 1. 모집단

조사의 대상은 일반적인 은퇴연령인 만 60세 이후부터 연소노인의 범주에 해당하는 만 65~70세 노인을 포함하므로, 모집단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개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일자리 등 노인관련 정책의 서비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므로 조사대상을 모두 노인으로 지칭하되, 세부 구분이 필요할 때는 노인의 범주에 따라 60~64세, 65~74세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목표모집단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0~74세의 노인의 2024년 4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는 565,149명이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 2. 표본 집단

표본을 산정하기 위해 모집단 565,149명을 기준으로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2.5\%$ p에서 요구되는 최소 표본을 살펴보았다. 표본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수식은 다음과 같다 (나우앤서베이, 2024).

$$n = \frac{Z^2 \times p(1-p)}{e^2}$$

N : 모집단의 크기(Population Size)  
 n : 표본의 크기(Sample Size)  
 e : 표본오차(Margin of error or confidence interval)  
 Z :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에 대응하는 z-score  
 P : 관찰지(The observed percentage)

그 결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 표본 수는 384명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층화변수별 응답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600명으로 설정하였다. 층화변수로는 지역과 성별, 연령을 설정하였다. 지역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10개 층이며, 성별은 남성과 여성 2개 층이다. 연령은 60~64세, 65~74세 2개 층을 설정하였다.

지역별 모집단 인구는 비례배분을 할 경우 옹진군이나 동구와 같이 인구가 적은 지역은 20명 미만으로 할당되어 너무 적은 표본이 배분된다. 따라서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제곱근비례배분 방식으로 지역별 목표표본 수를 배분하였다.

〈표 2-1〉 모집단 분포

지역	성별	계	연령별	
			60~64세	65~74세
인천시 전체	계	565,149	253,495	311,654
	남	276,968	126,243	150,725
	여	288,181	127,252	160,929
중구	계	25,649	10,543	15,106
	남	12,858	5,509	7,349
	여	12,791	5,034	7,757
동구	계	13,798	5,199	8,599
	남	6,549	2,589	3,960
	여	7,249	2,610	4,639
미추홀구	계	82,086	34,193	47,893
	남	39,003	16,639	22,364
	여	43,083	17,554	25,529
연수구	계	60,794	29,679	31,115
	남	30,559	14,914	15,645
	여	30,235	14,765	15,470
남동구	계	96,977	42,645	54,332
	남	46,670	20,967	25,703
	여	50,307	21,678	28,629
부평구	계	99,144	44,440	54,704
	남	47,547	21,764	25,783
	여	51,597	22,676	28,921
계양구	계	60,513	29,775	30,738
	남	30,204	14,776	15,428
	여	30,309	14,999	15,310
서구	계	97,987	46,274	51,713
	남	49,132	23,546	25,586
	여	48,855	22,728	26,127
강화군	계	21,918	8,258	13,660
	남	11,037	4,174	6,863
	여	10,881	4,084	6,797
옹진군	계	6,283	2,489	3,794
	남	3,409	1,365	2,044
	여	2,874	1,124	1,750

제공근비례배분은 각 층별 모집단의 크기를 각 층별 모집단 크기의 제공근의 합으로 나누어 비례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법제처, 2024c). 제공근비례배분 방식으로 지역별 목표표본 수를 배분하면, <표 2-2>와 같다. 인구수가 적은 중구는 27명에서 43명으로, 동구는 15명에서 32명으로, 강화군은 23명에서 40명으로, 옹진군은 7명에서 21명으로 목표표본 수가 변경되었다. 연수구는 65명에서 67명으로, 계양구는 64명에서 66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인구수가 많은 미추홀구는 87명에서 77명으로, 남동구는 103명에서 84명으로, 부평구는 105명에서 85명으로, 서구는 104명에서 85명으로 변경되어 배분되었다.

<표 2-2> 지역별 배분

지역	모집단 인구	단순비례배분 시 목표표본 수	제공근비례배분 시 목표표본 수
인천시 전체	565,149	600	600
중구	25,649	27	43
동구	13,798	15	32
미추홀구	82,086	87	77
연수구	60,794	65	67
남동구	96,977	103	84
부평구	99,144	105	85
계양구	60,513	64	66
서구	97,987	104	85
강화군	21,918	23	40
옹진군	6,283	7	21

지역별로 배분된 표본 수를 지역 내의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하였으며, 이에 따른 층별 목표표본 수는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성별·연령별 배분

지역	성별	계	연령별	
			60~64세	65~74세
인천시 전체	계	600	264	336
	남	295	133	162
	여	305	131	174
중구	계	43	17	26
	남	21	9	12
	여	22	8	14
동구	계	32	12	20
	남	15	6	9
	여	17	6	11
미추홀구	계	77	32	45
	남	37	16	21
	여	40	16	24
연수구	계	67	32	35
	남	34	16	18
	여	33	16	17
남동구	계	84	37	47
	남	40	18	22
	여	44	19	25
부평구	계	85	38	47
	남	41	19	22
	여	44	19	25
계양구	계	66	32	34
	남	33	16	17
	여	33	16	17
서구	계	85	40	45
	남	42	20	22
	여	43	20	23
강화군	계	40	15	25
	남	21	8	13
	여	19	7	12
옹진군	계	21	9	12
	남	11	5	6
	여	10	4	6

실제 조사 진행 결과, 유효표본 총 619명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표본 수는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최종 표본 수

지역	성별	계	연령별	
			60~64세	65~74세
인천시 전체	계	619	264	355
	남	301	129	172
	여	318	135	183
중구	계	45	17	28
	남	21	8	13
	여	24	9	15
동구	계	34	11	23
	남	15	4	11
	여	19	7	12
미추홀구	계	79	33	46
	남	37	17	20
	여	42	16	26
연수구	계	69	32	37
	남	35	16	19
	여	34	16	18
남동구	계	85	38	47
	남	41	20	21
	여	44	18	26
부평구	계	87	38	49
	남	43	19	24
	여	44	19	25
계양구	계	68	33	35
	남	32	14	18
	여	36	19	17
서구	계	88	38	50
	남	43	18	25
	여	45	20	25
강화군	계	41	15	26
	남	22	8	14
	여	19	7	12
옹진군	계	23	9	14
	남	12	5	7
	여	11	4	7

### 제3절 조사 내용

#### 1. 선행 조사 검토

노인의 노후준비 경험에 대한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 고령화고용패널, 인천시 노인실태조사 및 예비노인세대 실태조사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는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와 노인세대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선행 조사에서 주로 조사되는 항목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전국 만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가구에 있는 만50세 이상의 개인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상황, 중고령자의 고용현황 및 퇴직,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국민연금연구원, 2024). 2005년 1차년도 본조사가 시작된 이후 2023년에 10차 본조사가 실시되었고, 설문지를 구성한 4월 기준 공개된 최신의 자료는 2022년 자료이다.

고령화고용패널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이 본격화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6년생)를 중심으로 주된 일자리 이력을 파악하여 은퇴, 재취업, 노후 준비 등 고령층의 노동시장 퇴장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24). 2021년 새롭게 패널을 구축하였으며 2년마다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가장 최신의 자료는 2022년 자료이다.

인천시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인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하여 일반적 특성,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치관 및 삶의 만족도,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하석철김제희, 2021). 본 조사는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8년과 2021년에 두 번 실시되었다.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실태조사는 노년기 적응의 선제적 적응을 위해 예비노인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가족 및 대인관계, 여가 및 사회참여활동, 건강, 주거 및 지역사회 인식, 재무 및 노후준비, 코로나19 관련 사람의 변화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양지훈, 2022). 본 조사는 인천시 거주 50세 이상 64세 미만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2018년과 2022년에 두 번 실시되었다.

이상의 조사에서 구성된 항목을 분류하면 다음 <표 2-5>와 같다. 항목의 구분은 일반적 특성 정보와 함께 노후준비 기본법에 명시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항목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조사 중 국민노후보장패널은 가구용과 가구원 개인용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구분하지 않고 정리하였다.

〈표 2-5〉 선행조사의 조사항목

항목	국민노후보장패널	고령화고용패널	인천시 노인실태조사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실태조사
일반적 특성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등, 주거현황	가구주 여부, 연령, 학력, 혼인상태 등	성별, 연령, 거주지역, 최종학력, 주거유형	가구주여부, 성별, 연령, 지역, 최종학력, 혼인상태, 주택 점유형태
재무	가구지출항목, 소득대비 과다 지출, 부족한 생활비 마련, 소득(근로, 연금, 금융, 부동산, 이전, 기타) 및 자산(저축, 부동산, 금융, 기타자산), 부채, 사회복지관련제도, 건강보험 관련 정보	임금/자영업/농어업 등 소득별 상세 내용(근로, 연금, 사회보장소득, 부동산 금융 및 기타소득), 생활비/식비/외식/사교육 등 소비유형별 상세 내용, 가구저축규모 등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수급 여부, 가구 총소득, 소비지출액, 생활비 부담 항목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주관적 경제수준, 가구부채, 현재 생활비 및 노년생활비 마련 부담도와 충분도, 노년기 소득원
건강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 장애, 질병 정보, 일상생활활동 정보, 영역별 삶의 만족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	주관적 건강 상태, 장애 판정 및 종류, 건강상태로 인한 활동 제한, 만성질환 진단 여부, 교통사고 경험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관련 정보, 우울 수준, 흡연 여부 및 음주 빈도, 운동 빈도, 건강감진 수검 여부, 일상생활수행능력	연령정체감, 흡연, 음주, 운동, 구강건강관리, 병원원 방문, 정기적 건강검진, 만성질환, 삶의 질, 사회적 고립감, 전반적 삶의 만족도
여가	현재 송사 일자리, 퇴직급여, 정년 및 퇴직, 이직활동 및 은퇴계획, 구직활동, 은퇴 태도, 직업력 관련 정보, 종교여부	현재 고용상태 및 현재 일자리 관련 정보, 직전 일자리/생애 주된 일자리 정보, 구직자 및 비근로자의 구직여부, 희망일자리, 퇴직계획 연령 등	영상 시청시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및 의사, 전자기기 활용 욕구, 정보화 관련 일상생활 불편, 경제활동 관련 정보, 구직활동 유무 및 방법 등	최근 3개월 여가활동 및 노년기 참여 의사, 디지털 역량, 주된 일자리 경험 및 현재 경제활동 관련 정보,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 의향
대인관계	손자녀 및 부모 돌봄, 가구구성, 동거 여부, 왕래 및 연락빈도	자녀 유무 및 수, 사망여부,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학력, 주된 일자리 상세, 혼인상태 등)	가구구성, 기혼자녀 동거 이유, 비동거자녀와 친구 등 만남 및 연락 빈도, 손자녀 돌봄 여부	가구구성 및 동거 여부, 자녀부양책임, 부모 및 자녀 관련 정보, 친교집단 순위, 세대간 갈등, 주변인과의 사회적지지, 사회관계망의 규모, 노년기 돌봄서비스
기타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노후해당 여부, 노후생활비, 여가활동 등)	고용지원제도 경험(임금피크제, 고령자 고용지원 등)	고령친화환경 8대 영역에 대한 인식,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인식 등	현 주거지 거주기간 및 노년기 주거환경 중요도, 노후준비도 및 관련 정보, 노년기 기대하는 생활양식, 노후준비 교육

## 2. 조사방향

선행조사의 조사방향과 노후준비 관련 종사자 및 정책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연구의 설문을 최종 구성하였다. 조사 영역 및 문항은 <표 2-6>과 같이 크게 일반적 특성, 노후생활실태,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 정책 욕구의 네 영역으로 나누었다.

일반적 특성은 조사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영역으로, 연령, 성별, 지역, 최종 학력, 현재 혼인 상태, 주거 유형, 주택 점유형태를 조사하였다.

노후생활실태는 노후준비에 대한 4대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재무를 제외한 3개 영역을 세부적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재무는 대부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으로, 자신 측면의 재무와 노년기 소득 창출의 측면의 일을 분리하였다. 건강은 돌봄 파산이나 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이 돌봄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과 돌봄으로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대인관계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분리하였다.

건강은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내용으로, 평소 건강상태,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의 미진료 경험, 만성질환 유무 및 관리, 건강행태, 우울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돌봄은 일상생활수행 시 도움 여부, 돌봄 제공 여부 및 그 사람과의 관계, 돌봄 비용 부담도, 돌봄 관련 지원서비스 및 자원에 대해 조사하였다. 재무는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주된 가구 소득원, 현재 가구 자산과 주된 자산 유형, 부채 여부 및 금액, 월평균 가구소비지출 금액, 현재 생활비 마련 부담도 및 부담되는 항목, 현재 가구 경제수준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여가 및 사회공헌은 영상 시청 시간, 여가/사회공헌활동 참여 경험 및 동반자,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향 및 희망활동 유형을 조사하였다. 일 영역은 참여 여부와 그 이유, 현재 일의 직업종사상 지위은퇴 예상 연령, 향후 일자리 참여 의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족은 가구주 여부, 동거가구원 유형 및 수, 자녀 및 배우자의 사회적지지로 구성하고, 사회적 관계는 지인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관계망 수, 외로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은 전반적 노후준비 시작 연령, 영역별 노후준비도 및 노후준비 시작 연령, 영역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돌봄 준비사항, 노후 생활비, 노후준비 교육/상담 경험 유무 및 내용, 예비노인세대의 노후준비 관한 인식, 노후준비 정보 획득 경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책 욕구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만족도, 노인서비스 관련 인식,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정책지원 인식에 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2-6〉 조사항목

구분	주요 내용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연령, 성별, 지역</li> <li>• 최종학력, 혼인 상태, 주거 유형, 주택 점유형태, 가구 유형</li> </ul>	
노후 생활 실태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 건강상태</li> <li>•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의 미진료 경험 및 이유, 만성질환 유무 및 관리</li> <li>• 건강행태(흡연, 음주, 정기적/비정기적 운동, 구강관리, 정기적 건강검진, 치매검진), 우울</li> </ul>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 여부 및 주요 제공자</li> <li>• 돌봄이 필요한 가족 유무, 돌봄 제공 여부 및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li> <li>• 돌봄(간병) 비용 부담정도, 돌봄 관련 받고 있는 서비스 및 자원</li> </ul>
	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주된 가구 소득원</li> <li>• 현재 가구 자산, 주된 자산 유형</li> <li>• 현재 부채 여부 및 부채액</li> <li>•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 금액, 현재 생활비 마련 부담도 및 부담항목</li> <li>• 가구 경제수준</li> </ul>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일(수입과 관련된 활동) 참여 여부와 그 이유</li> <li>• 현재 일의 직업, 종사상 지위, 은퇴예상 연령</li> <li>• 향후 일자리 참여의향</li> </ul>
	여가 및 사회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간 일 평균 영상 시청 시간</li> <li>• 여가/사회공헌활동 참여 경험 및 동반자</li> <li>•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향 및 희망활동 유형</li> </ul>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주 여부, 동거가구원 유형 및 수</li> <li>• 자녀 및 배우자의 사회적지지</li> </ul>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인의 사회적지지 및 사회관계망 수</li> <li>• 외로움</li> </ul>
노후 준비 인식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 노후준비 시작연령, 영역별 노후준비도 및 노후준비 시작연령, 영역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li> <li>• 돌봄 준비 사항</li> <li>• 노후 생활비</li> <li>• 은퇴나 노후준비 관련 교육/상담을 받아본 경험 유무 및 내용</li> <li>•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영역별 필요성 및 희망방법</li> <li>•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li> </ul>	
정책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만족도</li> <li>• 노인서비스 관련 인지여부, 이용경험 및 이용 만족도, 이용(지속) 의향, 확대 필요성</li> <li>•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및 기관 인지 여부 및 필요도</li> <li>• 예비노인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li> </ul>	

# 3

## 분석 결과

- 제1절 일반적 특성
- 제2절 노후생활실태
- 제3절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
- 제4절 정책 욕구



## 제3장 분석 결과

### 제1절 일반적 특성

#### 1. 성별

〈표 3-1〉과 같이 남성은 301명(48.6%), 여성은 318명(51.4%)을 조사하였다.

〈표 3-1〉 성별

(단위 : 명, %)

구분	n	남성		여성		
		n	%	n	%	
계	619	301	48.6	318	51.4	
연령	60~64세	264	129	48.9	135	51.1
	65~74세	355	172	48.5	183	51.5
	중구	45	21	46.7	24	53.3
지역	동구	34	15	44.1	19	55.9
	미추홀구	79	37	46.8	42	53.2
	연수구	69	35	50.7	34	49.3
	남동구	85	41	48.2	44	51.8
	부평구	87	43	49.4	44	50.6
	계양구	68	32	47.1	36	52.9
	서구	88	43	48.9	45	51.1
	강화군	41	22	53.7	19	46.3
	옹진군	23	12	52.2	11	47.8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87	40.8	126
고졸		309	146	47.2	163	52.8
전문대졸 이상		97	68	70.1	29	29.9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195	47.6	215	52.4
	미혼·비혼	26	23	88.5	3	11.5
	그 외	183	83	45.4	100	54.6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202	44.5	252	55.5
	전세	79	46	58.2	33	41.8
	월세	86	53	61.6	33	38.4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99	57.2	74	42.8
	부부가구	265	121	45.7	144	54.3
	그 외	181	81	44.8	100	55.2

일반적 특성별로 보면 대부분 여성의 응답률이 높았으나 지역 중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학력 중 전문대졸 이상, 혼인 상태 중 미혼·비혼, 주택 점유형태 중 전세, 가구 유형에서 1인가구의 항목에서 남성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 2. 연령

〈표 3-2〉와 같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66.2세였고, 연령구간에 따라 60~64세 264명(42.6%), 65~69세 192명(31.0%), 70~74세 163명(26.3%)이 응답하였다.

〈표 3-2〉 연령

(단위 : 명, %, 세)

구분	n	60~64세		65~69세		70~74세		평균(세)	
		n	%	n	%	n	%		
계	619	264	42.6	192	31.0	163	26.3	66.2	
성별	남성	301	129	42.9	89	29.6	83	27.6	66.3
	여성	318	135	42.5	103	32.4	80	25.2	66.1
지역	중구	45	17	37.8	15	33.3	13	28.9	66.4
	동구	34	11	32.4	7	20.6	16	47.1	67.6
	미추홀구	79	33	41.8	27	34.2	19	24.1	66.2
	연수구	69	32	46.4	16	23.2	21	30.4	66.5
	남동구	85	38	44.7	28	32.9	19	22.4	65.9
	부평구	87	38	43.7	27	31.0	22	25.3	66.2
	계양구	68	33	48.5	20	29.4	15	22.1	65.5
	서구	88	38	43.2	32	36.4	18	20.5	65.8
	강화군	41	15	36.6	13	31.7	13	31.7	67.0
옹진군	23	9	39.1	7	30.4	7	30.4	66.6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45	21.1	74	34.7	94	44.1	68.2
	고졸	309	159	51.5	94	30.4	56	18.1	65.4
	전문대졸 이상	97	60	61.9	24	24.7	13	13.4	64.5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175	42.7	131	32.0	104	25.4	66.1
	미혼·비혼	26	18	69.2	6	23.1	2	7.7	64.4
	그 외	183	71	38.8	55	30.1	57	31.1	66.7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184	40.5	143	31.5	127	28.0	66.3
	전세	79	37	46.8	26	32.9	16	20.3	65.9
	월세	86	43	50.0	23	26.7	20	23.3	66.0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70	40.5	53	30.6	50	28.9	66.5
	부부가구	265	84	31.7	101	38.1	80	30.2	66.9
	기타가구	181	110	60.8	38	21.0	33	18.2	64.9

일반직 특성별로 보면 대부분의 응답에서 60~64세 집단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다른 연령집단의 응답률이 더 높은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5~79세 집단은 주거유형 중 단독주택의 항목에서, 70~74세 집단은 지역 중 동구, 최종학력 중 중졸 이하의 항목에서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3. 지역

〈표 3-3〉과 같이 응답자의 지역은 서구 88명(14.2%), 부평구 87명(14.1%), 남동구 85명(13.7%), 미추홀구 79명(12.8%), 연수구 69명(11.1%), 계양구 68명(11.0%), 중구 45명(7.3%), 강화군 41명(6.6%), 동구 34명(5.5%), 용진군 23명(3.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지역

(단위 : 명, %)

구분	n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n	%	n	%	n	%	n	%	n	%	
계	619	45	7.3	34	5.5	79	12.8	69	11.1	85	13.7	
성별	남성	301	21	7.0	15	5.0	37	12.3	35	11.6	41	13.6
	여성	318	24	7.5	19	6.0	42	13.2	34	10.7	44	13.8
연령	60~64세	264	17	6.4	11	4.2	33	12.5	32	12.1	38	14.4
	65~74세	355	28	7.9	23	6.5	46	13.0	37	10.4	47	13.2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6	2.8	12	5.6	29	13.6	13	6.1	35	16.4
	고졸	309	25	8.1	20	6.5	35	11.3	37	12.0	46	14.9
	전문대졸 이상	97	14	14.4	2	2.1	15	15.5	19	19.6	4	4.1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30	7.3	22	5.4	49	12.0	48	11.7	50	12.2
	미혼·비혼	26	2	7.7	0	0.0	6	23.1	2	7.7	7	26.9
	그 외	183	13	7.1	12	6.6	24	13.1	19	10.4	28	15.3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34	7.5	29	6.4	51	11.2	50	11.0	66	14.5
	전세	79	6	7.6	3	3.8	14	17.7	13	16.5	7	8.9
	월세	86	5	5.8	2	2.3	14	16.3	6	7.0	12	14.0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2	6.9	7	4.0	24	13.9	16	9.2	29	16.8
	부부가구	265	19	7.2	15	5.7	32	12.1	29	10.9	35	13.2
	기타가구	181	14	7.7	12	6.6	23	12.7	24	13.3	21	11.6

(표계속)

일반적 특성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구와 동구, 옹진군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없었다. 미추홀구는 주택 점유형태 중 전세 비율이, 연수구는 학력 중 전문대졸 이상 비율, 남동구는 혼인 상태 중 미혼·비혼, 최종학력 중 중졸 이하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부평구는 학력 중 고졸, 혼인상태 중 그 외, 가구 유형 중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응답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서구는 성별 중 여성, 연령 중 65~74세 집단, 혼인 상태 중 혼인 중, 주택 점유형태 중 자가, 가구 유형 중 기타가구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월세의 응답률은 미추홀구와 계양구 두 곳 모두 가장 높았고, 남성의 응답률은 부평구와 계양구가 둘 다 가장 높았다. 60~64세 집단의 응답률은 남동구, 부평구, 서구가 각각 14.4%로 가장 높았다.

〈표 3-3〉 지역(계속)

(단위 : 명, %)

구분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n	%	n	%	n	%	n	%	n	%
계		87	14.1	68	11.0	88	14.2	41	6.6	23	3.7
성별	남성	43	14.3	32	10.6	43	14.3	22	7.3	12	4.0
	여성	44	13.8	36	11.3	45	14.2	19	6.0	11	3.5
연령	60~64세	38	14.4	33	12.5	38	14.4	15	5.7	9	3.4
	65~74세	49	13.8	35	9.9	50	14.1	26	7.3	14	3.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0	14.1	30	14.1	32	15.0	18	8.5	8	3.8
	고졸	47	15.2	27	8.7	41	13.3	19	6.1	12	3.9
	전문대졸 이상	10	10.3	11	11.3	15	15.5	4	4.1	3	3.1
혼인 상태	혼인 중	54	13.2	44	10.7	68	16.6	28	6.8	17	4.1
	미혼·비혼	3	11.5	2	7.7	3	11.5	1	3.8	0	0.0
	그 외	30	16.4	22	12.0	17	9.3	12	6.6	6	3.3
주택 점유 형태	자가	64	14.1	43	9.5	69	15.2	31	6.8	17	3.7
	전세	10	12.7	11	13.9	8	10.1	3	3.8	4	5.1
	월세	13	15.1	14	16.3	11	12.8	7	8.1	2	2.3
가구 유형	1인가구	31	17.9	21	12.1	16	9.2	13	7.5	4	2.3
	부부가구	39	14.7	29	10.9	37	14.0	24	9.1	6	2.3
	기타가구	17	9.4	18	9.9	35	19.3	4	2.2	13	7.2

#### 4. 최종학력

〈표 3-4〉와 같이 최종학력은 고졸이 309명(49.9%)로 가장 높고, 중졸 155명(25.0%), 전문대졸 이상 97명(15.7%), 초졸 52명(8.4%), 무학 6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별로 보면 모든 문항에서 고졸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표 3-4〉 최종학력

(단위 : 명, %)

구분		n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n	%	n	%	n	%	n	%	n	%
계		619	6	1.0	52	8.4	155	25.0	309	49.9	97	15.7
성별	남성	301	3	1.0	17	5.6	67	22.3	146	48.5	68	22.6
	여성	318	3	0.9	35	11.0	88	27.7	163	51.3	29	9.1
연령	60~64세	264	1	0.4	8	3.0	36	13.6	159	60.2	60	22.7
	65~74세	355	5	1.4	44	12.4	119	33.5	150	42.3	37	10.4
지역	중구	45	0	0.0	0	0.0	6	13.3	25	55.6	14	31.1
	동구	34	1	2.9	1	2.9	10	29.4	20	58.8	2	5.9
	미추홀구	79	1	1.3	3	3.8	25	31.6	35	44.3	15	19.0
	연수구	69	0	0.0	2	2.9	11	15.9	37	53.6	19	27.5
	남동구	85	0	0.0	12	14.1	23	27.1	46	54.1	4	4.7
	부평구	87	1	1.1	8	9.2	21	24.1	47	54.0	10	11.5
	계양구	68	2	2.9	9	13.2	19	27.9	27	39.7	11	16.2
	서구	88	0	0.0	8	9.1	24	27.3	41	46.6	15	17.0
	강화군	41	1	2.4	7	17.1	10	24.4	19	46.3	4	9.8
옹진군	23	0	0.0	2	8.7	6	26.1	12	52.2	3	13.0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2	0.5	31	7.6	94	22.9	210	51.2	73	17.8
	미혼·비혼	26	1	3.8	2	7.7	5	19.2	16	61.5	2	7.7
	그 외	183	3	1.6	19	10.4	56	30.6	83	45.4	22	12.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4	0.9	31	6.8	111	24.4	234	51.5	74	16.3
	전세	79	1	1.3	8	10.1	20	25.3	38	48.1	12	15.2
	월세	86	1	1.2	13	15.1	24	27.9	37	43.0	11	12.8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4	2.3	18	10.4	44	25.4	85	49.1	22	12.7
	부부가구	265	1	0.4	21	7.9	70	26.4	136	51.3	37	14.0
	기타가구	181	1	0.6	13	7.2	41	22.7	88	48.6	38	21.0

### 5. 혼인 상태

〈표 3-5〉와 같이 혼인 상태는 혼인 중이 410명(66.2%)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사별 93명(15.0%), 이혼 80명(12.9%), 미혼·비혼 26명(4.2%), 별거 10명(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별로 보면 부분의 항목에서 혼인 중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월세와 1인가구의 비율은 사별이 가장 높았다.

〈표 3-5〉 혼인 상태

(단위 : 명, %)

구분	n	혼인 중		미혼·비혼		사별		이혼		별거		
		n	%	n	%	n	%	n	%	n	%	
계	619	410	66.2	26	4.2	93	15.0	80	12.9	10	1.6	
성별	남성	301	195	64.8	23	7.6	20	6.6	54	17.9	9	3.0
	여성	318	215	67.6	3	0.9	73	23.0	26	8.2	1	0.3
연령	60~64세	264	175	66.3	18	6.8	23	8.7	44	16.7	4	1.5
	65~74세	355	235	66.2	8	2.3	70	19.7	36	10.1	6	1.7
지역	중구	45	30	66.7	2	4.4	4	8.9	9	20.0	0	0.0
	동구	34	22	64.7	0	0.0	8	23.5	4	11.8	0	0.0
	미추홀구	79	49	62.0	6	7.6	14	17.7	7	8.9	3	3.8
	연수구	69	48	69.6	2	2.9	14	20.3	5	7.2	0	0.0
	남동구	85	50	58.8	7	8.2	10	11.8	15	17.6	3	3.5
	부평구	87	54	62.1	3	3.4	11	12.6	16	18.4	3	3.4
	계양구	68	44	64.7	2	2.9	13	19.1	9	13.2	0	0.0
	서구	88	68	77.3	3	3.4	9	10.2	7	8.0	1	1.1
	강화군	41	28	68.3	1	2.4	7	17.1	5	12.2	0	0.0
옹진군	23	17	73.9	0	0.0	3	13.0	3	13.0	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27	59.6	8	3.8	49	23.0	25	11.7	4	1.9
	고졸	309	210	68.0	16	5.2	38	12.3	39	12.6	6	1.9
	전문대졸 이상	97	73	75.3	2	2.1	6	6.2	16	16.5	0	0.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344	75.8	5	1.1	62	13.7	37	8.1	6	1.3
	전세	79	45	57.0	1	1.3	17	21.5	16	20.3	0	0.0
	월세	86	21	24.4	20	23.3	14	16.3	27	31.4	4	4.7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0	0.0	25	14.5	72	41.6	68	39.3	8	4.6
	부부가구	265	265	100.0	0	0.0	0	0.0	0	0.0	0	0.0
	기타가구	181	145	80.1	1	0.6	21	11.6	12	6.6	2	1.1

## 6. 주거 유형

〈표 3-6〉과 같이 주거 유형은 아파트가 251명(40.5%)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다가구 주택 등 212명(34.2%), 단독주택 138명(22.3%), 임대주택 18명(2.9%)의 순이었다.

〈표 3-6〉 주거유형

(단위 : 명, %)

구분	n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임대주택		
		n	%	n	%	n	%	n	%	
계	619	138	22.3	212	34.2	251	40.5	18	2.9	
성별	남성	301	68	22.6	113	37.5	109	36.2	11	3.7
	여성	318	70	22.0	99	31.1	142	44.7	7	2.2
연령	60~64세	264	42	15.9	96	36.4	117	44.3	9	3.4
	65~74세	355	96	27.0	116	32.7	134	37.7	9	2.5
지역	중구	45	15	33.3	10	22.2	20	44.4	0	0.0
	동구	34	10	29.4	3	8.8	20	58.8	1	2.9
	미추홀구	79	17	21.5	32	40.5	24	30.4	6	7.6
	연수구	69	7	10.1	12	17.4	47	68.1	3	4.3
	남동구	85	7	8.2	37	43.5	40	47.1	1	1.2
	부평구	87	13	14.9	49	56.3	24	27.6	1	1.1
	계양구	68	5	7.4	29	42.6	30	44.1	4	5.9
	서구	88	19	21.6	26	29.5	42	47.7	1	1.1
	강화군	41	23	56.1	14	34.1	3	7.3	1	2.4
	옹진군	23	22	95.7	0	0.0	1	4.3	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45	21.1	91	42.7	69	32.4	8	3.8
	고졸	309	70	22.7	99	32.0	135	43.7	5	1.6
	전문대졸 이상	97	23	23.7	22	22.7	47	48.5	5	5.2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101	24.6	112	27.3	195	47.6	2	0.5
	미혼·비혼	26	7	26.9	13	50.0	2	7.7	4	15.4
	그 외	183	30	16.4	87	47.5	54	29.5	12	6.6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99	21.8	125	27.5	230	50.7	0	0.0
	전세	79	23	29.1	39	49.4	15	19.0	2	2.5
	월세	86	16	18.6	48	55.8	6	7.0	16	18.6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27	15.6	90	52.0	42	24.3	14	8.1
	부부가구	265	71	26.8	75	28.3	117	44.2	2	0.8
	기타가구	181	40	22.1	47	26.0	92	50.8	2	1.1

일반적 특성별로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아파트의 응답률이 가장 높지만, 지역 중 강화군과 옹진군은 단독주택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성별 중 남성, 지역 중 미추홀구와 부평구, 최종학력 중 중졸 이하, 혼인 상태 중 미혼·비혼 및 그 외, 주택 점유형태 중 전세와 월세, 동거가구원 유형 중 1인 가구는 다가구주택 등의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 주택 점유형태

〈표 3-7〉과 같이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454명(73.3%)으로 가장 많았고, 월세 86명(13.9%), 전세 79명(12.8%)의 순이었다. 일반적 특성별로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세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혼인 상태 중 월세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3-7〉 주택 점유형태

(단위 : 명, %)

구분	n	자가		전세		월세		
		n	%	n	%	n	%	
계	619	454	73.3	79	12.8	86	13.9	
성별	남성	301	202	67.1	46	15.3	53	17.6
	여성	318	252	79.2	33	10.4	33	10.4
연령	60~64세	264	184	69.7	37	14.0	43	16.3
	65~74세	355	270	76.1	42	11.8	43	12.1
지역	중구	45	34	75.6	6	13.3	5	11.1
	동구	34	29	85.3	3	8.8	2	5.9
	미추홀구	79	51	64.6	14	17.7	14	17.7
	연수구	69	50	72.5	13	18.8	6	8.7
	남동구	85	66	77.6	7	8.2	12	14.1
	부평구	87	64	73.6	10	11.5	13	14.9
	계양구	68	43	63.2	11	16.2	14	20.6
	서구	88	69	78.4	8	9.1	11	12.5
	강화군	41	31	75.6	3	7.3	7	17.1
옹진군	23	17	73.9	4	17.4	2	8.7	
최종학력	중졸 이하	213	146	68.5	29	13.6	38	17.8
	고졸	309	234	75.7	38	12.3	37	12.0
	전문대졸 이상	97	74	76.3	12	12.4	11	11.3
혼인상태	혼인 중	410	344	83.9	45	11.0	21	5.1
	미혼·비혼	26	5	19.2	1	3.8	20	76.9
	그 외	183	105	57.4	33	18.0	45	24.6
가구유형	1인가구	173	83	48.0	29	16.8	61	35.3
	부부가구	265	222	83.8	30	11.3	13	4.9
	기타가구	181	149	82.3	20	11.0	12	6.6

## 제2절 노후생활실태

## 1. 건강

## 1) 주관적 건강상태

〈표 3-8〉과 같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3.29점으로 건강한 편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21.3%)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49.4%)이 더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에 거주할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지역 중 용진군(3.52점)이 가장 높고 평가하고, 강화군(2.98점)이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표 3-8〉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 점/5점)

구분	n	매우 나쁘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		평균	
		n	%	n	%	n	%	n	%	n	%		
계	619	23	3.7	109	17.6	181	29.2	278	44.9	28	4.5	3.29	
성별	남성	301	12	4.0	42	14.0	81	26.9	150	49.8	16	5.3	3.39
	여성	318	11	3.5	67	21.1	100	31.4	128	40.3	12	3.8	3.20
연령	60~64세	264	10	3.8	40	15.2	83	31.4	117	44.3	14	5.3	3.32
	65~74세	355	13	3.7	69	19.4	98	27.6	161	45.4	14	3.9	3.26
지역	중구	45	0	0.0	10	22.2	15	33.3	19	42.2	1	2.2	3.24
	동구	34	0	0.0	6	17.6	14	41.2	12	35.3	2	5.9	3.29
	미추홀구	79	3	3.8	18	22.8	31	39.2	27	34.2	0	0.0	3.04
	연수구	69	0	0.0	8	11.6	23	33.3	38	55.1	0	0.0	3.43
	남동구	85	6	7.1	11	12.9	23	27.1	40	47.1	5	5.9	3.32
	부평구	87	5	5.7	14	16.1	24	27.6	39	44.8	5	5.7	3.29
	계양구	68	4	5.9	13	19.1	14	20.6	28	41.2	9	13.2	3.37
	서구	88	3	3.4	12	13.6	23	26.1	45	51.1	5	5.7	3.42
	강화군	41	2	4.9	15	36.6	7	17.1	16	39.0	1	2.4	2.98
	용진군	23	0	0.0	2	8.7	7	30.4	14	60.9	0	0.0	3.52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2	5.6	54	25.4	58	27.2	77	36.2	12	5.6	3.11
	고졸	309	10	3.2	44	14.2	95	30.7	148	47.9	12	3.9	3.35
	전문대졸 이상	97	1	1.0	11	11.3	28	28.9	53	54.6	4	4.1	3.49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9	2.2	59	14.4	113	27.6	210	51.2	19	4.6	3.42
	미혼·비혼	26	8	30.8	4	15.4	5	19.2	7	26.9	2	7.7	2.65
	그 외	183	6	3.3	46	25.1	63	34.4	61	33.3	7	3.8	3.09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10	2.2	69	15.2	131	28.9	222	48.9	22	4.8	3.39
	전세	79	0	0.0	18	22.8	26	32.9	33	41.8	2	2.5	3.24
	월세	86	13	15.1	22	25.6	24	27.9	23	26.7	4	4.7	2.80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4	8.1	41	23.7	49	28.3	62	35.8	7	4.0	3.04
	부부가구	265	6	2.3	40	15.1	70	26.4	135	50.9	14	5.3	3.42
	기타가구	181	3	1.7	28	15.5	62	34.3	81	44.8	7	3.9	3.34

## 2) 미진료 경험 여부

지난 1년간 진료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을 알아본 결과, <표 3-9>과 같이 7.4%가 미진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남성일 때, 60~64세 일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에 거주할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미진료 경험 응답률이 높았다. 지역 중 미추홀구(11.4%)의 미진료 경험이 가장 높고, 서구(2.3%)가 가장 낮았다.

## 3) 미진료 이유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46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알아본 결과, <표 3-10>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8.7%). 그 뒤를 이어 증상이 가벼워서(32.6%), 거동이 불편해서와 가사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각 2.2%) 나타났다.

응답률이 높은 두 항목인 경제적 어려움과 증상이 가벼움의 응답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증상이 가벼움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높았다.

〈표 3-9〉 미진료 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있다		없다	
			n	%	n	%
계		619	46	7.4	573	92.6
성별	남성	301	25	8.3	276	91.7
	여성	318	21	6.6	297	93.4
연령	60~64세	264	21	8.0	243	92.0
	65~74세	355	25	7.0	330	93.0
지역	중구	45	2	4.4	43	95.6
	동구	34	3	8.8	31	91.2
	미추홀구	79	9	11.4	70	88.6
	연수구	69	2	2.9	67	97.1
	남동구	85	9	10.6	76	89.4
	부평구	87	9	10.3	78	89.7
	계양구	68	6	8.8	62	91.2
	서구	88	2	2.3	86	97.7
	강화군	41	3	7.3	38	92.7
	옹진군	23	1	4.3	22	95.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24	11.3	189	88.7
	고졸	309	18	5.8	291	94.2
	전문대졸 이상	97	4	4.1	93	95.9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17	4.1	393	95.9
	미혼·비혼	26	7	26.9	19	73.1
	그 외	183	22	12.0	161	88.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15	3.3	439	96.7
	전세	79	9	11.4	70	88.6
	월세	86	22	25.6	64	74.4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25	14.5	148	85.5
	부부가구	265	11	4.2	254	95.8
	기타가구	181	10	5.5	171	94.5

〈표 3-10〉 미진료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경제적 어려움		교통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증상이 가벼워서		가사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	
			n	%	n	%	n	%	n	%	n	%
계		46	27	58.7	1	2.2	2	4.3	15	32.6	1	2.2
성별	남성	25	14	56.0	1	4.0	1	4.0	9	36.0	0	0.0
	여성	21	13	61.9	0	0.0	1	4.8	6	28.6	1	4.8
연령	60~64세	21	13	61.9	0	0.0	1	4.8	6	28.6	1	4.8
	65~74세	25	14	56.0	1	4.0	1	4.0	9	36.0	0	0.0
지역	중구	2	2	100.0	0	0.0	0	0.0	0	0.0	0	0.0
	동구	3	3	100.0	0	0.0	0	0.0	0	0.0	0	0.0
	미추홀구	9	9	100.0	0	0.0	0	0.0	0	0.0	0	0.0
	연수구	2	2	100.0	0	0.0	0	0.0	0	0.0	0	0.0
	남동구	9	3	33.3	0	0.0	2	22.2	3	33.3	1	11.1
	부평구	9	4	44.4	0	0.0	0	0.0	5	55.6	0	0.0
	계양구	6	2	33.3	0	0.0	0	0.0	4	66.7	0	0.0
	서구	2	0	0.0	0	0.0	0	0.0	2	100.0	0	0.0
	강화군	3	2	66.7	0	0.0	0	0.0	1	33.3	0	0.0
	옹진군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4	13	54.2	0	0.0	1	4.2	9	37.5	1	4.2
	고졸	18	11	61.1	1	5.6	1	5.6	5	27.8	0	0.0
	전문대졸 이상	4	3	75.0	0	0.0	0	0.0	1	25.0	0	0.0
혼인 상태	혼인 중	17	9	52.9	1	5.9	1	5.9	5	29.4	1	5.9
	미혼·비혼	7	4	57.1	0	0.0	1	14.3	2	28.6	0	0.0
	그 외	22	14	63.6	0	0.0	0	0.0	8	36.4	0	0.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15	5	33.3	1	6.7	1	6.7	7	46.7	1	6.7
	전세	9	5	55.6	0	0.0	0	0.0	4	44.4	0	0.0
	월세	22	17	77.3	0	0.0	1	4.5	4	18.2	0	0.0
가구 유형	1인가구	25	15	60.0	0	0.0	1	4.0	9	36.0	0	0.0
	부부가구	11	5	45.5	0	0.0	0	0.0	5	45.5	1	9.1
	기타가구	10	7	70.0	1	10.0	1	10.0	1	10.0	0	0.0

#### 4) 만성질환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응답자는 <표 3-11>과 같이 457명(73.8%)으로, 고혈압(48.1%)을 앓고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고지혈증(38.4%), 당뇨병(22.9%), 골관절염(8.2%), 요통 및 좌골신경통(4.8%), 기타(4.2%), 뇌졸중(3.9%), 심장질환(3.6%), 갑상선 질환(3.4%), 골다공증(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응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고지혈증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당뇨병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골관절염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요통 및 좌골신경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기타 질환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남동구일 때, 중졸 이하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뇌졸중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심장질환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갑상선 질환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골다공증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계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표 3-11〉 만성질환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분	n	없다		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당뇨병		
		n	%	n	%	n	%	n	%	n	%	
계	619	162	26.2	298	48.1	24	3.9	238	38.4	142	22.9	
성별	남성	301	89	29.6	156	51.8	15	5.0	88	29.2	70	23.3
	여성	318	73	23.0	142	44.7	9	2.8	150	47.2	72	22.6
연령	60~64세	264	86	32.6	114	43.2	7	2.7	95	36.0	49	18.6
	65~74세	355	76	21.4	184	51.8	17	4.8	143	40.3	93	26.2
지역	중구	45	16	35.6	15	33.3	2	4.4	11	24.4	15	33.3
	동구	34	14	41.2	15	44.1	0	0.0	13	38.2	7	20.6
	미추홀구	79	16	20.3	37	46.8	3	3.8	38	48.1	18	22.8
	연수구	69	16	23.2	30	43.5	2	2.9	18	26.1	9	13.0
	남동구	85	19	22.4	43	50.6	4	4.7	36	42.4	24	28.2
	부평구	87	21	24.1	46	52.9	5	5.7	39	44.8	20	23.0
	계양구	68	20	29.4	28	41.2	0	0.0	24	35.3	15	22.1
	서구	88	22	25.0	52	59.1	5	5.7	35	39.8	21	23.9
	강화군	41	8	19.5	25	61.0	3	7.3	18	43.9	9	22.0
	옹진군	23	10	43.5	7	30.4	0	0.0	6	26.1	4	17.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32	15.0	119	55.9	12	5.6	105	49.3	66	31.0
	고졸	309	97	31.4	137	44.3	10	3.2	103	33.3	57	18.4
	전문대졸 이상	97	33	34.0	42	43.3	2	2.1	30	30.9	19	19.6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113	27.6	197	48.0	8	2.0	155	37.8	88	21.5
	미혼·비혼	26	5	19.2	13	50.0	5	19.2	10	38.5	6	23.1
	그 외	183	44	24.0	88	48.1	11	6.0	73	39.9	48	26.2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123	27.1	217	47.8	13	2.9	182	40.1	95	20.9
	전세	79	21	26.6	36	45.6	1	1.3	21	26.6	24	30.4
	월세	86	18	20.9	45	52.3	10	11.6	35	40.7	23	26.7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42	24.3	83	48.0	13	7.5	64	37.0	41	23.7
	부부가구	265	69	26.0	134	50.6	4	1.5	101	38.1	56	21.1
	기타가구	181	51	28.2	81	44.8	7	3.9	73	40.3	45	24.9

(표계속)

구분		갑상선 질환		골관절염		골다공증		요통, 좌골신경통		심장질환		기타	
		n	%	n	%	n	%	n	%	n	%	n	%
계		21	3.4	51	8.2	20	3.2	30	4.8	22	3.6	26	4.2
성별	남성	2	0.7	13	4.3	3	1.0	11	3.7	13	4.3	16	5.3
	여성	19	6.0	38	11.9	17	5.3	19	6.0	9	2.8	10	3.1
연령	60~64세	10	3.8	16	6.1	2	0.8	10	3.8	8	3.0	5	1.9
	65~74세	11	3.1	35	9.9	18	5.1	20	5.6	14	3.9	21	5.9
지역	중구	1	2.2	0	0.0	2	4.4	1	2.2	2	4.4	2	4.4
	동구	1	2.9	4	11.8	0	0.0	0	0.0	2	5.9	2	5.9
	미추홀구	5	6.3	7	8.9	3	3.8	4	5.1	1	1.3	1	1.3
	연수구	0	0.0	3	4.3	2	2.9	2	2.9	3	4.3	3	4.3
	남동구	4	4.7	12	14.1	3	3.5	5	5.9	0	0.0	8	9.4
	부평구	3	3.4	5	5.7	2	2.3	7	8.0	5	5.7	3	3.4
	계양구	1	1.5	8	11.8	4	5.9	3	4.4	2	2.9	3	4.4
	서구	4	4.5	8	9.1	2	2.3	4	4.5	4	4.5	3	3.4
	강화군	1	2.4	4	9.8	2	4.9	4	9.8	2	4.9	0	0.0
용진군	1	4.3	0	0.0	0	0.0	0	0.0	1	4.3	1	4.3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0	4.7	25	11.7	13	6.1	17	8.0	7	3.3	10	4.7
	고졸	6	1.9	22	7.1	6	1.9	9	2.9	12	3.9	14	4.5
	전문대졸 이상	5	5.2	4	4.1	1	1.0	4	4.1	3	3.1	2	2.1
혼인 상태	혼인 중	16	3.9	28	6.8	15	3.7	15	3.7	17	4.1	16	3.9
	미혼·비혼	1	3.8	4	15.4	1	3.8	2	7.7	0	0.0	1	3.8
	그 외	4	2.2	19	10.4	4	2.2	13	7.1	5	2.7	9	4.9
주택 점유 형태	자가	16	3.5	32	7.0	17	3.7	19	4.2	15	3.3	16	3.5
	전세	3	3.8	8	10.1	0	0.0	3	3.8	5	6.3	4	5.1
	월세	2	2.3	11	12.8	3	3.5	8	9.3	2	2.3	6	7.0
가구 유형	1인가구	4	2.3	19	11.0	5	2.9	12	6.9	4	2.3	9	5.2
	부부가구	13	4.9	15	5.7	9	3.4	9	3.4	12	4.5	13	4.9
	기타가구	4	2.2	17	9.4	6	3.3	9	5.0	6	3.3	4	2.2

### 5) 만성질환 시작 나이

〈표 3-12〉와 같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457명을 중 처음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한 나이는 평균 56.8세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만성질환을 앓은 평균 연령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처음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한 나이

(단위 : 명, %, 세)

구분	n	49세 이하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평균 (세)	
		n	%	n	%	n	%	n	%	n	%	n	%		
계	457	42	9.2	97	21.2	123	26.9	137	30.0	48	10.5	10	2.2	56.8	
성별	남성	212	18	8.5	48	22.6	58	27.4	63	29.7	22	10.4	3	1.4	56.7
	여성	245	24	9.8	49	20.0	65	26.5	74	30.2	26	10.6	7	2.9	57.0
연령	60~64세	178	21	11.8	57	32.0	64	36.0	36	20.2	0	0.0	0	0.0	54.1
	65~74세	279	21	7.5	40	14.3	59	21.1	101	36.2	48	17.2	10	3.6	58.6
지역	중구	29	2	6.9	3	10.3	10	34.5	9	31.0	3	10.3	2	6.9	58.3
	동구	20	2	10.0	5	25.0	5	25.0	8	40.0	0	0.0	0	0.0	55.4
	미추홀구	63	7	11.1	14	22.2	12	19.0	18	28.6	10	15.9	2	3.2	57.2
	연수구	53	5	9.4	12	22.6	14	26.4	17	32.1	5	9.4	0	0.0	57.1
	남동구	66	7	10.6	11	16.7	22	33.3	18	27.3	6	9.1	2	3.0	56.8
	부평구	66	3	4.5	15	22.7	20	30.3	22	33.3	6	9.1	0	0.0	57.0
	계양구	48	6	12.5	8	16.7	9	18.8	19	39.6	4	8.3	2	4.2	56.4
	서구	66	6	9.1	19	28.8	18	27.3	14	21.2	8	12.1	1	1.5	56.0
	강화군	33	2	6.1	8	24.2	9	27.3	9	27.3	5	15.2	0	0.0	57.1
옹진군	13	2	15.4	2	15.4	4	30.8	3	23.1	1	7.7	1	7.7	57.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81	17	9.4	26	14.4	44	24.3	59	32.6	29	16.0	6	3.3	57.9
	고졸	212	21	9.9	51	24.1	64	30.2	58	27.4	14	6.6	4	1.9	56.1
	전문대졸 이상	64	4	6.3	20	31.3	15	23.4	20	31.3	5	7.8	0	0.0	56.2
혼인 상태	혼인 중	297	32	10.8	63	21.2	73	24.6	94	31.6	29	9.8	6	2.0	56.7
	미혼·비혼	21	2	9.5	2	9.5	10	47.6	2	9.5	5	23.8	0	0.0	57.4
	그 외	139	8	5.8	32	23.0	40	28.8	41	29.5	14	10.1	4	2.9	57.1
주택 점유 형태	자가	331	25	7.6	67	20.2	90	27.2	108	32.6	31	9.4	10	3.0	57.3
	전세	58	9	15.5	13	22.4	11	19.0	18	31.0	7	12.1	0	0.0	55.0
	월세	68	8	11.8	17	25.0	22	32.4	11	16.2	10	14.7	0	0.0	56.1
가구 유형	1인가구	131	7	5.3	27	20.6	44	33.6	31	23.7	18	13.7	4	3.1	57.3
	부부가구	196	22	11.2	39	19.9	43	21.9	66	33.7	22	11.2	4	2.0	56.8
	기타가구	130	13	10.0	31	23.8	36	27.7	40	30.8	8	6.2	2	1.5	56.4

## 6) 만성질환 관리

〈표 3-13〉과 같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457명을 중 지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96.1%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3-13〉 지난 3개월 동안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그렇다		아니다	
			n	%	n	%
계		457	439	96.1	18	3.9
성별	남성	212	198	93.4	14	6.6
	여성	245	241	98.4	4	1.6
연령	60~64세	178	169	94.9	9	5.1
	65~74세	279	270	96.8	9	3.2
지역	중구	29	29	100.0	0	0.0
	동구	20	20	100.0	0	0.0
	미추홀구	63	63	100.0	0	0.0
	연수구	53	52	98.1	1	1.9
	남동구	66	63	95.5	3	4.5
	부평구	66	62	93.9	4	6.1
	계양구	48	44	91.7	4	8.3
	서구	66	65	98.5	1	1.5
	강화군	33	28	84.8	5	15.2
옹진군	13	13	100.0	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81	174	96.1	7	3.9
	고졸	212	204	96.2	8	3.8
	전문대졸 이상	64	61	95.3	3	4.7
혼인 상태	혼인 중	297	291	98.0	6	2.0
	미혼·비혼	21	19	90.5	2	9.5
	그 외	139	129	92.8	10	7.2
주택 점유 형태	자가	331	322	97.3	9	2.7
	전세	58	57	98.3	1	1.7
	월세	68	60	88.2	8	11.8
가구 유형	1인가구	131	119	90.8	12	9.2
	부부가구	196	193	98.5	3	1.5
	기타가구	130	127	97.7	3	2.3

## 7) 건강행태

건강행태를 살펴본 결과 <표 3-14>와 같이 부정적 건강행태인 흡연과 음주를 보면, 음주(40.4%)의 응답률이 흡연(19.1%)보다 더 높았다. 긍정적 건강행태 중에서는 정기적 건강검진(92.7%)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운동(83.2%), 구강관리(54.0%), 치매검진(8.2%)의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음주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에 거주할 때, 부부가구일 때 높았다.

구강관리를 한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계양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높았다.

정기적 건강검진을 한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높았다.

치매검진을 한다는 응답률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높았다.

## 8) 우울

15문항으로 구성된 우울척도를 활용하여 지난 1주일간의 우울증상을 조사하였다. 긍정분항은 역산하여 합계를 산출하였으며, 8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상으로 구분한 결과 <표 3-15>와 같이 17.54%가 우울증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우울증상의 응답률이 높았다.

〈표 3-14〉 건강행태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분	n	최근 1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흡연		음주		운동		구강관리		정기적 건강검진		치매검진		
		n	%	n	%	n	%	n	%	n	%	n	%	
계	619	118	19.1	250	40.4	515	83.2	334	54.0	574	92.7	51	8.2	
성별	남성	301	112	37.2	191	63.5	234	77.7	134	44.5	264	87.7	25	8.3
	여성	318	6	1.9	59	18.6	281	88.4	200	62.9	310	97.5	26	8.2
연령	60~64세	264	60	22.7	121	45.8	216	81.8	144	54.5	246	93.2	5	1.9
	65~74세	355	58	16.3	129	36.3	299	84.2	190	53.5	328	92.4	46	13.0
지역	중구	45	10	22.2	15	33.3	41	91.1	17	37.8	39	86.7	3	6.7
	동구	34	4	11.8	14	41.2	30	88.2	16	47.1	26	76.5	5	14.7
	미추홀구	79	22	27.8	40	50.6	64	81.0	39	49.4	76	96.2	10	12.7
	연수구	69	6	8.7	31	44.9	62	89.9	43	62.3	59	85.5	11	15.9
	남동구	85	23	27.1	34	40.0	65	76.5	46	54.1	79	92.9	6	7.1
	부평구	87	17	19.5	40	46.0	74	85.1	45	51.7	83	95.4	6	6.9
	계양구	68	14	20.6	18	26.5	56	82.4	44	64.7	65	95.6	0	0.0
	서구	88	14	15.9	34	38.6	81	92.0	54	61.4	88	100.0	6	6.8
	강화군	41	5	12.2	13	31.7	26	63.4	19	46.3	38	92.7	0	0.0
	옹진군	23	3	13.0	11	47.8	16	69.6	11	47.8	21	91.3	4	17.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37	17.4	69	32.4	172	80.8	117	54.9	202	94.8	24	11.3
	고졸	309	62	20.1	132	42.7	255	82.5	160	51.8	285	92.2	21	6.8
	전문대졸 이상	97	19	19.6	49	50.5	88	90.7	57	58.8	87	89.7	6	6.2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58	14.1	157	38.3	352	85.9	239	58.3	383	93.4	34	8.3
	미혼·비혼	26	15	57.7	12	46.2	19	73.1	7	26.9	22	84.6	1	3.8
	그 외	183	45	24.6	81	44.3	144	78.7	88	48.1	169	92.3	16	8.7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63	13.9	175	38.5	386	85.0	270	59.5	426	93.8	42	9.3
	전세	79	23	29.1	37	46.8	68	86.1	37	46.8	70	88.6	4	5.1
	월세	86	32	37.2	38	44.2	61	70.9	27	31.4	78	90.7	5	5.8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55	31.8	81	46.8	135	78.0	74	42.8	159	91.9	15	8.7
	부부가구	265	39	14.7	100	37.7	226	85.3	153	57.7	247	93.2	28	10.6
	기타가구	181	24	13.3	69	38.1	154	85.1	107	59.1	168	92.8	8	4.4

〈표 3-15〉 우울

(단위 : 명, %, 점)

구분	n	우울증상		증상 없음		평균(점) (15점 만점)	
		n	%	n	%		
계	619	108	17.4	511	82.6	3.3	
성별	남성	301	58	19.3	243	80.7	3.4
	여성	318	50	15.7	268	84.3	3.2
연령	60~64세	264	49	18.6	215	81.4	3.1
	65~74세	355	59	16.6	296	83.4	3.5
지역	중구	45	4	8.9	41	91.1	3.0
	동구	34	4	11.8	30	88.2	2.8
	미추홀구	79	25	31.6	54	68.4	4.8
	연수구	69	6	8.7	63	91.3	2.8
	남동구	85	16	18.8	69	81.2	3.4
	부평구	87	14	16.1	73	83.9	3.2
	계양구	68	14	20.6	54	79.4	3.3
	서구	88	17	19.3	71	80.7	3.1
	강화군	41	6	14.6	35	85.4	3.3
	옹진군	23	2	8.7	21	91.3	2.3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47	22.1	166	77.9	4.2
	고졸	309	49	15.9	260	84.1	3.0
	전문대졸 이상	97	12	12.4	85	87.6	2.4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41	10.0	369	90.0	2.4
	미혼·비혼	26	15	57.7	11	42.3	7.3
	그 외	183	52	28.4	131	71.6	4.8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51	11.2	403	88.8	2.6
	전세	79	13	16.5	66	83.5	3.7
	월세	86	44	51.2	42	48.8	6.9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58	33.5	115	66.5	5.3
	부부가구	265	26	9.8	239	90.2	2.4
	기타가구	181	24	13.3	157	86.7	2.8

## 2. 돌봄

### 1) 일상생활 도움 여부

〈표 3-16〉과 같이 일상생활 수행 시 가족 또는 가족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1.1%의 응답자는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8.9%는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 및 기타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표 3-16〉 일상생활 도움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그렇다		아니다	
			n	%	n	%
계		619	7	1.1	612	98.9
성별	남성	301	5	1.7	296	98.3
	여성	318	2	0.6	316	99.4
연령	60~64세	264	4	1.5	260	98.5
	65~74세	355	3	0.8	352	99.2
지역	중구	45	0	0.0	45	100.0
	동구	34	0	0.0	34	100.0
	미추홀구	79	5	6.3	74	93.7
	연수구	69	0	0.0	69	100.0
	남동구	85	2	2.4	83	97.6
	부평구	87	0	0.0	87	100.0
	계양구	68	0	0.0	68	100.0
	서구	88	0	0.0	88	100.0
	강화군	41	0	0.0	41	100.0
	옹진군	23	0	0.0	23	10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4	1.9	209	98.1
	고졸	309	3	1.0	306	99.0
	전문대졸 이상	97	0	0.0	97	100.0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4	1.0	406	99.0
	미혼·비혼	26	1	3.8	25	96.2
	그 외	183	2	1.1	181	98.9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5	1.1	449	98.9
	전세	79	0	0.0	79	100.0
	월세	86	2	2.3	84	97.7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3	1.7	170	98.3
	부부가구	265	1	0.4	264	99.6
	기타가구	181	3	1.7	178	98.3

## 2) 일상생활 도움 제공자

〈표 3-17〉과 같이 일상생활 수행 시 가족 또는 가족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7명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로 제공하는 사람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 및 외부서비스(장기 요양, 간병서비스 등)가 각 3명,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1명이었다.

〈표 3-17〉 일상생활 도움 제공자

(단위 : 명, %)

구분	n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외부서비스	
		n	%	n	%	n	%
계	7	3	42.9	1	14.3	3	42.9
성별	남성	5	60.0	0	0.0	2	40.0
	여성	2	0.0	1	50.0	1	50.0
연령	60~64세	4	50.0	0	0.0	2	50.0
	65~74세	3	33.3	1	33.3	1	33.3
지역	미추홀구	5	60.0	1	20.0	1	20.0
	남동구	2	0.0	0	0.0	2	10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4	25.0	1	25.0	2	50.0
	고졸	3	66.7	0	0.0	1	33.3
혼인 상태	혼인 중	4	75.0	0	0.0	1	25.0
	미혼·비혼	1	0.0	0	0.0	1	100.0
	그 외	2	0.0	1	50.0	1	50.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5	60.0	1	20.0	1	20.0
	월세	2	0.0	0	0.0	2	100.0
동거 가구원 유형	1인가구	3	0.0	1	33.3	2	66.7
	부부가구	1	100.0	0	0.0	0	0.0
	기타가구	3	66.7	0	0.0	1	33.3

## 3) 가족 돌봄 제공 여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약물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친인척이 있어서 돌봄을 제공하는지 살펴본 결과, 〈표 3-18〉과 같이 4.8%가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1인가구일 때 돌봄을 제공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표 3-18〉 가족 돌봄 제공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그렇다		아니다	
			n	%	n	%
계		619	30	4.8	589	95.2
성별	남성	301	12	4.0	289	96.0
	여성	318	18	5.7	300	94.3
연령	60~64세	264	17	6.4	247	93.6
	65~74세	355	13	3.7	342	96.3
지역	중구	45	3	6.7	42	93.3
	동구	34	0	0.0	34	100.0
	미추홀구	79	2	2.5	77	97.5
	연수구	69	1	1.4	68	98.6
	남동구	85	2	2.4	83	97.6
	부평구	87	3	3.4	84	96.6
	계양구	68	7	10.3	61	89.7
	서구	88	6	6.8	82	93.2
	강화군	41	5	12.2	36	87.8
	옹진군	23	1	4.3	22	95.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4	6.6	199	93.4
	고졸	309	10	3.2	299	96.8
	전문대졸 이상	97	6	6.2	91	93.8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25	6.1	385	93.9
	미혼·비혼	26	1	3.8	25	96.2
	그 외	183	4	2.2	179	97.8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23	5.1	431	94.9
	전세	79	3	3.8	76	96.2
	월세	86	4	4.7	82	95.3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2	1.2	171	98.8
	부부가구	265	16	6.0	249	94.0
	기타가구	181	12	6.6	169	93.4

#### 4) 가족 돌봄 대상자

가족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30명의 응답을 선별하여 누구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3-19〉와 같이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33.3%),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3.3%), 조카(3.3%)로 나타났다.

〈표 3-19〉 가족돌봄 대상자

(단위 : 명, %)

구분	n	배우자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부모(양가)		조카		
		n	%	n	%	n	%	n	%	
계	30	10	33.3	1	3.3	18	60.0	1	3.3	
성별	남성	12	2	16.7	0	0.0	9	75.0	1	8.3
	여성	18	8	44.4	1	5.6	9	50.0	0	0.0
연령	60~64세	17	4	23.5	0	0.0	13	76.5	0	0.0
	65~74세	13	6	46.2	1	7.7	5	38.5	1	7.7
지역	중구	3	1	33.3	0	0.0	2	66.7	0	0.0
	미추홀구	2	1	50.0	0	0.0	0	0.0	1	50.0
	연수구	1	1	100.0	0	0.0	0	0.0	0	0.0
	남동구	2	1	50.0	0	0.0	1	50.0	0	0.0
	부평구	3	2	66.7	0	0.0	1	33.3	0	0.0
	계양구	7	2	28.6	0	0.0	5	71.4	0	0.0
	서구	6	1	16.7	0	0.0	5	83.3	0	0.0
	강화군	5	1	20.0	0	0.0	4	80.0	0	0.0
옹진군	1	0	0.0	1	100.0	0	0.0	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4	8	57.1	1	7.1	5	35.7	0	0.0
	고졸	10	2	20.0	0	0.0	8	80.0	0	0.0
	전문대졸 이상	6	0	0.0	0	0.0	5	83.3	1	16.7
혼인 상태	혼인 중	25	10	40.0	0	0.0	14	56.0	1	4.0
	미혼·비혼	1	0	0.0	0	0.0	1	100.0	0	0.0
	그 외	4	0	0.0	1	25.0	3	75.0	0	0.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23	7	30.4	0	0.0	15	65.2	1	4.3
	전세	3	2	66.7	0	0.0	1	33.3	0	0.0
	월세	4	1	25.0	1	25.0	2	50.0	0	0.0
가구 유형	1인가구	2	0	0.0	0	0.0	2	100.0	0	0.0
	부부가구	16	7	43.8	0	0.0	8	50.0	1	6.3
	기타가구	12	3	25.0	1	8.3	8	66.7	0	0.0

### 5) 돌봄 부담

가족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30명의 응답을 선별하여 돌봄 부담을 살펴본 결과, 〈표 3-20〉과 같이 심리적 부담(3.63점), 경제적 부담 및 신체적 부담(각 2.90점), 시간적 부담(2.67점)의 순으로 부담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의 경우 여성일 때, 65~74세 일 때, 연수구 및 용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높은 부담감을 보였다. 시간적 부담의 경우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용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 및 기타가구일 때 높은 부담감을 보였다.

신체적 부담의 경우 여성일 때, 65~74세 일 때, 용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높은 부담감을 보였다. 심리적 부담의 경우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연수구 및 용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높은 부담감을 보였다.

〈표 3-20〉 돌봄 부담

(단위 : 명, 점/5점)

구분		n	경제적 부담	시간적 부담	신체적 부담	심리적 부담
계		30	2.90	2.67	2.90	3.63
성별	남성	12	2.50	2.17	2.17	3.00
	여성	18	3.17	3.00	3.39	4.06
연령	60~64세	17	2.82	2.53	2.71	3.76
	65~74세	13	3.00	2.85	3.15	3.46
지역	중구	3	3.67	4.00	4.00	4.33
	미추홀구	2	3.00	2.50	3.00	2.50
	연수구	1	5.00	2.00	2.00	5.00
	남동구	2	3.00	2.50	2.50	4.00
	부평구	3	3.33	2.33	2.67	2.67
	계양구	7	2.29	2.14	2.43	4.00
	서구	6	2.33	2.67	2.33	3.17
	강화군	5	2.80	2.60	3.60	3.6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4	3.43	3.14	3.57	3.93
	고졸	10	2.80	2.50	2.80	3.80
	전문대졸 이상	6	1.83	1.83	1.50	2.67
혼인 상태	혼인 중	25	2.76	2.68	2.96	3.52
	미혼·비혼	1	4.00	4.00	4.00	4.00
	그 외	4	3.50	2.25	2.25	4.2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23	2.65	3.00	2.91	3.39
	전세	3	3.67	2.50	2.33	4.00
	월세	4	3.75	2.55	3.25	4.75
가구 유형	1인가구	2	3.00	1.50	1.50	4.50
	부부가구	16	2.63	2.75	2.88	3.63
	기타가구	12	3.25	2.75	3.17	3.50

### 6) 돌봄 지원 서비스 및 자원

가족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30명의 응답을 선별하여 돌보는 일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3-21>과 같이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3.3%였다.

받고 있는 경우 서비스나 자원은 비동거가구원 및 친인척의 현금 지원(33.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민간보험(30.0%), 장기요양서비스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23.3%), 동거가구원의 현금 지원(13.3%), 동거가구원의 수발 지원(10.0%), 비동거 가구원 및 친인척의 수발 지원(10.0%), 국가/지자체 수당(3.3%), 복지단체(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1> 돌봄 지원 서비스 및 자원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분	n	동거 가구원의 현금 지원		동거 가구원의 수발 지원		비동거 가구원 및 친인척의 현금 지원		비동거 가구원 및 친인척의 수발 지원		
		n	%	n	%	n	%	n	%	
계	30	4	13.3	3	10.0	10	33.3	3	10.0	
성별	남성	12	1	8.3	1	8.3	5	41.7	0	0.0
	여성	18	3	16.7	2	11.1	5	27.8	3	16.7
연령	60~64세	17	2	11.8	1	5.9	6	35.3	2	11.8
	65~74세	13	2	15.4	2	15.4	4	30.8	1	7.7
지역	중구	3	0	0.0	0	0.0	0	0.0	1	33.3
	미추홀구	2	0	0.0	1	50.0	1	50.0	0	0.0
	연수구	1	1	100.0	0	0.0	0	0.0	0	0.0
	남동구	2	1	50.0	0	0.0	0	0.0	1	50.0
	부평구	3	2	66.7	1	33.3	1	33.3	1	33.3
	계양구	7	0	0.0	1	14.3	4	57.1	0	0.0
	서구	6	0	0.0	0	0.0	4	66.7	0	0.0
	강화군	5	0	0.0	0	0.0	0	0.0	0	0.0
	옹진군	1	0	0.0	0	0.0	0	0.0	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4	4	28.6	1	7.1	3	21.4	3	21.4
	고졸	10	0	0.0	2	20.0	3	30.0	0	0.0
	전문대졸 이상	6	0	0.0	0	0.0	4	66.7	0	0.0
혼인 상태	혼인 중	25	4	16.0	3	12.0	8	32.0	3	12.0
	미혼·비혼	1	0	0.0	0	0.0	0	0.0	0	0.0
	그 외	4	0	0.0	0	0.0	2	50.0	0	0.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23	2	8.7	2	8.7	8	34.8	2	8.7
	전세	3	2	66.7	0	0.0	0	0.0	1	33.3
	월세	4	0	0.0	1	25.0	2	50.0	0	0.0
가구 유형	1인가구	2	0	0.0	0	0.0	1	50.0	0	0.0
	부부가구	16	2	12.5	1	6.3	5	31.3	2	12.5
	기타가구	12	2	16.7	2	16.7	4	33.3	1	8.3

(표계속)

구분		장애인수당 등 국가/지자체 수당		장기요양서비 스, 맞춤형 돌봄서비스		복지관 등 복지단체		간병보험 등 민간보험		받지 않음	
		n	%	n	%	n	%	n	%	n	%
계		1	3.3	7	23.3	1	3.3	9	30.0	10	33.3
성별	남성	0	0.0	4	33.3	1	8.3	3	25.0	5	41.7
	여성	1	5.6	3	16.7	0	0.0	6	33.3	5	27.8
연령	60~64세	1	5.9	2	11.8	0	0.0	6	35.3	6	35.3
	65~74세	0	0.0	5	38.5	1	7.7	3	23.1	4	30.8
지역	중구	0	0.0	1	33.3	0	0.0	0	0.0	2	66.7
	미추홀구	0	0.0	2	100.0	1	50.0	0	0.0	0	0.0
	연수구	0	0.0	1	100.0	0	0.0	0	0.0	0	0.0
	남동구	0	0.0	0	0.0	0	0.0	1	50.0	0	0.0
	부평구	0	0.0	0	0.0	0	0.0	1	33.3	0	0.0
	계양구	1	14.3	0	0.0	0	0.0	4	57.1	2	28.6
	서구	0	0.0	1	16.7	0	0.0	3	50.0	2	33.3
	강화군	0	0.0	2	40.0	0	0.0	0	0.0	3	6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	0.0	4	28.6	0	0.0	3	21.4	4	28.6
	고졸	1	10.0	2	20.0	0	0.0	3	30.0	4	40.0
	전문대졸 이상	0	0.0	1	16.7	1	16.7	3	50.0	2	33.3
혼인 상태	혼인 중	1	4.0	6	24.0	1	4.0	7	28.0	8	32.0
	미혼·비혼	0	0.0	0	0.0	0	0.0	0	0.0	1	100.0
	그 외	0	0.0	1	25.0	0	0.0	2	50.0	1	25.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0	0.0	5	21.7	1	4.3	8	34.8	8	34.8
	전세	0	0.0	1	33.3	0	0.0	0	0.0	1	33.3
	월세	1	25.0	1	25.0	0	0.0	1	25.0	1	25.0
가구 유형	1인가구	0	0.0	1	50.0	0	0.0	1	50.0	0	0.0
	부부가구	1	6.3	3	18.8	1	6.3	4	25.0	7	43.8
	기타가구	0	0.0	3	25.0	0	0.0	4	33.3	3	25.0

가족 내 자원을 보면, 우선 비동거 가구원 및 친인척의 현금 지원은 남성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 일 때, 1인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동거 가구원의 현금 지원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동거 가구원의 수발 지원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월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비동거 가구원 및 친인척의 수발 지원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가족 외 자원을 보면, 우선 민간보험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계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1인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장기요양서비스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미추홀구 및 연수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지자체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률은 60~64세의 계양구에 월세로 거주 중이며 부부가구인 고졸 여성일 때 높았다.

복지단체로부터 받고 있다는 응답률은 65~74세의 미추홀구에 자가로 거주중이며 부부가구인 전문대졸 이상 남성이었다.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3. 재무

#### 1) 가구 월평균 소득

〈표 3-22〉와 같이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308.6만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100만원~200만원 미만(24.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200만원~300만원 미만(22.1%), 500만원 이상(20.5%), 300만원~400만원 미만(14.5%), 400만원~500만원 미만(10.0%) 이었고, 100만원 미만이 8.2%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가구 월평균 소득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에 거주할 때, 기타 가구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 3-22〉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 명, %, 만원)

구분	n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평균	
		n	%	n	%	n	%	n	%	n	%	n	%		
		계	619	51	8.2	152	24.6	137	22.1	90	14.5	62	10.0		127
성별	남성	301	30	10.0	65	21.6	70	23.3	38	12.6	33	11.0	65	21.6	312.6
	여성	318	21	6.6	87	27.4	67	21.1	52	16.4	29	9.1	62	19.5	304.7
연령	60~64세	264	17	6.4	40	15.2	45	17.0	45	17.0	40	15.2	77	29.2	372.8
	65~74세	355	34	9.6	112	31.5	92	25.9	45	12.7	22	6.2	50	14.1	260.8
지역	중구	45	3	6.7	9	20.0	19	42.2	7	15.6	2	4.4	5	11.1	266.8
	동구	34	2	5.9	13	38.2	9	26.5	3	8.8	2	5.9	5	14.7	263.8
	미추홀구	79	7	8.9	30	38.0	21	26.6	9	11.4	5	6.3	7	8.9	243.2
	연수구	69	4	5.8	14	20.3	16	23.2	13	18.8	6	8.7	16	23.2	316.7
	남동구	85	7	8.2	19	22.4	21	24.7	12	14.1	9	10.6	17	20.0	325.6
	부평구	87	10	11.5	24	27.6	11	12.6	14	16.1	14	16.1	14	16.1	292.2
	계양구	68	7	10.3	12	17.6	10	14.7	15	22.1	7	10.3	17	25.0	323.5
	서구	88	6	6.8	12	13.6	13	14.8	10	11.4	11	12.5	36	40.9	424.6
	강화군	41	3	7.3	9	22.0	13	31.7	4	9.8	5	12.2	7	17.1	269.1
	옹진군	23	2	8.7	10	43.5	4	17.4	3	13.0	1	4.3	3	13.0	237.6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27	12.7	72	33.8	45	21.1	32	15.0	14	6.6	23	10.8	243.9
	고졸	309	20	6.5	67	21.7	81	26.2	37	12.0	37	12.0	67	21.7	323.8
	전문대졸 이상	97	4	4.1	13	13.4	11	11.3	21	21.6	11	11.3	37	38.1	402.0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6	1.5	63	15.4	96	23.4	76	18.5	56	13.7	113	27.6	369.1
	미혼·비혼	26	12	46.2	8	30.8	2	7.7	3	11.5	1	3.8	0	0.0	139.6
	그 외	183	33	18.0	81	44.3	39	21.3	11	6.0	5	2.7	14	7.7	196.8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18	4.0	96	21.1	109	24.0	68	15.0	50	11.0	113	24.9	340.7
	전세	79	5	6.3	23	29.1	17	21.5	17	21.5	7	8.9	10	12.7	273.7
	월세	86	28	32.6	33	38.4	11	12.8	5	5.8	5	5.8	4	4.7	171.0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45	26.0	79	45.7	32	18.5	7	4.0	2	1.2	8	4.6	160.9
	부부가구	265	6	2.3	52	19.6	76	28.7	54	20.4	35	13.2	42	15.8	317.2
	기타가구	181	0	0.0	21	11.6	29	16.0	29	16.0	25	13.8	77	42.5	437.1

## 2) 가구 주 소득원

〈표 3-23〉가 같이 가구의 주 소득원을 살펴본 결과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응답률이 54.4%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외 공적이전 소득(21.2%), 본인 및 배우자의 사업소득(15.5%), 자녀의 근로소득(4.0%), 자산소득(2.7%), 기초연금(1.1%), 사적 이전소득(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 및 배우자의 사업소득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자녀의 근로소득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높았다. 재산소득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일 때, 중졸 이하일 때, 그 외일 때, 자가일 때, 1인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사적 이전소득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1인가구일 때 높았다.

기초연금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기초연금 외 공적이전소득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응답률이 높았다.

## 3) 가구 자산

〈표 3-24〉와 같이 최소 가구 자산은 50만원, 최대 40억, 평균 3억 2515만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보면 5억원 이상이 21.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1억원 미만(22.0%), 2억원~3억원 미만(17.1%), 3억원~4억원 미만(16.6%), 1억원~2억원 미만(15.3%), 4억원~5억원 미만(7.4%)의 순이었다.

1억원 미만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중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높았다. 1억원~2억원 미만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옹진군일 때, 중졸 이하 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높았다.

〈표 3-23〉 가구 주 소득원

(단위 : 명, %)

구분	n	본인 및 배우자의 사업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자녀의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기초연금		그 외 공적이전 소득		
		n	%	n	%	n	%	n	%	n	%	n	%	n	%	
계	619	96	15.5	337	54.4	25	4.0	17	2.7	6	1.0	7	1.1	131	21.2	
성별	남성	301	49	16.3	161	53.5	8	2.7	10	3.3	1	0.3	5	1.7	67	22.3
	여성	318	47	14.8	176	55.3	17	5.3	7	2.2	5	1.6	2	0.6	64	20.1
연령	60~64세	264	44	16.7	172	65.2	5	1.9	3	1.1	2	0.8	1	0.4	37	14.0
	65~74세	355	52	14.6	165	46.5	20	5.6	14	3.9	4	1.1	6	1.7	94	26.5
지역	중구	45	4	8.9	26	57.8	2	4.4	4	8.9	0	0.0	0	0.0	9	20.0
	동구	34	6	17.6	17	50.0	1	2.9	1	2.9	1	2.9	0	0.0	8	23.5
	미추홀구	79	8	10.1	39	49.4	1	1.3	4	5.1	1	1.3	0	0.0	26	32.9
	연수구	69	17	24.6	34	49.3	3	4.3	0	0.0	0	0.0	0	0.0	15	21.7
	남동구	85	13	15.3	52	61.2	2	2.4	2	2.4	0	0.0	3	3.5	13	15.3
	부평구	87	4	4.6	52	59.8	7	8.0	2	2.3	2	2.3	1	1.1	19	21.8
	계양구	68	12	17.6	39	57.4	3	4.4	1	1.5	0	0.0	2	2.9	11	16.2
	서구	88	18	20.5	44	50.0	6	6.8	2	2.3	0	0.0	1	1.1	17	19.3
	강화군	41	13	31.7	16	39.0	0	0.0	0	0.0	2	4.9	0	0.0	10	24.4
	옹진군	23	1	4.3	18	78.3	0	0.0	1	4.3	0	0.0	0	0.0	3	13.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29	13.6	99	46.5	17	8.0	3	1.4	3	1.4	5	2.3	57	26.8
	고졸	309	51	16.5	182	58.9	8	2.6	8	2.6	3	1.0	1	0.3	56	18.1
	전문대졸 이상	97	16	16.5	56	57.7	0	0.0	6	6.2	0	0.0	1	1.0	18	18.6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85	20.7	244	59.5	15	3.7	15	3.7	2	0.5	0	0.0	49	12.0
	미혼·비혼	26	0	0.0	7	26.9	0	0.0	0	0.0	0	0.0	2	7.7	17	65.4
	그 외	183	11	6.0	86	47.0	10	5.5	2	1.1	4	2.2	5	2.7	65	35.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83	18.3	257	56.6	18	4.0	16	3.5	6	1.3	2	0.4	72	15.9
	전세	79	12	15.2	45	57.0	5	6.3	0	0.0	0	0.0	0	0.0	17	21.5
	월세	86	1	1.2	35	40.7	2	2.3	1	1.2	0	0.0	5	5.8	42	48.8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0	5.8	73	42.2	0	0.0	2	1.2	3	1.7	7	4.0	78	45.1
	부부가구	265	60	22.6	148	55.8	0	0.0	11	4.2	2	0.8	0	0.0	44	16.6
	기타가구	181	26	14.4	116	64.1	25	13.8	4	2.2	1	0.6	0	0.0	9	5.0

〈표 3-24〉 현재 가구 자산

(단위 : 명, %, 만원)

구분	n	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억원~3억원 미만		3억원~4억원 미만		4억원~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최소	최대	평균	
		n	%	n	%	n	%	n	%	n	%	n	%				
계	619	136	22.0	95	15.3	106	17.1	103	16.6	46	7.4	133	21.5	50	400000	32515	
성별	남성	301	83	27.6	44	14.6	50	16.6	42	14.0	13	4.3	69	22.9	50	400000	33329
	여성	318	53	16.7	51	16.0	56	17.6	61	19.2	33	10.4	64	20.1	50	150000	31744
연령	60~64세	264	63	23.9	34	12.9	41	15.5	41	15.5	23	8.7	62	23.5	100	170000	32773
	65~74세	355	73	20.6	61	17.2	65	18.3	62	17.5	23	6.5	71	20.0	50	400000	32323
지역	중구	45	10	22.2	4	8.9	4	8.9	12	26.7	6	13.3	9	20.0	50	150000	33339
	동구	34	4	11.8	5	14.7	7	20.6	10	29.4	1	2.9	7	20.6	500	220000	38044
	미추홀구	79	22	27.8	7	8.9	20	25.3	12	15.2	4	5.1	14	17.7	100	100000	28567
	연수구	69	8	11.6	8	11.6	14	20.3	22	31.9	4	5.8	13	18.8	50	170000	36059
	남동구	85	20	23.5	16	18.8	18	21.2	11	12.9	7	8.2	13	15.3	200	400000	29662
	부평구	87	22	25.3	15	17.2	18	20.7	9	10.3	9	10.3	14	16.1	100	80000	25474
	계양구	68	15	22.1	17	25.0	9	13.2	10	14.7	5	7.4	12	17.6	100	400000	32021
	서구	88	15	17.0	8	9.1	4	4.5	7	8.0	9	10.2	45	51.1	100	150000	49777
	강화군	41	15	36.6	8	19.5	8	19.5	6	14.6	0	0.0	4	9.8	200	100000	19559
	옹진군	23	5	21.7	7	30.4	4	17.4	4	17.4	1	4.3	2	8.7	800	100000	2133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63	29.6	49	23.0	37	17.4	27	12.7	11	5.2	26	12.2	100	170000	23285
	고졸	309	59	19.1	38	12.3	61	19.7	61	19.7	22	7.1	68	22.0	50	400000	33361
	전문대졸 이상	97	14	14.4	8	8.2	8	8.2	15	15.5	13	13.4	39	40.2	50	400000	50087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39	9.5	57	13.9	77	18.8	79	19.3	41	10.0	117	28.5	100	400000	39339
	미혼·비혼	26	20	76.9	3	11.5	2	7.7	0	0.0	0	0.0	1	3.8	50	50000	6098
	그 외	183	77	42.1	35	19.1	27	14.8	24	13.1	5	2.7	15	8.2	50	400000	20978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20	4.4	68	15.0	97	21.4	97	21.4	42	9.3	130	28.6	2000	400000	40488
	전세	79	37	46.8	25	31.6	7	8.9	6	7.6	2	2.5	2	2.5	2000	75000	13279
	월세	86	79	91.9	2	2.3	2	2.3	0	0.0	2	2.3	1	1.2	50	400000	8095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90	52.0	31	17.9	23	13.3	17	9.8	2	1.2	10	5.8	50	400000	16611
	부부가구	265	27	10.2	41	15.5	58	21.9	52	19.6	22	8.3	65	24.5	100	400000	36995
	기타가구	181	19	10.5	23	12.7	25	13.8	34	18.8	22	12.2	58	32.0	500	170000	41156

2억원~3억원 미만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미추홀구일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높고, 3억원~4억원 미만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높았다. 4억원~5억원 미만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높았다. 5억원 이상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높았다.

## 4) 주된 자산 유형

〈표 3-25〉와 같이 자산은 주로 부동산 자산(93.4%)이었으며, 금융자산(6.5%)과 기타 자산(0.2%)의 순으로 나 타났다. 부동산 자산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 및 용진군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높았다. 금융자산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높았다.

〈표 3-25〉 주된 자산 유형

(단위 : 명, %)

구분	n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n	%	n	%	n	%	
계	619	578	93.4	40	6.5	1	0.2	
성별	남성	301	273	90.7	27	9.0	1	0.3
	여성	318	305	95.9	13	4.1	0	0.0
연령	60~64세	264	246	93.2	18	6.8	0	0.0
	65~74세	355	332	93.5	22	6.2	1	0.3
지역	중구	45	42	93.3	3	6.7	0	0.0
	동구	34	34	100.0	0	0.0	0	0.0
	미추홀구	79	73	92.4	6	7.6	0	0.0
	연수구	69	67	97.1	2	2.9	0	0.0
	남동구	85	79	92.9	6	7.1	0	0.0
	부평구	87	80	92.0	7	8.0	0	0.0
	계양구	68	64	94.1	4	5.9	0	0.0
	서구	88	80	90.9	7	8.0	1	1.1
	강화군	41	36	87.8	5	12.2	0	0.0
용진군	23	23	100.0	0	0.0	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97	92.5	16	7.5	0	0.0
	고졸	309	288	93.2	21	6.8	0	0.0
	전문대졸 이상	97	93	95.9	3	3.1	1	1.0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398	97.1	12	2.9	0	0.0
	미혼·비혼	26	12	46.2	14	53.8	0	0.0
	그 외	183	168	91.8	14	7.7	1	0.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449	98.9	5	1.1	0	0.0
	전세	79	73	92.4	6	7.6	0	0.0
	월세	86	56	65.1	29	33.7	1	1.2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45	83.8	27	15.6	1	0.6
	부부가구	265	255	96.2	10	3.8	0	0.0
	기타가구	181	178	98.3	3	1.7	0	0.0

### 5) 부채 유무

〈표 3-26〉과 같이 응답자의 80%는 현재 부채가 없었고 20%는 현재 부채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부채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표 3-26〉 현재 부채 유무

(단위 : 명, %)

구분	n	없다		있다		
		n	%	n	%	
계	619	495	80.0	124	20.0	
성별	남성	301	246	81.7	55	18.3
	여성	318	249	78.3	69	21.7
연령	60~64세	264	205	77.7	59	22.3
	65~74세	355	290	81.7	65	18.3
지역	중구	45	37	82.2	8	17.8
	동구	34	29	85.3	5	14.7
	미추홀구	79	64	81.0	15	19.0
	연수구	69	50	72.5	19	27.5
	남동구	85	68	80.0	17	20.0
	부평구	87	73	83.9	14	16.1
	계양구	68	63	92.6	5	7.4
	서구	88	55	62.5	33	37.5
	강화군	41	37	90.2	4	9.8
옹진군	23	19	82.6	4	17.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81	85.0	32	15.0
	고졸	309	246	79.6	63	20.4
	전문대졸 이상	97	68	70.1	29	29.9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316	77.1	94	22.9
	미혼·비혼	26	24	92.3	2	7.7
	그 외	183	155	84.7	28	15.3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352	77.5	102	22.5
	전세	79	66	83.5	13	16.5
	월세	86	77	89.5	9	10.5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52	87.9	21	12.1
	부부가구	265	219	82.6	46	17.4
	기타가구	181	124	68.5	57	31.5

## 6) 부채 규모

〈표 3-27〉과 같이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 124명을 대상으로 부채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최소 금액은 300만원, 최대 7억, 평균 9621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부채의 규모가 컸다.

〈표 3-27〉 부채 규모

(단위 : 명, %, 만원)

구분	n	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억원~3억원 미만		3억원~4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최소	최대	평균	
		n	%	n	%	n	%	n	%	n	%				
계	124	78	62.9	30	24.2	9	7.3	3	2.4	4	3.2	300	70000	9621.0	
성별	남성	55	32	58.2	14	25.5	6	10.9	1	1.8	2	3.6	300	50000	9627
	여성	69	46	66.7	16	23.2	3	4.3	2	2.9	2	2.9	500	70000	9616
연령	60~64세	59	38	64.4	13	22.0	5	8.5	1	1.7	2	3.4	300	70000	9500
	65~74세	65	40	61.5	17	26.2	4	6.2	2	3.1	2	3.1	500	60000	9731
지역	중구	8	3	37.5	4	50.0	1	12.5	0	0.0	0	0.0	5000	20000	10000
	동구	5	3	60.0	0	0.0	2	40.0	0	0.0	0	0.0	5000	20000	11400
	미추홀구	15	13	86.7	1	6.7	0	0.0	0	0.0	1	6.7	1000	70000	9200
	연수구	19	7	36.8	7	36.8	2	10.5	1	5.3	2	10.5	3000	50000	15368
	남동구	17	12	70.6	4	23.5	0	0.0	1	5.9	0	0.0	500	30000	7471
	부평구	14	13	92.9	1	7.1	0	0.0	0	0.0	0	0.0	300	10000	5036
	계양구	5	3	60.0	2	40.0	0	0.0	0	0.0	0	0.0	1000	10000	5200
	서구	33	18	54.5	10	30.3	3	9.1	1	3.0	1	3.0	500	60000	10697
	강화군	4	4	100.0	0	0.0	0	0.0	0	0.0	0	0.0	500	6000	3125
옹진군	4	2	50.0	1	25.0	1	25.0	0	0.0	0	0.0	2000	20000	925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2	22	68.8	6	18.8	2	6.3	1	3.1	1	3.1	1000	70000	9953
	고졸	63	43	68.3	14	22.2	5	7.9	0	0.0	1	1.6	300	50000	7968
	전문대졸 이상	29	13	44.8	10	34.5	2	6.9	2	6.9	2	6.9	500	60000	12845
혼인 상태	혼인 중	94	59	62.8	22	23.4	8	8.5	3	3.2	2	2.1	500	60000	9343
	미혼·비혼	2	2	100.0	0	0.0	0	0.0	0	0.0	0	0.0	300	4000	2150
	그 외	28	17	60.7	8	28.6	1	3.6	0	0.0	2	7.1	500	70000	11089
주택 점유 형태	자가	102	60	58.8	27	26.5	9	8.8	2	2.0	4	3.9	500	70000	10482
	전세	13	10	76.9	2	15.4	0	0.0	1	7.7	0	0.0	1000	35000	6885
	월세	9	8	88.9	1	11.1	0	0.0	0	0.0	0	0.0	300	10000	3811
가구 유형	1인가구	21	15	71.4	5	23.8	0	0.0	0	0.0	1	4.8	300	50000	7419
	부부가구	46	29	63.0	12	26.1	2	4.3	1	2.2	2	4.3	500	60000	9554
	기타가구	57	34	59.6	13	22.8	7	12.3	2	3.5	1	1.8	1000	70000	10486

7)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 금액

〈표 3-28〉과 같이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 금액을 살펴본 결과 평균 211.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100만원~200만원 미만(35.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200만원~300만원 미만(26.3%), 300만원~400만원 미만(14.2%), 100만원 미만(12.9%), 400만원~500만원 미만(7.9%), 500만원 이상(3.6%)의 순이었다.

〈표 3-28〉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 금액

(단위 : 명, %, 만원)

구분	n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평균	
		n	%	n	%	n	%	n	%	n	%	n	%		
계	619	80	12.9	217	35.1	163	26.3	88	14.2	49	7.9	22	3.6	211.0	
성별	남성	301	41	13.6	105	34.9	79	26.2	40	13.3	22	7.3	14	4.7	210.6
	여성	318	39	12.3	112	35.2	84	26.4	48	15.1	27	8.5	8	2.5	211.4
연령	60~64세	264	29	11.0	62	23.5	69	26.1	55	20.8	35	13.3	14	5.3	247.8
	65~74세	355	51	14.4	155	43.7	94	26.5	33	9.3	14	3.9	8	2.3	183.6
지역	중구	45	6	13.3	15	33.3	16	35.6	5	11.1	2	4.4	1	2.2	196.9
	동구	34	2	5.9	17	50.0	8	23.5	4	11.8	2	5.9	1	2.9	195.6
	미추홀구	79	12	15.2	41	51.9	13	16.5	7	8.9	5	6.3	1	1.3	181.9
	연수구	69	7	10.1	17	24.6	20	29.0	15	21.7	8	11.6	2	2.9	236.3
	남동구	85	10	11.8	38	44.7	20	23.5	7	8.2	6	7.1	4	4.7	199.8
	부평구	87	12	13.8	34	39.1	20	23.0	16	18.4	3	3.4	2	2.3	194.5
	계양구	68	12	17.6	14	20.6	27	39.7	8	11.8	4	5.9	3	4.4	212.1
	서구	88	9	10.2	14	15.9	24	27.3	20	22.7	14	15.9	7	8.0	275.2
	강화군	41	5	12.2	17	41.5	12	29.3	3	7.3	3	7.3	1	2.4	192.4
옹진군	23	5	21.7	10	43.5	3	13.0	3	13.0	2	8.7	0	0.0	173.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40	18.8	93	43.7	47	22.1	23	10.8	8	3.8	2	0.9	171.8
	고졸	309	34	11.0	104	33.7	92	29.8	39	12.6	26	8.4	14	4.5	219.5
	전문대졸 이상	97	6	6.2	20	20.6	24	24.7	26	26.8	15	15.5	6	6.2	269.8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9	2.2	128	31.2	126	30.7	80	19.5	46	11.2	21	5.1	249.3
	미혼·비혼	26	15	57.7	8	30.8	3	11.5	0	0.0	0	0.0	0	0.0	108.1
	그 외	183	56	30.6	81	44.3	34	18.6	8	4.4	3	1.6	1	0.5	139.9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34	7.5	158	34.8	128	28.2	71	15.6	43	9.5	20	4.4	214.5
	전세	79	9	11.4	29	36.7	25	31.6	11	13.9	3	3.8	2	2.5	179.4
	월세	86	37	43.0	30	34.9	10	11.6	6	7.0	3	3.5	0	0.0	243.9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70	40.5	76	43.9	23	13.3	3	1.7	1	0.6	0	0.0	97.5
	부부가구	265	9	3.4	99	37.4	92	34.7	42	15.8	13	4.9	10	3.8	228.3
	기타가구	181	1	0.6	42	23.2	48	26.5	43	23.8	35	19.3	12	6.6	195.1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60~6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 금액이 높았다.

### 8) 현재 생활비 마련 부담도

〈표 3-29〉과 같이 현재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담도를 보면 평균 3.61점으로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현재 생활비 마련 부담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9) 현재 생활비 부담 항목

〈표 3-30〉과 같이 현재 생활비 중 부담이 되는 항목을 3순위까지 합계를 살펴본 결과, 식비(89.8%)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주거관리비(86.1%), 보건의료비(45.2%), 통신비(25.4%), 경조사비(16.3%), 부채상환(14.2%), 피복비(8.4%), 교양오락비(6.5%), 교통비(2.3%), 교육비(2.1%), 가구집기가사용품(1.9%), 기타(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비 부담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 및 응진군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응답률이 더 높았다. 교육비 부담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응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 및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응답률이 더 높았다. 주거관리비 부담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응답률이 더 높았다. 보건의료비 부담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응답률이 더 높았다. 피복비 부담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응답률이 더 높았다.

교양오락비 부담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 및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1인가구일 때 응답률이 더 높았다. 교통비 부담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더 높았다.

〈표 3-29〉 현재 생활비 마련 부담도

(단위 : 명, %, 점/5점)

구분	n	전혀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보통		약간 부담됨		매우 부담됨		평균	
		n	%	n	%	n	%	n	%	n	%	점	
계	619	16	2.6	117	18.9	133	21.5	177	28.6	176	28.4	3.61	
성별	남성	301	11	3.7	62	20.6	67	22.3	86	28.6	75	24.9	3.50
	여성	318	5	1.6	55	17.3	66	20.8	91	28.6	101	31.8	3.72
연령	60~64세	264	10	3.8	55	20.8	59	22.3	67	25.4	73	27.7	3.52
	65~74세	355	6	1.7	62	17.5	74	20.8	110	31.0	103	29.0	3.68
지역	중구	45	1	2.2	16	35.6	8	17.8	12	26.7	8	17.8	3.22
	동구	34	0	0.0	7	20.6	5	14.7	17	50.0	5	14.7	3.59
	미추홀구	79	2	2.5	9	11.4	11	13.9	29	36.7	28	35.4	3.91
	연수구	69	0	0.0	26	37.7	17	24.6	16	23.2	10	14.5	3.14
	남동구	85	0	0.0	15	17.6	16	18.8	24	28.2	30	35.3	3.81
	부평구	87	2	2.3	11	12.6	15	17.2	19	21.8	40	46.0	3.97
	계양구	68	3	4.4	10	14.7	16	23.5	19	27.9	20	29.4	3.63
	서구	88	6	6.8	15	17.0	29	33.0	22	25.0	16	18.2	3.31
	강화군	41	1	2.4	5	12.2	11	26.8	9	22.0	15	36.6	3.78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0	0.0	27	12.7	27	12.7	77	36.2	82	38.5	4.00
	고졸	309	8	2.6	62	20.1	80	25.9	81	26.2	78	25.2	3.51
	전문대졸 이상	97	8	8.2	28	28.9	26	26.8	19	19.6	16	16.5	3.07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13	3.2	100	24.4	103	25.1	118	28.8	76	18.5	3.35
	미혼·비혼	26	0	0.0	0	0.0	3	11.5	5	19.2	18	69.2	4.58
	그 외	183	3	1.6	17	9.3	27	14.8	54	29.5	82	44.8	4.07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14	3.1	105	23.1	108	23.8	128	28.2	99	21.8	3.43
	전세	79	0	0.0	10	12.7	17	21.5	30	38.0	22	27.8	3.81
	월세	86	2	2.3	2	2.3	8	9.3	19	22.1	55	64.0	4.43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3	1.7	13	7.5	21	12.1	44	25.4	92	53.2	4.21
	부부가구	265	8	3.0	58	21.9	60	22.6	83	31.3	56	21.1	3.46
	기타가구	181	5	2.8	46	25.4	52	28.7	50	27.6	28	15.5	3.28

〈표 3-30〉 현재 생활비 중 부담이 되는 항목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분	n	식비		교육비		주거관리비		보건의료비		가구집가 가사용품		피복비		
		n	%	n	%	n	%	n	%	n	%	n	%	
계	619	556	89.8	13	2.1	533	86.1	280	45.2	12	1.9	52	8.4	
성별	남성	301	281	93.4	6	2.0	257	85.4	124	41.2	7	2.3	25	8.3
	여성	318	275	86.5	7	2.2	276	86.8	156	49.1	5	1.6	27	8.5
연령	60~64세	264	228	86.4	8	3.0	215	81.4	110	41.7	6	2.3	26	9.8
	65~74세	355	328	92.4	5	1.4	318	89.6	170	47.9	6	1.7	26	7.3
지역	중구	45	42	93.3	0	0.0	44	97.8	11	24.4	0	0.0	10	22.2
	동구	34	30	88.2	0	0.0	31	91.2	10	29.4	0	0.0	8	23.5
	미추홀구	79	68	86.1	0	0.0	76	96.2	33	41.8	0	0.0	3	3.8
	연수구	69	66	95.7	1	1.4	66	95.7	10	14.5	0	0.0	20	29.0
	남동구	85	76	89.4	3	3.5	66	77.6	52	61.2	3	3.5	3	3.5
	부평구	87	80	92.0	3	3.4	67	77.0	53	60.9	3	3.4	0	0.0
	계양구	68	64	94.1	1	1.5	53	77.9	46	67.6	3	4.4	2	2.9
	서구	88	73	83.0	2	2.3	78	88.6	38	43.2	0	0.0	4	4.5
	강화군	41	35	85.4	1	2.4	30	73.2	21	51.2	3	7.3	0	0.0
	옹진군	23	22	95.7	2	8.7	22	95.7	6	26.1	0	0.0	2	8.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91	89.7	6	2.8	189	88.7	119	55.9	4	1.9	10	4.7
	고졸	309	276	89.3	6	1.9	263	85.1	127	41.1	6	1.9	29	9.4
	전문대졸 이상	97	89	91.8	1	1.0	81	83.5	34	35.1	2	2.1	13	13.4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363	88.5	9	2.2	350	85.4	191	46.6	3	0.7	34	8.3
	미혼·비혼	26	25	96.2	0	0.0	25	96.2	12	46.2	0	0.0	0	0.0
	그 외	183	168	91.8	4	2.2	153	86.3	77	42.1	9	4.9	18	9.8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404	89.0	11	2.4	390	85.9	212	46.7	7	1.5	38	8.4
	전세	79	71	89.9	2	2.5	68	86.1	36	45.6	0	0.0	10	12.7
	월세	86	81	94.2	0	0.0	75	87.2	32	37.2	5	5.8	4	4.7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62	93.6	3	1.7	151	87.3	73	42.2	9	5.2	10	5.8
	부부가구	265	240	90.6	4	1.5	226	85.3	134	50.6	0	0.0	18	6.8
	기타가구	181	154	85.1	6	3.3	156	86.2	73	40.3	3	1.7	24	13.3

(표계속)

구분		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사비		부채상환		기타	
		n	%	n	%	n	%	n	%	n	%	n	%
계		40	6.5	14	2.3	157	25.4	101	16.3	88	14.2	6	1.0
성별	남성	25	8.3	9	3.0	84	27.9	41	13.6	39	13.0	2	0.7
	여성	15	4.7	5	1.6	73	23.0	60	18.9	49	15.4	4	1.3
연령	60~64세	20	7.6	8	3.0	82	31.1	40	15.2	43	16.3	4	1.5
	65~74세	20	5.6	6	1.7	75	21.1	61	17.2	45	12.7	2	0.6
지역	중구	3	6.7	1	2.2	8	17.8	10	22.2	5	11.1	1	2.2
	동구	8	23.5	1	2.9	5	14.7	4	11.8	5	14.7	0	0.0
	미추홀구	5	6.3	2	2.5	27	34.2	12	15.2	8	10.1	2	2.5
	연수구	7	10.1	1	1.4	13	18.8	3	4.3	18	26.1	0	0.0
	남동구	5	5.9	3	3.5	15	17.6	16	18.8	13	15.3	0	0.0
	부평구	3	3.4	2	2.3	28	32.2	15	17.2	7	8.0	0	0.0
	계양구	3	4.4	1	1.5	19	27.9	4	5.9	5	7.4	1	1.5
	서구	2	2.3	1	1.1	23	26.1	19	21.6	22	25.0	2	2.3
	강화군	3	7.3	2	4.9	12	29.3	14	34.1	2	4.9	0	0.0
옹진군	1	4.3	0	0.0	7	30.4	4	17.4	3	13.0	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0	4.7	3	1.4	50	23.5	31	14.6	22	10.3	2	0.9
	고졸	18	5.8	10	3.2	83	26.9	57	18.4	47	15.2	3	1.0
	전문대졸 이상	12	12.4	1	1.0	24	24.7	13	13.4	19	19.6	1	1.0
혼인 상태	혼인 중	24	5.9	9	2.2	94	22.9	79	19.3	68	16.6	4	1.0
	미혼·비혼	2	7.7	1	3.8	10	38.5	2	7.7	0	0.0	1	3.8
	그 외	14	7.7	4	2.2	53	29.0	20	10.9	20	10.9	1	0.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32	7.0	9	2.0	99	21.8	85	18.7	73	16.1	1	0.2
	전세	4	5.1	3	3.8	24	30.4	8	10.1	9	11.4	0	0.0
	월세	4	4.7	2	2.3	34	39.5	8	9.3	6	7.0	5	5.8
가구 유형	1인가구	13	7.5	5	2.9	56	32.4	18	10.4	14	8.1	2	1.2
	부부가구	15	5.7	8	3.0	55	20.8	56	21.1	34	12.8	3	1.1
	기타가구	12	6.6	1	0.6	46	25.4	27	14.9	40	22.1	1	0.6

통신비 부담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더 높았다. 경조사비 부담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더 높았다. 부채상환 부담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더 높았다. 기타 항목에 대한 부담은 여성일 때, 60~64세 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더 높았다.

## 10) 가구 경제수준

〈표 3-31〉과 같이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가구의 경제수준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 2.13점으로 경제수준을 낮게 평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가구 경제수준을 다른 집단보다 낮게 평가했다.

〈표 3-31〉 가구 경제수준

(단위 : 명, %, 점)

구분		n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종합평가				5점척도 평균
			①+②		④+⑤		n		n		n		n				
			n	%	n	%	n	%	n	%	n	%	n	%	n	%	
계		619	194	31.3	203	32.8	185	29.9	23	3.7	14	2.3	397	64.1	37	6.0	2.13
성별	남성	301	104	34.6	86	28.6	87	28.9	13	4.3	11	3.7	190	63.1	24	8.0	2.14
	여성	318	90	28.3	117	36.8	98	30.8	10	3.1	3	0.9	207	65.1	13	4.1	2.12
연령	60~64세	264	76	28.8	78	29.5	90	34.1	14	5.3	6	2.3	154	58.3	20	7.6	2.23
	65~74세	355	118	33.2	125	35.2	95	26.8	9	2.5	8	2.3	243	68.5	17	4.8	2.05
지역	중구	45	11	24.4	20	44.4	9	20.0	2	4.4	3	6.7	31	68.9	5	11.1	2.24
	동구	34	8	23.5	13	38.2	10	29.4	1	2.9	2	5.9	21	61.8	3	8.8	2.29
	미추홀구	79	35	44.3	23	29.1	18	22.8	1	1.3	2	2.5	58	73.4	3	3.8	1.89
	연수구	69	14	20.3	28	40.6	21	30.4	2	2.9	4	5.8	42	60.9	6	8.7	2.33
	남동구	85	30	35.3	30	35.3	20	23.5	4	4.7	1	1.2	60	70.6	5	5.9	2.01
	부평구	87	38	43.7	26	29.9	21	24.1	2	2.3	0	0.0	64	73.6	2	2.3	1.85
	계양구	68	24	35.3	17	25.0	25	36.8	0	0.0	2	2.9	41	60.3	2	2.9	2.10
	서구	88	15	17.0	29	33.0	35	39.8	9	10.2	0	0.0	44	50.0	9	10.2	2.43
	강화군	41	14	34.1	8	19.5	18	43.9	1	2.4	0	0.0	22	53.7	1	2.4	2.15
	옹진군	23	5	21.7	9	39.1	8	34.8	1	4.3	0	0.0	14	60.9	1	4.3	2.22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91	42.7	74	34.7	42	19.7	4	1.9	2	0.9	165	77.5	6	2.8	1.84
	고졸	309	82	26.5	112	36.2	99	32.0	10	3.2	6	1.9	194	62.8	16	5.2	2.18
	전문대졸 이상	97	21	21.6	17	17.5	44	45.4	9	9.3	6	6.2	38	39.2	15	15.5	2.61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70	17.1	146	35.6	163	39.8	20	4.9	11	2.7	216	52.7	31	7.6	2.40
	미혼·비혼	26	24	92.3	2	7.7	0	0.0	0	0.0	0	0.0	26	100.0	0	0.0	1.08
	그 외	183	100	54.6	55	30.1	22	12.0	3	1.6	3	1.6	155	84.7	6	3.3	1.66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85	18.7	162	35.7	172	37.9	22	4.8	13	2.9	247	54.4	35	7.7	2.37
	전세	79	39	49.4	30	38.0	9	11.4	1	1.3	0	0.0	69	87.3	1	1.3	1.65
	월세	86	70	81.4	11	12.8	4	4.7	0	0.0	1	1.2	81	94.2	1	1.2	1.27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10	63.6	42	24.3	16	9.2	2	1.2	3	1.7	152	87.9	5	2.9	1.53
	부부가구	265	56	21.1	97	36.6	94	35.5	11	4.2	7	2.6	153	57.7	18	6.8	2.31
	기타가구	181	28	15.5	64	35.4	75	41.4	10	5.5	4	2.2	92	50.8	14	7.7	2.44

## 4. 취미·여가 및 사회공헌

### 1) 일일 영상 시청 시간

〈표 3-32〉와 같이 일일 영상 시청 시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4.2시간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일일 영상 시청 시간이 길었다.

〈표 3-32〉 일일 영상 시청 시간

(단위 : 명, %, 시간)

구분	n	1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5시간 미만		5시간~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평균	
		n	%	n	%	n	%	n	%	n	%		
계	619	40	6.5	73	11.8	270	43.6	212	34.2	24	3.9	4.2	
성별	남성	301	25	8.3	46	15.3	123	40.9	99	32.9	8	2.7	4.0
	여성	318	15	4.7	27	8.5	147	46.2	113	35.5	16	5.0	4.4
연령	60~64세	264	26	9.8	41	15.5	121	45.8	69	26.1	7	2.7	3.8
	65~74세	355	14	3.9	32	9.0	149	42.0	143	40.3	17	4.8	4.5
지역	중구	45	4	8.9	7	15.6	18	40.0	16	35.6	0	0.0	3.8
	동구	34	2	5.9	3	8.8	17	50.0	11	32.4	1	2.9	4.0
	미추홀구	79	4	5.1	7	8.9	35	44.3	28	35.4	5	6.3	4.4
	연수구	69	1	1.4	11	15.9	30	43.5	24	34.8	3	4.3	4.1
	남동구	85	9	10.6	8	9.4	34	40.0	26	30.6	8	9.4	4.6
	부평구	87	0	0.0	11	12.6	38	43.7	34	39.1	4	4.6	4.6
	계양구	68	7	10.3	5	7.4	34	50.0	21	30.9	1	1.5	3.9
	서구	88	5	5.7	15	17.0	37	42.0	31	35.2	0	0.0	3.9
	강화군	41	5	12.2	5	12.2	18	43.9	12	29.3	1	2.4	3.9
옹진군	23	3	13.0	1	4.3	9	39.1	9	39.1	1	4.3	4.3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1	5.2	19	8.9	84	39.4	85	39.9	14	6.6	4.7
	고졸	309	21	6.8	35	11.3	141	45.6	102	33.0	10	3.2	4.1
	전문대졸 이상	97	8	8.2	19	19.6	45	46.4	25	25.8	0	0.0	3.4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30	7.3	61	14.9	190	46.3	123	30.0	6	1.5	3.8
	미혼·비혼	26	2	7.7	1	3.8	6	23.1	13	50.0	4	15.4	5.7
	그 외	183	8	4.4	11	6.0	74	40.4	76	41.5	14	7.7	4.8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33	7.3	59	13.0	204	44.9	149	32.8	9	2.0	4.0
	전세	79	2	2.5	10	12.7	35	44.3	28	35.4	4	5.1	4.4
	월세	86	5	5.8	4	4.7	31	36.0	35	40.7	11	12.8	5.1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9	5.2	8	4.6	64	37.0	74	42.8	18	10.4	5.0
	부부가구	265	19	7.2	31	11.7	120	45.3	90	34.0	5	1.9	4.0
	기타가구	181	12	6.6	34	18.8	86	47.5	48	26.5	1	0.6	3.7

## 2) 여가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 경험

〈표 3-33〉과 같이 여가 및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소극적 여가활동(98.9%)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그 뒤를 이어 친목사교활동(91.3%), 적극적 여가활동(55.7%), 종교활동(29.4%), 교육활동(10.0%), 자원봉사나 사회공헌활동(9.7%), 시민(사회) 및 정치 단체 참여(3.2%)의 순이었다.

적극적 여가활동이란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창조적 활동), 스포츠관람 및 참여, 문화유적 방문, 관광/여행, 등산, 요리, 함께 하는 운동을 말하며,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응답률이 높았다.

소극적 여가활동이란 TV시청, 낮잠, 반려동물 기르기, 놀이, 혼자 하는 운동, 산책 및 걷기, 음주, 복권 등의 활동을 말하며,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동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할 때, 중졸이하 및 전문대졸 이상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 및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응답률이 높았다.

자원봉사나 사회공헌활동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응답률이 높았다.

시민(사회) 및 정치단체 참여는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남동구 및 계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응답률이 높았다.

종교활동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응답률이 높았다.

친목사회활동이란 가족 및 친지 방문, 계모임, 동창회, 잡단/통화/문자하기, 친구만남/이성 교제의 활동을 말하며, 여성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 및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응답률이 높았다.

교육활동이란 복지관, 평생교육원 등에서의 배움 활동을 말하며,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응답률이 높았다.

〈표 3-33〉 여가 및 사회공헌 활동 참여 경험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분	n	적극적 여가활동		소극적 여가활동		자원봉사, 사회공헌 활동		시민(사 회) 및 정치단체 참여		종교활동		친목·사 교활동		교육활동		
		n	%	n	%	n	%	n	%	n	%	n	%	n	%	
계	619	345	55.7	612	98.9	60	9.7	20	3.2	182	29.4	565	91.3	62	10.0	
성별	남성	301	153	50.8	296	98.3	21	7.0	9	3.0	55	18.3	266	88.4	21	7.0
	여성	318	192	60.4	316	99.4	39	12.3	11	3.5	127	39.9	299	94.0	41	12.9
연령	60~64세	264	160	60.6	262	99.2	29	11.0	9	3.4	74	28.0	241	91.3	30	11.4
	65~74세	355	185	52.1	350	98.6	31	8.7	11	3.1	108	30.4	324	91.3	32	9.0
지역	중구	45	21	46.7	44	97.8	4	8.9	1	2.2	6	13.3	44	97.8	2	4.4
	동구	34	19	55.9	34	100.0	5	14.7	1	2.9	8	23.5	33	97.1	1	2.9
	미추홀구	79	33	41.8	78	98.7	10	12.7	2	2.5	25	31.6	65	82.3	15	19.0
	연수구	69	31	44.9	69	100.0	5	7.2	0	0.0	25	36.2	67	97.1	7	10.1
	남동구	85	52	61.2	80	94.1	8	9.4	5	5.9	26	30.6	76	89.4	11	12.9
	부평구	87	57	65.5	87	100.0	7	8.0	1	1.1	30	34.5	81	93.1	4	4.6
	계양구	68	39	57.4	68	100.0	8	11.8	4	5.9	19	27.9	58	85.3	7	10.3
	서구	88	63	71.6	88	100.0	9	10.2	5	5.7	28	31.8	84	95.5	11	12.5
	강화군	41	20	48.8	41	100.0	3	7.3	1	2.4	8	19.5	35	85.4	2	4.9
옹진군	23	10	43.5	23	100.0	1	4.3	0	0.0	7	30.4	22	95.7	2	8.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94	44.1	213	100.0	13	6.1	5	2.3	63	29.6	188	88.3	11	5.2
	고졸	309	187	60.5	302	97.7	29	9.4	9	2.9	93	30.1	288	93.2	35	11.3
	전문대졸 이상	97	64	66.0	97	100.0	18	18.6	6	6.2	26	26.8	89	91.8	16	16.5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260	63.4	405	98.8	53	12.9	19	4.6	132	32.2	394	96.1	46	11.2
	미혼·비혼	26	6	23.1	25	96.2	0	0.0	0	0.0	4	15.4	17	65.4	1	3.8
	그 외	183	79	43.2	182	99.5	7	3.8	1	0.5	46	25.1	154	84.2	15	8.2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291	64.1	450	99.1	57	12.6	18	4.0	153	33.7	431	94.9	51	11.2
	전세	79	35	44.3	78	98.7	2	2.5	1	1.3	14	17.7	75	94.9	3	3.8
	월세	86	19	22.1	84	97.7	1	1.2	1	1.2	15	17.4	59	68.6	8	9.3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67	38.7	171	98.8	2	1.2	0	0.0	38	22.0	139	80.3	13	7.5
	부부가구	265	172	64.9	262	98.9	33	12.5	12	4.5	85	32.1	258	97.4	28	10.6
	기타가구	181	106	58.6	179	98.9	25	13.8	8	4.4	59	32.6	168	92.8	21	11.6

## 3) 적극적 여가활동의 동반자 여부

적극적 여가활동을 하는 345명의 응답을 선별하여 참여 시 동반자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3-34>과 같이 93.3%는 주로 다른 이와 함께 참여하였고, 6.7%는 주로 혼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다른 이와 함께 참여했다는 응답률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남동구·부평구·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높았다.

&lt;표 3-34&gt; 적극적 여가활동의 동반자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주로 혼자		주로 다른 이와 함께	
		n	%	n	%
계	345	23	6.7	322	93.3
성별	남성	153	9	144	94.1
	여성	192	14	178	92.7
연령	60~64세	160	11	149	93.1
	65~74세	185	12	173	93.5
지역	중구	21	1	20	95.2
	동구	19	5	14	73.7
	미추홀구	33	6	27	81.8
	연수구	31	8	23	74.2
	남동구	52	0	52	100.0
	부평구	57	0	57	100.0
	계양구	39	1	38	97.4
	서구	63	0	63	100.0
	강화군	20	1	19	95.0
옹진군	10	1	9	9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94	2	92	97.9
	고졸	187	14	173	92.5
	전문대졸 이상	64	7	57	89.1
혼인 상태	혼인 중	260	12	248	95.4
	미혼·비혼	6	0	6	100.0
	그 외	79	11	68	86.1
주택 점유 형태	자가	291	18	273	93.8
	전세	35	2	33	94.3
	월세	19	3	16	84.2
가구 유형	1인가구	67	9	58	86.6
	부부가구	172	9	163	94.8
	기타가구	106	5	101	95.3

#### 4) 소극적 여가활동의 동반자 여부

소극적 여가활동을 하는 612명의 응답을 선별하여 참여 시 동반자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3-35>과 같이 42.3%는 주로 다른 이와 함께 참여하였고, 57.7%는 주로 혼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다른 이와 함께 참여했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높았다.

<표 3-35> 소극적 여가활동의 동반자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주로 혼자		주로 다른 이와 함께		
		n	%	n	%	
계	612	353	57.7	259	42.3	
성별	남성	296	175	59.1	121	40.9
	여성	316	178	56.3	138	43.7
연령	60~64세	262	137	52.3	125	47.7
	65~74세	350	216	61.7	134	38.3
지역	중구	44	28	63.6	16	36.4
	동구	34	16	47.1	18	52.9
	미추홀구	78	52	66.7	26	33.3
	연수구	69	50	72.5	19	27.5
	남동구	80	39	48.8	41	51.3
	부평구	87	49	56.3	38	43.7
	계양구	68	35	51.5	33	48.5
	서구	88	52	59.1	36	40.9
	강화군	41	20	48.8	21	51.2
	옹진군	23	12	52.2	11	47.8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42	66.7	71	33.3
	고졸	302	159	52.6	143	47.4
	전문대졸 이상	97	52	53.6	45	46.4
혼인 상태	혼인 중	405	180	44.4	225	55.6
	미혼·비혼	25	24	96.0	1	4.0
	그 외	182	149	81.9	33	18.1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0	229	50.9	221	49.1
	전세	78	55	70.5	23	29.5
	월세	84	69	82.1	15	17.9
가구 유형	1인가구	171	148	86.5	23	13.5
	부부가구	262	115	43.9	147	56.1
	기타가구	179	90	50.3	89	49.7

## 5) 자원봉사나 사회공헌활동의 동반자 여부

소극적 여가활동을 하는 60명의 응답을 선별하여 참여 시 동반자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3-36>과 같이 98.3%는 주로 다른 이와 함께 참여하였고, 1.7%는 주로 혼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다른 이와 함께 참여했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계양구 거주를 제외하고, 중졸이하 및 고졸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 및 월세일 때, 1인가구 및 부부가구일 때 높았다.

<표 3-36> 자원봉사나 사회공헌활동의 동반자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주로 혼자		주로 다른 이와 함께	
		n	%	n	%
계	60	1	1.7	59	98.3
성별	남성	21	1	20	95.2
	여성	39	0	39	100.0
연령	60~64세	29	1	28	96.6
	65~74세	31	0	31	100.0
지역	중구	4	0	4	100.0
	동구	5	0	5	100.0
	미추홀구	10	0	10	100.0
	연수구	5	0	5	100.0
	남동구	8	0	8	100.0
	부평구	7	0	7	100.0
	계양구	8	1	7	87.5
	서구	9	0	9	100.0
	강화군	3	0	3	100.0
옹진군	1	0	1	10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3	0	13	100.0
	고졸	29	0	29	100.0
	전문대졸 이상	18	1	17	94.4
혼인 상태	혼인 중	53	1	52	98.1
	그 외	7	0	7	100.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57	1	56	98.2
	전세	2	0	2	100.0
	월세	1	0	1	100.0
가구 유형	1인가구	2	0	2	100.0
	부부가구	33	0	33	100.0
	기타가구	25	1	24	96.0

### 6) 시민(사회) 및 정치단체 참여 동반자 여부

시민(사회) 및 정치단체활동을 하는 20명의 응답을 선별하여 참여 시 동반자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3-37>과 같이 95.0%는 주로 다른 이와 함께 참여하였고, 5.0%는 주로 혼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다른 이와 함께 참여했다는 응답률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계양구 거주를 제외하고, 중졸이하 및 전문대졸 이상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 및 월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높았다.

<표 3-37> 시민(사회) 및 정치단체 참여 동반자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주로 혼자		주로 다른 이와 함께			
		n	%	n	%		
계	20	1	5.0	19	95.0		
성별	남성	9	0	0.0	9	100.0	
	여성	11	1	9.1	10	90.9	
연령	60~64세	9	1	11.1	8	88.9	
	65~74세	11	0	0.0	11	100.0	
지역	중구	1	0	0.0	1	100.0	
	동구	1	0	0.0	1	100.0	
	미추홀구	2	0	0.0	2	100.0	
	남동구	5	0	0.0	5	100.0	
	부평구	1	0	0.0	1	100.0	
	계양구	4	1	25.0	3	75.0	
	서구	5	0	0.0	5	100.0	
최종 학력	강화군	1	0	0.0	1	100.0	
	중졸 이하	5	0	0.0	5	100.0	
	고졸	9	1	11.1	8	88.9	
	전문대졸 이상	6	0	0.0	6	100.0	
	혼인 상태	혼인 중	19	1	5.3	18	94.7
		그 외	1	0	0.0	1	100.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18	1	5.6	17	94.4
전세		1	0	0.0	1	100.0	
월세		1	0	0.0	1	100.0	
가구 형태	부부가구	12	1	8.3	11	91.7	
	기타가구	8	0	0.0	8	100.0	

## 7) 종교활동 참여 동반자 여부

종교활동을 하는 182명의 응답을 선별하여 참여 시 동반자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3-38>과 같이 96.2%는 주로 다른 이와 함께 참여하였고, 3.8%는 주로 혼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다른 이와 함께 참여했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 및 용진군 거주를 제외하고, 중졸이하일 때, 미혼·비혼 때, 월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높았다.

〈표 3-38〉 종교활동 참여 동반자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주로 혼자		주로 다른 이와 함께	
			n	%	n	%
계		182	7	3.8	175	96.2
성별	남성	55	4	7.3	51	92.7
	여성	127	3	2.4	124	97.6
연령	60~64세	74	0	0.0	74	100.0
	65~74세	108	7	6.5	101	93.5
지역	중구	6	0	0.0	6	100.0
	동구	8	0	0.0	8	100.0
	미추홀구	25	3	12.0	22	88.0
	연수구	25	3	12.0	22	88.0
	남동구	26	0	0.0	26	100.0
	부평구	30	0	0.0	30	100.0
	계양구	19	0	0.0	19	100.0
	서구	28	0	0.0	28	100.0
	강화군	8	0	0.0	8	100.0
	용진군	7	1	14.3	6	85.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3	2	3.2	61	96.8
	고졸	93	4	4.3	89	95.7
	전문대졸 이상	26	1	3.8	25	96.2
혼인 상태	혼인 중	132	3	2.3	129	97.7
	미혼·비혼	4	0	0.0	4	100.0
	그 외	46	4	8.7	42	91.3
주택 점유 형태	자가	153	6	3.9	147	96.1
	전세	14	1	7.1	13	92.9
	월세	15	0	0.0	15	100.0
가구 유형	1인가구	38	4	10.5	34	89.5
	부부가구	85	2	2.4	83	97.6
	기타가구	59	1	1.7	58	98.3

### 8) 친목·사교활동 참여 동반자 여부

친목·사교활동을 하는 565명의 응답을 선별하여 참여 시 동반자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3-39>와 같이 99.6%는 주로 다른 이와 함께 참여하였고, 0.4%는 주로 혼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다른 이와 함께 참여했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 및 부평구 거주를 제외하고, 중졸이하 및 전문대졸 이상일 때, 미혼·비혼 때, 월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높았다.

<표 3-39> 친목·사교활동 참여 동반자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주로 혼자		주로 다른 이와 함께	
		n	%	n	%
계	565	2	0.4	563	99.6
성별	남성	266	1	265	99.6
	여성	299	1	298	99.7
연령	60~64세	241	1	240	99.6
	65~74세	324	1	323	99.7
지역	중구	44	0	44	100.0
	동구	33	1	32	97.0
	미추홀구	65	0	65	100.0
	연수구	67	0	67	100.0
	남동구	76	0	76	100.0
	부평구	81	1	80	98.8
	계양구	58	0	58	100.0
	서구	84	0	84	100.0
	강화군	35	0	35	100.0
옹진군	22	0	22	10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88	0	188	100.0
	고졸	288	2	286	99.3
	전문대졸 이상	89	0	89	100.0
혼인 상태	혼인 중	394	1	393	99.7
	미혼·비혼	17	0	17	100.0
	그 외	154	1	153	99.4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31	1	430	99.8
	전세	75	1	74	98.7
	월세	59	0	59	100.0
가구 유형	1인가구	139	1	138	99.3
	부부가구	258	0	258	100.0
	기타가구	168	1	167	99.4

## 9) 교육활동 참여 동반자 여부

교육활동을 하는 62명의 응답을 선별하여 참여 시 동반자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3-40>과 같이 75.8%는 주로 다른 이와 함께 참여하였고, 24.2%는 주로 혼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다른 이와 함께 참여했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 및 부평구에 거주할 때, 중졸이하일 때, 미혼·비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높았다.

〈표 3-40〉 교육활동 참여 동반자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주로 혼자		주로 다른 이와 함께	
			n	%	n	%
계		62	15	24.2	47	75.8
성별	남성	21	6	28.6	15	71.4
	여성	41	9	22.0	32	78.0
연령	60~64세	30	10	33.3	20	66.7
	65~74세	32	5	15.6	27	84.4
지역	중구	2	0	0.0	2	100.0
	동구	1	0	0.0	1	100.0
	미추홀구	15	2	13.3	13	86.7
	연수구	7	2	28.6	5	71.4
	남동구	11	2	18.2	9	81.8
	부평구	4	0	0.0	4	100.0
	계양구	7	2	28.6	5	71.4
	서구	11	5	45.5	6	54.5
	강화군	2	1	50.0	1	50.0
	옹진군	2	1	50.0	1	5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1	2	18.2	9	81.8
	고졸	35	9	25.7	26	74.3
	전문대졸 이상	16	4	25.0	12	75.0
혼인 상태	혼인 중	46	13	28.3	33	71.7
	미혼·비혼	1	0	0.0	1	100.0
	그 외	15	2	13.3	13	86.7
주택 점유 형태	자가	51	14	27.5	37	72.5
	전세	3	0	0.0	3	100.0
	월세	8	1	12.5	7	87.5
가구 유형	1인가구	13	2	15.4	11	84.6
	부부가구	28	5	17.9	23	82.1
	기타가구	21	8	38.1	13	61.9

### 10)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사

사회공헌활동을 보상에 따라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표 3-41>와 같이 48.5%는 참여 의사가 있었고, 51.5%는 참여의사가 없었다.

보상이 전혀 없어도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22.9%로,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계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높았다. 교통비 정도의 보상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10.3%로,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중졸이하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높았다. 약간의 수당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15.2%로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높았다. 보상이 있어도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높았다.

### 11) 사회공헌활동 참여 희망 유형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300명의 응답을 선별하여 어떤 활동에 참여하길 희망하는지 확인한 결과 <표 3-42>와 같이 사회복지 관련 업무(76.3%)를 가장 선호하였고, 그 뒤를 이어 식음료 제조 및 판매지원(11.3%), 행정보조(5.7%), 문화예술활동(3.0%), 상담 및 컨설팅(2.0%), 교육(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참여 희망 응답률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계양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교육에 참여 희망 응답률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월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상담 및 컨설팅 참여 희망 응답률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행정보조 참여 희망 응답률은 남성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문화예술활동 참여 희망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식음료 제조 및 판매지원 참여 희망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부부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41〉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사

(단위 : 명, %)

구분	n	참여의향 있음										
		소계		보상이 전혀 없어도 참여하고 싶다		교통비 정도의 보상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		약간의 수당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		보상이 있어도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n	%	n	%	n	%	n	%	n	%	
계	619	300	48.5	142	22.9	64	10.3	94	15.2	319	51.5	
성별	남성	301	126	41.9	62	20.6	24	8.0	40	13.3	175	58.1
	여성	318	174	54.7	80	25.2	40	12.6	54	17.0	144	45.3
연령	60~64세	264	141	53.4	77	29.2	25	9.5	39	14.8	123	46.6
	65~74세	355	159	44.8	65	18.3	39	11.0	55	15.5	196	55.2
지역	중구	45	21	46.7	5	11.1	3	6.7	13	28.9	24	53.3
	동구	34	19	55.9	6	17.6	0	0.0	13	38.2	15	44.1
	미추홀구	79	38	48.1	6	7.6	9	11.4	23	29.1	41	51.9
	연수구	69	33	47.8	14	20.3	1	1.4	18	26.1	36	52.2
	남동구	85	42	49.4	28	32.9	13	15.3	1	1.2	43	50.6
	부평구	87	46	52.9	22	25.3	18	20.7	6	6.9	41	47.1
	계양구	68	37	54.4	25	36.8	7	10.3	5	7.4	31	45.6
	서구	88	41	46.6	24	27.3	11	12.5	6	6.8	47	53.4
	강화군	41	13	31.7	9	22.0	2	4.9	2	4.9	28	68.3
	옹진군	23	10	43.5	3	13.0	0	0.0	7	30.4	13	56.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80	37.6	32	15.0	26	12.2	22	10.3	133	62.4
	고졸	309	160	51.8	75	24.3	32	10.4	53	17.2	149	48.2
	전문대졸 이상	97	60	61.9	35	36.1	6	6.2	19	19.6	37	38.1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226	55.1	121	29.5	41	10.0	64	15.6	184	44.9
	미혼·비혼	26	3	11.5	1	3.8	1	3.8	1	3.8	23	88.5
	그 외	183	71	38.8	20	10.9	22	12.0	29	15.8	112	61.2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251	55.3	126	27.8	52	11.5	73	16.1	203	44.7
	전세	79	29	36.7	11	13.9	8	10.1	10	12.7	50	63.3
	월세	86	20	23.3	5	5.8	4	4.7	11	12.8	66	76.7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55	31.8	15	8.7	18	10.4	22	12.7	118	68.2
	부부가구	265	142	53.6	70	26.4	26	9.8	46	17.4	123	46.4
	기타가구	181	103	56.9	57	31.5	20	11.0	26	14.4	78	43.1

〈표 3-42〉 사회공헌활동 참여 희망 유형

(단위 : 명, %)

구분	n	사회복지 관련 업무		교육		상담, 컨설팅		행정보조 (업무지원)		문화예술 활동		식음료 제조, 판매 지원		
		n	%	n	%	n	%	n	%	n	%	n	%	
계	300	229	76.3	5	1.7	6	2.0	17	5.7	9	3.0	34	11.3	
성별	남성	126	95	75.4	3	2.4	2	1.6	10	7.9	3	2.4	13	10.3
	여성	174	134	77.0	2	1.1	4	2.3	7	4.0	6	3.4	21	12.1
연령	60~64세	141	113	80.1	3	2.1	3	2.1	8	5.7	4	2.8	10	7.1
	65~74세	159	116	73.0	2	1.3	3	1.9	9	5.7	5	3.1	24	15.1
지역	중구	21	14	66.7	1	4.8	0	0.0	3	14.3	2	9.5	1	4.8
	동구	19	15	78.9	0	0.0	0	0.0	2	10.5	0	0.0	2	10.5
	미추홀구	38	18	47.4	1	2.6	1	2.6	4	10.5	3	7.9	11	28.9
	연수구	33	24	72.7	0	0.0	0	0.0	5	15.2	1	3.0	3	9.1
	남동구	42	36	85.7	1	2.4	0	0.0	0	0.0	0	0.0	5	11.9
	부평구	46	39	84.8	0	0.0	1	2.2	2	4.3	1	2.2	3	6.5
	계양구	37	34	91.9	1	2.7	1	2.7	0	0.0	0	0.0	1	2.7
	서구	41	32	78.0	1	2.4	2	4.9	0	0.0	0	0.0	6	14.6
	강화군	13	11	84.6	0	0.0	0	0.0	0	0.0	1	7.7	1	7.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80	63	78.8	1	1.3	2	2.5	2	2.5	2	2.5	10	12.5
	고졸	160	120	75.0	0	0.0	3	1.9	10	6.3	5	3.1	22	13.8
	전문대졸 이상	60	46	76.7	4	6.7	1	1.7	5	8.3	2	3.3	2	3.3
혼인 상태	혼인 중	226	176	77.9	5	2.2	2	0.9	15	6.6	3	1.3	25	11.1
	미혼·비혼	3	2	66.7	0	0.0	0	0.0	0	0.0	1	33.3	0	0.0
	그 외	71	51	71.8	0	0.0	4	5.6	2	2.8	5	7.0	9	12.7
주택 점유 형태	자가	251	201	80.1	3	1.2	4	1.6	12	4.8	8	3.2	23	9.2
	전세	29	19	65.5	0	0.0	1	3.4	3	10.3	0	0.0	6	20.7
	월세	20	9	45.0	2	10.0	1	5.0	2	10.0	1	5.0	5	25.0
가구 유형	1인가구	55	39	70.9	0	0.0	3	5.5	1	1.8	5	9.1	7	12.7
	부부가구	142	107	75.4	3	2.1	2	1.4	8	5.6	1	0.7	21	14.8
	기타가구	103	83	80.6	2	1.9	1	1.0	8	7.8	3	2.9	6	5.8

## 5. 일

### 1) 현재 일 참여 여부

〈표 3-43〉과 같이 현재 수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63.5%가 일에 참여 하고 있고, 36.5%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보면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웅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3〉 현재 일 참여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참여함		참여 안 함	
			n	%	n	%
계		619	393	63.5	226	36.5
성별	남성	301	210	69.8	91	30.2
	여성	318	183	57.5	135	42.5
연령	60~64세	264	187	70.8	77	29.2
	65~74세	355	206	58.0	149	42.0
지역	중구	45	31	68.9	14	31.1
	동구	34	23	67.6	11	32.4
	미추홀구	79	46	58.2	33	41.8
	연수구	69	52	75.4	17	24.6
	남동구	85	57	67.1	28	32.9
	부평구	87	54	62.1	33	37.9
	계양구	68	40	58.8	28	41.2
	서구	88	46	52.3	42	47.7
	강화군	41	25	61.0	16	39.0
웅진군	23	19	82.6	4	17.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17	54.9	96	45.1
	고졸	309	207	67.0	102	33.0
	전문대졸 이상	97	69	71.1	28	28.9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278	67.8	132	32.2
	미혼·비혼	26	8	30.8	18	69.2
	그 외	183	107	58.5	76	41.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307	67.6	147	32.4
	전세	79	53	67.1	26	32.9
	월세	86	33	38.4	53	61.6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90	52.0	83	48.0
	부부가구	265	175	66.0	90	34.0
	기타가구	181	128	70.7	53	29.3

## 2) 현재 일을 하는 이유

일에 참여하고 있는 393명을 선별하여 일을 하는 이유를 최대 2순위로 응답한 결과, <표 3-44>와 같이 노년기 생계를 위해 일을 한다는 응답률이 86.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을 위해(70.2%), 건강한 생활을 위해(34.4%), 일하지 않으면 너무 지루해서(5.1%),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2.0%), 자아실현을 위해(0.8%),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싶어서(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응답률을 비교하기 어려운 하위 2문항을 제외한 각 항목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일한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 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노년기 생계를 위해 일한다는 응답률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일한다는 응답률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동구·미추홀구 서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일하지 않으면 너무 지루해서 일한다는 응답률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계양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을 위해 일한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44> 현재 일을 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년기 생계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싶어서		자아실현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너무 지루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을 위해		
		n	%	n	%	n	%	n	%	n	%	n	%	n	%	
계	393	135	34.4	340	86.5	8	2.0	2	0.5	3	0.8	20	5.1	276	70.2	
성별	남성	210	67	31.9	184	87.6	5	2.4	1	0.5	1	0.5	13	6.2	147	70.0
	여성	183	68	37.2	156	85.2	3	1.6	1	0.5	2	1.1	7	3.8	129	70.5
연령	60~64세	187	65	34.8	160	85.6	4	2.1	1	0.5	1	0.5	12	6.4	129	69.0
	65~74세	206	70	34.0	180	87.4	4	1.9	1	0.5	2	1.0	8	3.9	147	71.4

지역	중구	31	12	38.7	27	87.1	0	0.0	0	0.0	0	0.0	1	3.2	22	71.0
	동구	23	5	21.7	22	95.7	1	4.3	0	0.0	0	0.0	1	4.3	17	73.9
	미추홀구	46	14	30.4	37	80.4	2	4.3	0	0.0	1	2.2	1	2.2	37	80.4
	연수구	52	6	11.5	51	98.1	1	1.9	0	0.0	0	0.0	3	5.8	43	82.7
	남동구	57	22	38.6	44	77.2	2	3.5	1	1.8	1	1.8	3	5.3	40	70.2
	부평구	54	29	53.7	48	88.9	0	0.0	0	0.0	0	0.0	2	3.7	29	53.7
	계양구	40	15	37.5	33	82.5	0	0.0	1	2.5	1	2.5	4	10.0	26	65.0
	서구	46	15	32.6	40	87.0	2	4.3	0	0.0	0	0.0	4	8.7	31	67.4
	강화군	25	12	48.0	20	80.0	0	0.0	0	0.0	0	0.0	1	4.0	16	64.0
	옹진군	19	5	26.3	18	94.7	0	0.0	0	0.0	0	0.0	0	0.0	15	78.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17	42	35.9	105	89.7	1	0.9	0	0.0	1	0.9	4	3.4	81	69.2
	고졸	207	69	33.3	182	87.9	7	3.4	1	0.5	1	0.5	11	5.3	142	68.6
	전문대졸 이상	69	24	34.8	53	76.8	0	0.0	1	1.4	1	1.4	5	7.2	53	76.8
혼인 상태	혼인 중	278	103	37.1	231	83.1	7	2.5	1	0.4	1	0.4	13	4.7	199	71.6
	미혼·비혼	8	1	12.5	7	87.5	0	0.0	0	0.0	1	12.5	1	12.5	6	75.0
	그 외	107	31	29.0	102	95.3	1	0.9	1	0.9	1	0.9	6	5.6	71	66.4
주택 점유 형태	자가	307	113	36.8	259	84.4	7	2.3	0	0.0	1	0.3	15	4.9	218	71.0
	전세	53	14	26.4	51	96.2	0	0.0	0	0.0	0	0.0	2	3.8	39	73.6
	월세	33	8	24.2	30	90.9	1	3.0	2	6.1	2	6.1	3	9.1	19	57.6
가구 유형	1인가구	90	29	32.2	86	95.6	1	1.1	1	1.1	1	1.1	6	6.7	55	61.1
	부부가구	175	61	34.9	147	84.0	5	2.9	1	0.6	1	0.6	9	5.1	126	72.0
	기타가구	128	45	35.2	107	83.6	2	1.6	0	0.0	1	0.8	5	3.9	95	74.2

### 3) 현재 직업

일에 참여하고 있는 393명을 선별하여 현재의 직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3-45>와 같이 단순기술조립 및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34.6%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서비스판매직(32.3%), 자영업(20.9%), 전문직(6.6%), 경영·관리직 및 사무직(각 2.3%), 농림어업직(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관리직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전문직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사무직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이 큰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서비스판매직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농림어업직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단순기술조립 및 노무직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자영업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표 3-45〉 현재 직업

(단위 : 명, %)

구분	n	경영관리직		전문(기술)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단순기술·조립 및 노무직		자영업		
		n	%	n	%	n	%	n	%	n	%	n	%	n	%	
계	393	9	2.3	26	6.6	9	2.3	127	32.3	4	1.0	136	34.6	82	20.9	
성별	남성	210	7	3.3	23	11.0	6	2.9	28	13.3	4	1.9	96	45.7	46	21.9
	여성	183	2	1.1	3	1.6	3	1.6	99	54.1	0	0.0	40	21.9	36	19.7
연령	60~64세	187	6	3.2	21	11.2	5	2.7	68	36.4	0	0.0	55	29.4	32	17.1
	65~74세	206	3	1.5	5	2.4	4	1.9	59	28.6	4	1.9	81	39.3	50	24.3
지역	중구	31	3	9.7	3	9.7	1	3.2	12	38.7	0	0.0	7	22.6	5	16.1
	동구	23	0	0.0	1	4.3	1	4.3	11	47.8	0	0.0	5	21.7	5	21.7
	미추홀구	46	2	4.3	0	0.0	2	4.3	25	54.3	0	0.0	7	15.2	10	21.7
	연수구	52	1	1.9	3	5.8	3	5.8	22	42.3	0	0.0	9	17.3	14	26.9
	남동구	57	1	1.8	2	3.5	0	0.0	15	26.3	0	0.0	27	47.4	12	21.1
	부평구	54	0	0.0	4	7.4	0	0.0	11	20.4	0	0.0	35	64.8	4	7.4
	계양구	40	0	0.0	5	12.5	1	2.5	16	40.0	0	0.0	9	22.5	9	22.5
	서구	46	1	2.2	7	15.2	0	0.0	7	15.2	0	0.0	18	39.1	13	28.3
	강화군	25	1	4.0	0	0.0	0	0.0	4	16.0	1	4.0	10	40.0	9	36.0
	옹진군	19	0	0.0	1	5.3	1	5.3	4	21.1	3	15.8	9	47.4	1	5.3
최종학력	중졸 이하	117	0	0.0	2	1.7	1	0.9	33	28.2	1	0.9	55	47.0	25	21.4
	고졸	207	2	1.0	9	4.3	5	2.4	74	35.7	3	1.4	72	34.8	42	20.3
	전문대졸 이상	69	7	10.1	15	21.7	3	4.3	20	29.0	0	0.0	9	13.0	15	21.7
혼인상태	혼인 중	278	8	2.9	20	7.2	7	2.5	88	31.7	4	1.4	80	28.8	71	25.5
	미혼·비혼	8	0	0.0	1	12.5	1	12.5	0	0.0	0	0.0	6	75.0	0	0.0
	그 외	107	1	0.9	5	4.7	1	0.9	39	36.4	0	0.0	50	46.7	11	10.3
주택점유형태	자가	307	8	2.6	20	6.5	6	2.0	106	34.5	4	1.3	92	30.0	71	23.1
	전세	53	1	1.9	4	7.5	2	3.8	12	22.6	0	0.0	24	45.3	10	18.9
	월세	33	0	0.0	2	6.1	1	3.0	9	27.3	0	0.0	20	60.6	1	3.0
가구유형	1인가구	90	1	1.1	5	5.6	1	1.1	25	27.8	0	0.0	48	53.3	10	11.1
	부부가구	175	2	1.1	5	2.9	3	1.7	52	29.7	3	1.7	58	33.1	52	29.7
	기타가구	128	6	4.7	16	12.5	5	3.9	50	39.1	1	0.8	30	23.4	20	15.6

#### 4) 현재 종사상 지위

일에 참여하고 있는 393명을 선별하여 현재의 종사상 지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3-46>과 같이 상용근로자가 36.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임시근로자(30.0%), 단독자영업자(16.0%), 일용근로자(10.9%), 고용주(3.1%), 무급가족종사자(2.0%), 기타종사자(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월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로,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계약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 또는 1일 단위인 근로자로,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남성일 때, 60~7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단독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종사자로,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기타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배달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로,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응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표 3-46〉 현재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

구분	n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단독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		
		n	%	n	%	n	%	n	%	n	%	n	%	n	%	
계	393	142	36.1	118	30.0	43	10.9	12	3.1	63	16.0	8	2.0	7	1.8	
성별	남성	210	73	34.8	51	24.3	35	16.7	9	4.3	36	17.1	2	1.0	4	1.9
	여성	183	69	37.7	67	36.6	8	4.4	3	1.6	27	14.8	6	3.3	3	1.6
연령	60~64세	187	96	51.3	37	19.8	18	9.6	8	4.3	20	10.7	4	2.1	4	2.1
	65~74세	206	46	22.3	81	39.3	25	12.1	4	1.9	43	20.9	4	1.9	3	1.5
지역	중구	31	19	61.3	7	22.6	1	3.2	0	0.0	4	12.9	0	0.0	0	0.0
	동구	23	9	39.1	7	30.4	2	8.7	0	0.0	5	21.7	0	0.0	0	0.0
	미추홀구	46	27	58.7	8	17.4	1	2.2	2	4.3	7	15.2	1	2.2	0	0.0
	연수구	52	24	46.2	11	21.2	1	1.9	2	3.8	11	21.2	2	3.8	1	1.9
	남동구	57	13	22.8	22	38.6	9	15.8	2	3.5	10	17.5	0	0.0	1	1.8
	부평구	54	16	29.6	13	24.1	19	35.2	1	1.9	3	5.6	0	0.0	2	3.7
	계양구	40	11	27.5	18	45.0	2	5.0	2	5.0	6	15.0	1	2.5	0	0.0
	서구	46	12	26.1	17	37.0	4	8.7	3	6.5	9	19.6	1	2.2	0	0.0
	강화군	25	4	16.0	7	28.0	4	16.0	0	0.0	7	28.0	3	12.0	0	0.0
	옹진군	19	7	36.8	8	42.1	0	0.0	0	0.0	1	5.3	0	0.0	3	15.8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17	26	22.2	51	43.6	13	11.1	3	2.6	19	16.2	4	3.4	1	0.9
	고졸	207	79	38.2	58	28.0	26	12.6	7	3.4	31	15.0	4	1.9	2	1.0
	전문대졸 이상	69	37	53.6	9	13.0	4	5.8	2	2.9	13	18.8	0	0.0	4	5.8
혼인 상태	혼인 중	278	107	38.5	73	26.3	20	7.2	11	4.0	53	19.1	8	2.9	6	2.2
	미혼·비혼	8	2	25.0	2	25.0	4	50.0	0	0.0	0	0.0	0	0.0	0	0.0
	그 외	107	33	30.8	43	40.2	19	17.8	1	0.9	10	9.3	0	0.0	1	0.9
주택 점유 형태	자가	307	111	36.2	90	29.3	27	8.8	12	3.9	55	17.9	5	1.6	7	2.3
	전세	53	19	35.8	20	37.7	4	7.5	0	0.0	8	15.1	2	3.8	0	0.0
	월세	33	12	36.4	8	24.2	12	36.4	0	0.0	0	0.0	1	3.0	0	0.0
가구 유형	1인가구	90	24	26.7	34	37.8	22	24.4	0	0.0	10	11.1	0	0.0	0	0.0
	부부가구	175	52	29.7	51	29.1	18	10.3	6	3.4	40	22.9	6	3.4	2	1.1
	기타가구	128	66	51.6	33	25.8	3	2.3	6	4.7	13	10.2	2	1.6	5	3.9

## 5) 향후 일 지속 연령

일에 참여하고 있는 393명을 선별하여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살펴본 결과 <표 3-47>과 같이 평균 74.4세까지 일을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 및 월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응답률이 높았다.

&lt;표 3-47&gt; 향후 일 지속 연령

(단위 : 명, %, 세)

구분	n	69세 이하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평균(세)	
		n	%	n	%	n	%	n	%		
계	393	23	5.9	128	32.6	142	36.1	100	25.4	74.4	
성별	남성	210	14	6.7	60	28.6	82	39.0	54	25.7	74.5
	여성	183	9	4.9	68	37.2	60	32.8	46	25.1	74.3
연령	60~64세	187	23	12.3	91	48.7	50	26.7	23	12.3	72.1
	65~74세	206	0	0.0	37	18.0	92	44.7	77	37.4	76.6
지역	중구	31	5	16.1	5	16.1	12	38.7	9	29.0	74.8
	동구	23	1	4.3	9	39.1	7	30.4	6	26.1	74.0
	미추홀구	46	4	8.7	18	39.1	16	34.8	8	17.4	73.3
	연수구	52	2	3.8	21	40.4	22	42.3	7	13.5	73.7
	남동구	57	3	5.3	17	29.8	23	40.4	14	24.6	74.5
	부평구	54	1	1.9	13	24.1	25	46.3	15	27.8	75.0
	계양구	40	3	7.5	11	27.5	11	27.5	15	37.5	75.3
	서구	46	2	4.3	20	43.5	13	28.3	11	23.9	73.9
	강화군	25	1	4.0	6	24.0	8	32.0	10	40.0	75.8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17	4	3.4	30	25.6	41	35.0	42	35.9	75.8
	고졸	207	10	4.8	74	35.7	78	37.7	45	21.7	74.0
	전문대졸 이상	69	9	13.0	24	34.8	23	33.3	13	18.8	73.3
혼인 상태	혼인 중	278	19	6.8	90	32.4	96	34.5	73	26.3	74.4
	미혼·비혼	8	0	0.0	3	37.5	4	50.0	1	12.5	73.8
	그 외	107	4	3.7	35	32.7	42	39.3	26	24.3	74.6
주택 점유 형태	자가	307	15	4.9	105	34.2	109	35.5	78	25.4	74.4
	전세	53	3	5.7	16	30.2	22	41.5	12	22.6	74.5
	월세	33	5	15.2	7	21.2	11	33.3	10	30.3	74.5
가구 유형	1인가구	90	3	3.3	25	27.8	38	42.2	24	26.7	75.0
	부부가구	175	9	5.1	43	24.6	69	39.4	54	30.9	75.2
	기타가구	128	11	8.6	60	46.9	35	27.3	22	17.2	72.9

## 6) 일 미참여 이유

일에 참여하지 않는 226명을 선별하여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표 3-48>과 같이 장애, 부상, 노령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서(50.4%)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2.6%), 가사노동, (손)자녀돌봄과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9.7%), 더 이상 일 할 생각이 없어서(8.8%), 여가 또는 사회활동을 즐기고 싶어서(6.6%), 가족이 반대해서(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률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일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 이상 일 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률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사노동, (손)자녀돌봄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용진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가 또는 사회활동을 즐기고 싶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부상, 노령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응답률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이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48〉 현재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n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구직 중)		더 이상 일 할 생각이 없어서		가사노동, (손)자녀 돌봄과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여가 또는 사회활동을 즐기고 싶어서		장애, 부상, 노령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서		가족이 반대해서		
		n	%	n	%	n	%	n	%	n	%	n	%	
계	226	51	22.6	20	8.8	22	9.7	15	6.6	114	50.4	4	1.8	
성별	남성	91	21	23.1	9	9.9	0	0.0	3	3.3	58	63.7	0	0.0
	여성	135	30	22.2	11	8.1	22	16.3	12	8.9	56	41.5	4	3.0
연령	60~64세	77	16	20.8	3	3.9	9	11.7	10	13.0	38	49.4	1	1.3
	65~74세	149	35	23.5	17	11.4	13	8.7	5	3.4	76	51.0	3	2.0
지역	중구	14	4	28.6	2	14.3	2	14.3	0	0.0	6	42.9	0	0.0
	동구	11	6	54.5	1	9.1	0	0.0	0	0.0	4	36.4	0	0.0
	미추홀구	33	12	36.4	3	9.1	0	0.0	1	3.0	17	51.5	0	0.0
	연수구	17	7	41.2	5	29.4	1	5.9	0	0.0	4	23.5	0	0.0
	남동구	28	2	7.1	0	0.0	3	10.7	0	0.0	21	75.0	2	7.1
	부평구	33	10	30.3	1	3.0	4	12.1	5	15.2	12	36.4	1	3.0
	계양구	28	1	3.6	3	10.7	3	10.7	3	10.7	18	64.3	0	0.0
	서구	42	6	14.3	4	9.5	7	16.7	4	9.5	20	47.6	1	2.4
	강화군	16	0	0.0	1	6.3	1	6.3	2	12.5	12	75.0	0	0.0
	옹진군	4	3	75.0	0	0.0	1	25.0	0	0.0	0	0.0	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96	19	19.8	5	5.2	8	8.3	3	3.1	59	61.5	2	2.1
	고졸	102	24	23.5	9	8.8	12	11.8	9	8.8	46	45.1	2	2.0
	전문대졸 이상	28	8	28.6	6	21.4	2	7.1	3	10.7	9	32.1	0	0.0
혼인 상태	혼인 중	132	32	24.2	13	9.8	21	15.9	15	11.4	48	36.4	3	2.3
	미혼·비혼	18	2	11.1	0	0.0	0	0.0	0	0.0	16	88.9	0	0.0
	그 외	76	17	22.4	7	9.2	1	1.3	0	0.0	50	65.8	1	1.3
주택 점유 형태	자가	147	36	24.5	13	8.8	19	12.9	15	10.2	60	40.8	4	2.7
	전세	26	7	26.9	2	7.7	2	7.7	0	0.0	15	57.7	0	0.0
	월세	53	8	15.1	5	9.4	1	1.9	0	0.0	39	73.6	0	0.0
가구 유형	1인가구	83	15	18.1	6	7.2	0	0.0	0	0.0	61	73.5	1	1.2
	부부가구	90	26	28.9	9	10.0	12	13.3	11	12.2	30	33.3	2	2.2
	기타가구	53	10	18.9	5	9.4	10	18.9	4	7.5	23	43.4	1	1.9

## 7) 향후 일자리 참여의향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 및 참여 희망 일자리 유형을 살펴본 결과 <표 3-49>와 같이 63.5%는 참여의사가 있었으며, 36.5%는 참여의사가 없었다. 참여 의사가 있는 사업 유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시장형사업단이 55.1%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취업알선형(53.6%), 사회서비스형 일자리(52.7%), 공익형일자리(4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29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며 월30시간(주2~3회, 일 3시간 이내)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써 공익형일자리 참여 희망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월 63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희망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계약에 따라 상이하지만 월 29만원 이상 활동비를 받으며 일 최대 8시간 이내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일자리인 시장형사업단 참여 희망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 4~5회, 1일 9시간 가까이 일하는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등 기업에 취업하는 일자리에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상기 모든 일자리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률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에 거주할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49〉 향후 일자리 참여의향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분	n	공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모든 일자리 일할 생각 없음		
		n	%	n	%	n	%	n	%	n	%	
계	619	265	42.8	326	52.7	341	55.1	332	53.6	226	36.5	
성별	남성	301	113	37.5	141	46.8	146	48.5	156	51.8	128	42.5
	여성	318	152	47.8	185	58.2	195	61.3	176	55.3	98	30.8
연령	60~64세	264	84	31.8	124	47.0	128	48.5	128	48.5	115	43.6
	65~74세	355	181	51.0	202	56.9	213	60.0	204	57.5	111	31.3
지역	중구	45	15	33.3	18	40.0	24	53.3	23	51.1	18	40.0
	동구	34	15	44.1	24	70.6	28	82.4	26	76.5	3	8.8
	미추홀구	79	19	24.1	36	45.6	39	49.4	38	48.1	30	38.0
	연수구	69	29	42.0	34	49.3	38	55.1	30	43.5	27	39.1
	남동구	85	44	51.8	49	57.6	46	54.1	51	60.0	31	36.5
	부평구	87	61	70.1	59	67.8	62	71.3	60	69.0	18	20.7
	계양구	68	27	39.7	32	47.1	29	42.6	31	45.6	33	48.5
	서구	88	30	34.1	42	47.7	41	46.6	42	47.7	39	44.3
	강화군	41	16	39.0	18	43.9	18	43.9	19	46.3	21	51.2
옹진군	23	9	39.1	14	60.9	16	69.6	12	52.2	6	26.1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24	58.2	135	63.4	137	64.3	121	56.8	59	27.7
	고졸	309	115	37.2	152	49.2	165	53.4	174	56.3	119	38.5
	전문대졸 이상	97	26	26.8	39	40.2	39	40.2	37	38.1	48	49.5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168	41.0	208	50.7	213	52.0	207	50.5	158	38.5
	미혼·비혼	26	11	42.3	13	50.0	13	50.0	13	50.0	13	50.0
	그 외	183	86	47.0	105	57.4	115	62.8	112	61.2	55	30.1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196	43.2	243	53.5	253	55.7	241	53.1	163	35.9
	전세	79	30	38.0	38	48.1	42	53.2	47	59.5	26	32.9
	월세	86	39	45.3	45	52.3	46	53.5	44	51.2	37	43.0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83	48.0	93	53.8	102	59.0	101	58.4	59	34.1
	부부가구	265	128	48.3	151	57.0	156	58.9	146	55.1	90	34.0
	기타가구	181	54	29.8	82	45.3	83	45.9	85	47.0	77	42.5

## 6. 가족

### 1) 가구주 여부

〈표 3-50〉과 같이 한 가구 내에서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는 생계책임자로서 가구주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66.7%는 가구주였으며, 33.3%는 가구원이었다. 가구주의 응답률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용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높았다.

〈표 3-50〉 가구주 여부

(단위 : 명, %)

구분		n	가구주		가구원	
			n	%	n	%
계		619	413	66.7	206	33.3
성별	남성	301	286	95.0	15	5.0
	여성	318	127	39.9	191	60.1
연령	60~64세	264	172	65.2	92	34.8
	65~74세	355	241	67.9	114	32.1
지역	중구	45	32	71.1	13	28.9
	동구	34	24	70.6	10	29.4
	미추홀구	79	52	65.8	27	34.2
	연수구	69	50	72.5	19	27.5
	남동구	85	58	68.2	27	31.8
	부평구	87	59	67.8	28	32.2
	계양구	68	39	57.4	29	42.6
	서구	88	52	59.1	36	40.9
	강화군	41	28	68.3	13	31.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30	61.0	83	39.0
	고졸	309	203	65.7	106	34.3
	전문대졸 이상	97	80	82.5	17	17.5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215	52.4	195	47.6
	미혼·비혼	26	26	100.0	0	0.0
	그 외	183	172	94.0	11	6.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285	62.8	169	37.2
	전세	79	58	73.4	21	26.6
	월세	86	70	81.4	16	18.6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73	100.0	0	0.0
	부부가구	265	134	50.6	131	49.4
	기타가구	181	106	58.6	75	41.4

## 2) 동거가구원 유형

혈족을 기준으로 동거 가구원을 살펴본 결과 <표 3-51>과 같이 배우자(66.2%)와 동거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자녀(27.3%), 손자녀 및 부모(각 2.1%), 자녀의 배우자(1.6%), 기타(0.2%)였고, 동거가구원이 없는 단독가구는 27.9%였다.

&lt;표 3-51&gt; 동거가구원 유형

(단위 : 명, %, “있음”의 응답률)

구분	n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부모 (양가)		기타		모두 없음		
		n	%	n	%	n	%	n	%	n	%	n	%	n	%	
계	619	410	66.2	169	27.3	10	1.6	13	2.1	13	2.1	1	0.2	173	27.9	
성별	남성	301	195	64.8	74	24.6	5	1.7	5	1.7	9	3.0	1	0.3	99	32.9
	여성	318	215	67.6	95	29.9	5	1.6	8	2.5	4	1.3	0	0.0	74	23.3
연령	60~64세	264	175	66.3	104	39.4	2	0.8	2	0.8	8	3.0	0	0.0	70	26.5
	65~74세	355	235	66.2	65	18.3	8	2.3	11	3.1	5	1.4	1	0.3	103	29.0
지역	중구	45	30	66.7	13	28.9	1	2.2	0	0.0	1	2.2	0	0.0	12	26.7
	동구	34	22	64.7	9	26.5	1	2.9	1	2.9	3	8.8	0	0.0	7	20.6
	미추홀구	79	49	62.0	20	25.3	1	1.3	2	2.5	1	1.3	1	1.3	24	30.4
	연수구	69	48	69.6	23	33.3	0	0.0	1	1.4	1	1.4	0	0.0	16	23.2
	남동구	85	50	58.8	21	24.7	0	0.0	1	1.2	1	1.2	0	0.0	29	34.1
	부평구	87	54	62.1	17	19.5	0	0.0	1	1.1	0	0.0	0	0.0	31	35.6
	계양구	68	44	64.7	18	26.5	2	2.9	2	2.9	0	0.0	0	0.0	21	30.9
	서구	88	68	77.3	35	39.8	4	4.5	4	4.5	2	2.3	0	0.0	16	18.2
	강화군	41	28	68.3	1	2.4	0	0.0	0	0.0	3	7.3	0	0.0	13	31.7
	옹진군	23	17	73.9	12	52.2	1	4.3	1	4.3	1	4.3	0	0.0	4	17.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27	59.6	50	23.5	5	2.3	7	3.3	5	2.3	0	0.0	66	31.0
	고졸	309	210	68.0	81	26.2	3	1.0	4	1.3	7	2.3	1	0.3	85	27.5
	전문대졸 이상	97	73	75.3	38	39.2	2	2.1	2	2.1	1	1.0	0	0.0	22	22.7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410	100.0	136	33.2	6	1.5	8	2.0	9	2.2	1	0.2	0	0.0
	미혼·비혼	26	0	0.0	0	0.0	0	0.0	0	0.0	1	3.8	0	0.0	25	96.2
	그 외	183	0	0.0	33	18.0	4	2.2	5	2.7	3	1.6	0	0.0	148	80.9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344	75.8	139	30.6	8	1.8	10	2.2	11	2.4	1	0.2	83	18.3
	전세	79	45	57.0	19	24.1	2	2.5	3	3.8	1	1.3	0	0.0	29	36.7
	월세	86	21	24.4	11	12.8	0	0.0	0	0.0	1	1.2	0	0.0	61	70.9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73	100.0
	부부가구	265	265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가구	181	145	80.1	169	93.4	10	5.5	13	7.2	13	7.2	1	0.6	0	0.0

배우자와 동거한다는 응답률은 혼인 중에 해당되며,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자녀와 동거한다는 응답률은 기타가구에 해당되며,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자녀의 배우자와 동거한다는 응답률은 기타가구에 해당되며,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손자녀와 동거한다는 응답은 기타가구에 해당하며,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부모와 동거한다는 응답은 기타가구에 해당하며,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중졸이하 및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자가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기타가구원과 동거한다는 응답은 1개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혼인 중인 자가를 보유한 65~74세 고졸 남성이었다.

동거가구원이 없다는 응답자의 특성은 1인가구의 응답자 특성과 같다.

### 3) 동거가구원 수

동거가구원의 수를 살펴본 결과 <표 3-52>와 같이 평균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가구원이 2명 이상인 응답자는 모두 기타가구에 속한다.

동거가구원이 1명인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동거가구원이 2명인 응답률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동거가구원이 3명인 응답률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동거가구원이 4명 이상인 집단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52〉 동거가구원 수

(단위 : 명, %)

구분	n	없음		1명		2명		3명		4명 이상		평균 (명)	
		n	%	n	%	n	%	n	%	n	%		
계	619	173	27.9	291	47.0	109	17.6	35	5.7	11	1.8	1.1	
성별	남성	301	99	32.9	126	41.9	48	15.9	19	6.3	9	3.0	1.1
	여성	318	74	23.3	165	51.9	61	19.2	16	5.0	2	0.6	1.1
연령	60~64세	264	70	26.5	99	37.5	66	25.0	23	8.7	6	2.3	1.2
	65~74세	355	103	29.0	192	54.1	43	12.1	12	3.4	5	1.4	0.9
지역	중구	45	12	26.7	21	46.7	8	17.8	4	8.9	0	0.0	1.1
	동구	34	7	20.6	19	55.9	6	17.6	2	5.9	0	0.0	1.1
	미추홀구	79	24	30.4	38	48.1	10	12.7	5	6.3	2	2.5	1.0
	연수구	69	16	23.2	32	46.4	17	24.6	4	5.8	0	0.0	1.1
	남동구	85	29	34.1	38	44.7	17	20.0	1	1.2	0	0.0	0.9
	부평구	87	31	35.6	41	47.1	13	14.9	2	2.3	0	0.0	0.8
	계양구	68	21	30.9	32	47.1	8	11.8	5	7.4	2	2.9	1.1
	서구	88	16	18.2	38	43.2	20	22.7	8	9.1	6	6.8	1.4
	강화군	41	13	31.7	24	58.5	3	7.3	1	2.4	0	0.0	0.8
	옹진군	23	4	17.4	8	34.8	7	30.4	3	13.0	1	4.3	1.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66	31.0	107	50.2	28	13.1	9	4.2	3	1.4	1.0
	고졸	309	85	27.5	146	47.2	57	18.4	17	5.5	4	1.3	1.1
	전문대졸 이상	97	22	22.7	38	39.2	24	24.7	9	9.3	4	4.1	1.3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0	0.0	265	64.6	103	25.1	32	7.8	10	2.4	1.5
	미혼·비혼	26	25	96.2	1	3.8	0	0.0	0	0.0	0	0.0	0.0
	그 외	183	148	80.9	25	13.7	6	3.3	3	1.6	1	0.5	0.3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83	18.3	243	53.5	90	19.8	27	5.9	11	2.4	1.2
	전세	79	29	36.7	31	39.2	12	15.2	7	8.9	0	0.0	1.0
	월세	86	61	70.9	17	19.8	7	8.1	1	1.2	0	0.0	0.4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73	100.0	0	0.0	0	0.0	0	0.0	0	0.0	0.0
	부부가구	265	0	0.0	265	100.0	0	0.0	0	0.0	0	0.0	1.0
	기타가구	181	0	0.0	26	14.4	109	60.2	35	19.3	11	6.1	2.2

#### 4) 비동거가구원 유형

혈족을 기준으로 비동거가구원을 살펴본 결과 <표 3-53>과 같이 자녀(80.9%)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자녀의 배우자(67.5%), 손자녀(58.6%), 부모(20.5%), 조부모(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동거가구원이 없다는 응답은 13.9%였다.

<표 3-53> 비동거가구원 유형

(단위 : 명, %, “있음”의 응답률)

구분	n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부모(양가)		조부모(양가)		모두 없음		
		n	%	n	%	n	%	n	%	n	%	n	%	
계	619	501	80.9	418	67.5	363	58.6	127	20.5	2	0.3	86	13.9	
성별	남성	301	224	74.4	190	63.1	162	53.8	67	22.3	0	0.0	54	17.9
	여성	318	277	87.1	228	71.7	201	63.2	60	18.9	2	0.6	32	10.1
연령	60~64세	264	181	68.6	129	48.9	99	37.5	100	37.9	0	0.0	51	19.3
	65~74세	355	320	90.1	289	81.4	264	74.4	27	7.6	2	0.6	35	9.9
지역	중구	45	35	77.8	26	57.8	21	46.7	14	31.1	0	0.0	3	6.7
	동구	34	32	94.1	29	85.3	22	64.7	5	14.7	0	0.0	2	5.9
	미추홀구	79	63	79.7	54	68.4	52	65.8	16	20.3	0	0.0	14	17.7
	연수구	69	54	78.3	44	63.8	34	49.3	9	13.0	0	0.0	11	15.9
	남동구	85	63	74.1	52	61.2	47	55.3	22	25.9	2	2.4	16	18.8
	부평구	87	76	87.4	60	69.0	51	58.6	17	19.5	0	0.0	8	9.2
	계양구	68	59	86.8	49	72.1	42	61.8	15	22.1	0	0.0	5	7.4
	서구	88	68	77.3	58	65.9	53	60.2	19	21.6	0	0.0	15	17.0
	강화군	41	36	87.8	35	85.4	32	78.0	9	22.0	0	0.0	4	9.8
옹진군	23	15	65.2	11	47.8	9	39.1	1	4.3	0	0.0	8	34.8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81	85.0	155	72.8	146	68.5	27	12.7	2	0.9	26	12.2
	고졸	309	245	79.3	204	66.0	175	56.6	68	22.0	0	0.0	49	15.9
	전문대졸 이상	97	75	77.3	59	60.8	42	43.3	32	33.0	0	0.0	11	11.3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347	84.6	292	71.2	253	61.7	97	23.7	2	0.5	42	10.2
	미혼·비혼	26	0	0.0	0	0.0	0	0.0	3	11.5	0	0.0	23	88.5
	그 외	183	154	84.2	126	68.9	110	60.1	27	14.8	0	0.0	21	11.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385	84.8	326	71.8	288	63.4	104	22.9	2	0.4	46	10.1
	전세	79	63	79.7	49	62.0	39	49.4	14	17.7	0	0.0	10	12.7
	월세	86	53	61.6	43	50.0	36	41.9	9	10.5	0	0.0	30	34.9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34	77.5	111	64.2	97	56.1	23	13.3	0	0.0	32	18.5
	부부가구	265	261	98.5	228	86.0	206	77.7	57	21.5	2	0.8	3	1.1
	기타가구	181	106	58.6	79	43.6	60	33.1	47	26.0	0	0.0	51	28.2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자녀의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손자녀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비동거가구원이 없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이러 때, 월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 5) 비동거가구원 수

비동거가구원의 수를 살펴본 결과, <표 3-54>와 같이 평균 4.4명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경우 응답자가 2명으로, 평균값이 소수 2자리 이하로 나타나 본 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비동거 자녀는 평균 1.5명으로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 및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 및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수가 많았다.

비동거 자녀의 배우자는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수가 많았다.

비동거 손자녀는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 및 강화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수가 많았다.

비동거 부모는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 및 남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 및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수가 많았다.

〈표 3-54〉 평균 비동거가구원 수

(단위 : 명)

구분		n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부모(양가)	합계
계		619	1.5	1.2	1.5	0.3	4.4
성별	남성	301	1.3	1.1	1.3	0.3	4.0
	여성	318	1.6	1.3	1.6	0.2	4.7
연령	60~64세	264	1.1	0.7	0.8	0.5	3.1
	65~74세	355	1.7	1.5	2.0	0.1	5.3
지역	중구	45	1.5	1.1	1.4	0.4	4.3
	동구	34	1.8	1.6	2.0	0.2	5.6
	미추홀구	79	1.5	1.2	1.6	0.3	4.6
	연수구	69	1.4	1.1	1.3	0.2	3.9
	남동구	85	1.3	1.1	1.5	0.4	4.3
	부평구	87	1.5	1.1	1.3	0.2	4.2
	계양구	68	1.5	1.2	1.2	0.3	4.2
	서구	88	1.3	1.1	1.4	0.3	4.1
	강화군	41	1.7	1.4	2.0	0.3	5.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5	1.3	1.8	0.2	4.8
	고졸	309	1.4	1.2	1.4	0.3	4.3
	전문대졸 이상	97	1.3	0.9	1.0	0.4	3.6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1.5	1.2	1.6	0.3	4.7
	미혼·비혼	26	0.0	0.0	0.0	0.2	0.2
	그 외	183	1.5	1.1	1.4	0.2	4.1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1.5	1.3	1.6	0.3	4.7
	전세	79	1.5	1.0	1.2	0.2	3.9
	월세	86	1.0	0.7	0.9	0.1	2.7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4	1.1	1.3	0.2	4.0
	부부가구	265	1.9	1.6	2.1	0.3	6.0
	기타가구	181	0.8	0.6	0.6	0.3	2.3

### 6) 전체가구원 유형

동거가구원과 비동거가구원을 합하여 전체가구원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표 3-55〉와 같이 자녀(92.9%)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자녀의 배우자(68.3%), 배우자(66.2%), 손자녀(59.8%), 부모(22.3%), 조부모(0.3%), 기타(0.2%)였으며, 가구원이 없다는 응답은 5.2%였다.

〈표 3-55〉 전체 가구원 유형

(단위 : 명, %, “있음”의 응답률)

구분	n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부모 (양가)		조부모 (양가)		기타		모두 없음		
		n	%	n	%	n	%	n	%	n	%	n	%	n	%	n	%	
계	619	410	66.2	575	92.9	423	68.3	370	59.8	138	22.3	2	0.3	1	0.2	32	5.2	
성별	남성	301	195	64.8	265	88.0	194	64.5	166	55.1	75	24.9	0	0.0	1	0.3	27	9.0
	여성	318	215	67.6	310	97.5	229	72.0	204	64.2	63	19.8	2	0.6	0	0.0	5	1.6
연령	60~64세	264	175	66.3	236	89.4	130	49.2	100	37.9	106	40.2	0	0.0	0	0.0	19	7.2
	65~74세	355	235	66.2	339	95.5	293	82.5	270	76.1	32	9.0	2	0.6	1	0.3	13	3.7
지역	중구	45	30	66.7	41	91.1	26	57.8	21	46.7	15	33.3	0	0.0	0	0.0	0	0.0
	동구	34	22	64.7	34	100.0	29	85.3	23	67.6	8	23.5	0	0.0	0	0.0	0	0.0
	미추홀구	79	49	62.0	72	91.1	54	68.4	52	65.8	17	21.5	0	0.0	1	1.3	7	8.9
	연수구	69	48	69.6	65	94.2	44	63.8	34	49.3	10	14.5	0	0.0	0	0.0	3	4.3
	남동구	85	50	58.8	76	89.4	52	61.2	48	56.5	23	27.1	2	2.4	0	0.0	8	9.4
	부평구	87	54	62.1	79	90.8	60	69.0	51	58.6	17	19.5	0	0.0	0	0.0	4	4.6
	계양구	68	44	64.7	65	95.6	51	75.0	44	64.7	15	22.1	0	0.0	0	0.0	3	4.4
	서구	88	68	77.3	85	96.6	60	68.2	55	62.5	21	23.9	0	0.0	0	0.0	3	3.4
	강화군	41	28	68.3	36	87.8	35	85.4	32	78.0	10	24.4	0	0.0	0	0.0	3	7.3
	옹진군	23	17	73.9	22	95.7	12	52.2	10	43.5	2	8.7	0	0.0	0	0.0	1	4.3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27	59.6	198	93.0	157	73.7	150	70.4	31	14.6	2	0.9	0	0.0	12	5.6
	고졸	309	210	68.0	285	92.2	207	67.0	178	57.6	74	23.9	0	0.0	1	0.3	17	5.5
	전문대졸 이상	97	73	75.3	92	94.8	59	60.8	42	43.3	33	34.0	0	0.0	0	0.0	3	3.1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410	100.0	406	99.0	296	72.2	257	62.7	104	25.4	2	0.5	1	0.2	0	0.0
	미혼·비혼	26	0	0.0	0	0.0	0	0.0	0	0.0	4	15.4	0	0.0	0	0.0	22	84.6
	그 외	183	0	0.0	169	92.3	127	69.4	113	61.7	30	16.4	0	0.0	0	0.0	10	5.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344	75.8	441	97.1	331	72.9	294	64.8	113	24.9	2	0.4	1	0.2	5	1.1
	전세	79	45	57.0	75	94.9	49	62.0	40	50.6	15	19.0	0	0.0	0	0.0	2	2.5
	월세	86	21	24.4	59	68.6	43	50.0	36	41.9	10	11.6	0	0.0	0	0.0	25	29.1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0	0.0	134	77.5	111	64.2	97	56.1	23	13.3	0	0.0	0	0.0	32	18.5
	부부가구	265	265	100.0	261	98.5	228	86.0	206	77.7	57	21.5	2	0.8	0	0.0	0	0.0
	기타가구	181	145	80.1	180	99.4	84	46.4	67	37.0	58	32.0	0	0.0	1	0.6	0	0.0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자녀가 있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자녀의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손자녀가 있다는 응답률은 남성일 때,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부모가 있다는 응답률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조부모와 기타 가구원이 있다는 응답의 특성은 앞서 동거 및 비동거가구원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가구원이 없다는 응답률은 모두 1인가구로,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 7) 전체가구원 수

동거가구원과 비동거가구원을 합한 전체가구원의 수를 살펴본 결과, <표 3-56>과 같이 평균 가구원 수는 5.4명으로 나타났다. 구간에 따라 보면, 7~9명이 26.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3~4명(21.8%), 5~6명(21.6%), 1~2명(14.4%), 10명 이상(10.5%), 없음(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전체가구원 수가 다른 집단보다 많았다.

전체가구원 수가 1~2명인 응답률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많았다.

전체가구원 수가 3~4명인 응답률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용진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많았다.

전체가구원 수가 5~6명인 응답률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계양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전체가구원 수가 7~9명인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많았다.

전체가구원 수가 10명 이상인 응답률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많았다.

〈표 3-56〉 전체가구원 수

(단위 : 명, %, 명)

구분	n	없음		1~2명		3~4명		5~6명		7~9명		10명 이상		평균 (명)	
		n	%	n	%	n	%	n	%	n	%	n	%		
계	619	32	5.2	89	14.4	135	21.8	134	21.6	164	26.5	65	10.5	5.4	
성별	남성	301	27	9.0	46	15.3	63	20.9	69	22.9	70	23.3	26	8.6	5.0
	여성	318	5	1.6	43	13.5	72	22.6	65	20.4	94	29.6	39	12.3	5.8
연령	60~64세	264	19	7.2	54	20.5	75	28.4	53	20.1	49	18.6	14	5.3	4.4
	65~74세	355	13	3.7	35	9.9	60	16.9	81	22.8	115	32.4	51	14.4	6.2
지역	중구	45	0	0.0	11	24.4	11	24.4	8	17.8	10	22.2	5	11.1	5.4
	동구	34	0	0.0	3	8.8	6	17.6	7	20.6	10	29.4	8	23.5	6.7
	미추홀구	79	7	8.9	8	10.1	10	12.7	21	26.6	28	35.4	5	6.3	5.6
	연수구	69	3	4.3	10	14.5	19	27.5	15	21.7	15	21.7	7	10.1	5.1
	남동구	85	8	9.4	16	18.8	19	22.4	11	12.9	17	20.0	14	16.5	5.2
	부평구	87	4	4.6	17	19.5	17	19.5	21	24.1	21	24.1	7	8.0	5.0
	계양구	68	3	4.4	5	7.4	18	26.5	20	29.4	18	26.5	4	5.9	5.3
	서구	88	3	3.4	12	13.6	23	26.1	19	21.6	23	26.1	8	9.1	5.5
	강화군	41	3	7.3	2	4.9	5	12.2	10	24.4	16	39.0	5	12.2	6.2
	옹진군	23	1	4.3	5	21.7	7	30.4	2	8.7	6	26.1	2	8.7	5.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2	5.6	30	14.1	33	15.5	47	22.1	65	30.5	26	12.2	5.8
	고졸	309	17	5.5	42	13.6	78	25.2	61	19.7	79	25.6	32	10.4	5.4
	전문대졸 이상	97	3	3.1	17	17.5	24	24.7	26	26.8	20	20.6	7	7.2	4.9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0	0.0	43	10.5	91	22.2	92	22.4	128	31.2	56	13.7	6.2
	미혼·비혼	26	22	84.6	4	15.4	0	0.0	0	0.0	0	0.0	0	0.0	0.2
	그 외	183	10	5.5	42	23.0	44	24.0	42	23.0	36	19.7	9	4.9	4.4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5	1.1	60	13.2	92	20.3	99	21.8	139	30.6	59	13.0	5.9
	전세	79	2	2.5	15	19.0	23	29.1	21	26.6	13	16.5	5	6.3	4.9
	월세	86	25	29.1	14	16.3	20	23.3	14	16.3	12	14.0	1	1.2	3.1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32	18.5	30	17.3	35	20.2	37	21.4	30	17.3	9	5.2	4.0
	부부가구	265	0	0.0	18	6.8	38	14.3	57	21.5	106	40.0	46	17.4	7.0
	기타가구	181	0	0.0	41	22.7	62	34.3	40	22.1	28	15.5	10	5.5	4.5

### 8) 자녀의 사회적지지

〈표 3-57〉과 같이 자녀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 2.95점이었다. 여성일 때, 65~74세 일 때, 중구·동구·강화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자녀의 사회적지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7〉 자녀의 사회적지지

(단위 : 명, 점/4점 만점)

구분		n	자녀에게 걱정거리 털어놓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 받고자 자녀에게 의지하기	자녀가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음*	자녀가 나를 비난하지 않음*	계
계		575	2.39	1.93	3.68	3.78	2.95
성별	남성	265	2.17	1.75	3.69	3.75	2.84
	여성	310	2.59	2.08	3.67	3.81	3.04
연령	60~64세	236	2.43	1.91	3.65	3.78	2.94
	65~74세	339	2.37	1.94	3.70	3.78	2.95
지역	중구	41	2.46	1.88	3.76	3.93	3.01
	동구	34	2.44	1.88	3.82	3.91	3.01
	미추홀구	72	2.46	2.07	3.47	3.74	2.93
	연수구	65	2.68	1.95	3.80	3.98	3.10
	남동구	76	2.22	1.84	3.63	3.72	2.86
	부평구	79	2.30	1.92	3.67	3.72	2.91
	계양구	65	2.35	1.98	3.68	3.69	2.93
	서구	85	2.29	1.87	3.64	3.67	2.87
	강화군	36	2.44	2.14	3.69	3.75	3.01
	옹진군	22	2.45	1.59	3.95	4.00	3.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98	2.48	2.08	3.66	3.75	2.99
	고졸	285	2.37	1.89	3.67	3.78	2.93
	전문대졸 이상	92	2.26	1.72	3.75	3.85	2.89
혼인 상태	혼인 중	406	2.44	1.92	3.67	3.79	2.95
	그 외	169	2.29	1.94	3.70	3.77	2.93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41	2.43	1.95	3.67	3.79	2.96
	전세	75	2.37	1.91	3.71	3.77	2.94
	월세	59	2.12	1.81	3.68	3.75	2.94
가구 유형	1인가구	134	2.22	1.89	3.71	3.73	2.89
	부부가구	261	2.41	1.92	3.69	3.81	2.96
	기타가구	180	2.49	1.98	3.63	3.77	2.97

주: \*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다는 의미가 되도록 역채점 한 값임.

## 9) 배우자의 사회적지지

〈표 3-58〉과 같이 배우자의 사회적지지는 평균 3.16점이었다.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배우자의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8〉 배우자의 사회적지지

(단위 : 명, 점/4점 만점)

구분		n	배우자에게 걱정거리 털어놓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 받고자 배우자에게 의지하기	배우자가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음*	배우자가 나를 비난하지 않음*	계
계		410	2.87	2.52	3.54	3.72	3.16
성별	남성	195	2.83	2.48	3.56	3.68	3.14
	여성	215	2.91	2.56	3.53	3.75	3.19
연령	60~64세	175	2.89	2.54	3.53	3.73	3.17
	65~74세	235	2.86	2.51	3.55	3.71	3.16
지역	중구	30	2.97	2.57	3.73	3.93	3.00
	동구	22	3.09	2.59	3.82	3.95	3.36
	미추홀구	49	3.00	2.76	3.31	3.59	3.16
	연수구	48	3.02	2.54	3.67	3.88	3.28
	남동구	50	2.88	2.56	3.34	3.54	3.08
	부평구	54	2.67	2.44	3.59	3.67	3.09
	계양구	44	2.70	2.39	3.55	3.64	3.07
	서구	68	2.82	2.41	3.51	3.68	3.11
	강화군	28	2.79	2.57	3.54	3.71	3.15
옹진군	17	3.06	2.47	3.76	4.00	3.32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27	2.83	2.52	3.48	3.68	3.13
	고졸	210	2.94	2.59	3.55	3.74	3.20
	전문대졸 이상	73	2.75	2.33	3.64	3.73	3.11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	2.91	2.62	3.54	3.72	3.16
	전세	21	2.76	2.43	3.58	3.71	3.21
	월세	265	2.88	2.51	3.48	3.71	3.10
가구 유형	부부가구	261	2.41	1.92	3.55	3.73	3.17
	기타가구	180	2.49	1.98	3.54	3.70	3.16

주: \*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다는 의미가 되도록 역채점 한 값임.

## 7. 사회적 관계

### 1) 지인의 사회적지지

〈표 3-59〉와 같이 사적인 친교활동을 하는 지인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는 평균 2.81점이 었다.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지인의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9〉 지인의 사회적지지

(단위 : 명, 점/4점 만점)

구분		n	지인에게 걱정거리 털어놓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 받고자 지인에게 의지하기	지인이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음*	지인이 나를 비난하지 않음*	계
계		619	2.07	1.65	3.72	3.78	2.81
성별	남성	301	1.95	1.55	3.70	3.75	2.74
	여성	318	2.19	1.75	3.74	3.81	2.87
연령	60~64세	264	2.08	1.68	3.68	3.74	2.80
	65~74세	355	2.06	1.63	3.75	3.81	2.81
지역	중구	45	2.36	1.53	3.87	3.89	2.91
	동구	34	2.26	1.47	3.82	3.91	2.87
	미추홀구	79	2.35	1.62	3.86	3.87	2.93
	연수구	69	2.65	1.64	3.83	3.86	2.99
	남동구	85	1.95	1.76	3.54	3.66	2.73
	부평구	87	1.83	1.66	3.68	3.81	2.74
	계양구	68	1.74	1.56	3.69	3.72	2.68
	서구	88	1.77	1.75	3.59	3.65	2.69
	강화군	41	1.83	1.68	3.76	3.73	2.75
	옹진군	23	2.43	1.65	3.87	3.96	2.98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2.06	1.72	3.72	3.78	2.82
	고졸	309	2.08	1.63	3.71	3.78	2.78
	전문대졸 이상	97	2.06	1.54	3.76	3.80	2.79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2.06	1.64	3.71	3.77	2.79
	미혼·비혼	26	1.81	1.54	3.73	3.77	2.71
	그 외	26	2.13	1.68	3.75	3.82	2.8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183	2.09	1.67	3.72	3.78	2.82
	전세	454	2.22	1.67	3.72	3.76	2.84
	월세	79	1.81	1.51	3.76	3.79	2.72
가구 유형	1인가구	86	2.03	1.65	3.75	3.78	2.80
	부부가구	173	2.03	1.63	3.72	3.77	2.79
	기타가구	265	2.17	1.67	3.70	3.80	2.83

주: \*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다는 의미가 되도록 역채점 한 값임.

## 2) 사회적관계망

〈표 3-50〉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알아본 결과이다.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률은 51.1%였으며, 그 수는 평균 0.9명이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응답률은 48.9%로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률은 85.5%였으며, 그 수는 평균 1.7명이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응답률은 14.5%로,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률은 96.3%였으며, 그 수는 평균 2.8명이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응답률은 3.7%로,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부평구 및 옹진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 3) 외로움

〈표 3-50〉은 Vincenzi와 Grabosky(1987)이 개발하고 이희령(1997)이 변안한 ESLI(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중 정서적 외로움 7문항을 활용하여 외로움을 조사한 결과로, 외로움은 평균 1.82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나는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2.37점)였으며, 그 뒤를 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다(1.95점), 나는 사회집단이나 조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85점), 사람들은 나를 흥미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1.73점), 나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낸다(1.71점),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공통 화제가 별로 없다(1.70점), 나는 오늘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1.42점)의 순이었다.

남성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외로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0〉 사회적관계망

(단위 : 명, %)

구분	n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아이 상대가 필요한 경우					
		없음		있음		평균 (명)	없음		있음		평균 (명)	없음		있음		평균 (명)			
		n	%	n	%		n	%	n	%		n	%						
계	619	303	48.9	316	51.1	0.9	90	14.5	529	85.5	1.7	23	3.7	596	96.3	2.8			
성별	남성	301	153	50.8	148	49.2	0.8	55	18.3	246	81.7	1.6	14	4.7	287	95.3	2.7		
	여성	318	150	47.2	168	52.8	0.9	35	11.0	283	89.0	1.8	9	2.8	309	97.2	2.9		
연령	60~64세	264	139	52.7	125	47.3	0.8	41	15.5	223	84.5	1.7	9	3.4	255	96.6	2.8		
	65~74세	355	164	46.2	191	53.8	0.9	49	13.8	306	86.2	1.7	14	3.9	341	96.1	2.8		
지역	중구	45	26	57.8	19	42.2	0.8	14	31.1	31	68.9	1.1	0	0.0	45	100.0	2.0		
	동구	34	15	44.1	19	55.9	1.4	7	20.6	27	79.4	1.4	1	2.9	33	97.1	1.9		
	미추홀구	79	36	45.6	43	54.4	1.0	21	26.6	58	73.4	1.3	14	17.7	65	82.3	1.3		
	연수구	69	31	44.9	38	55.1	1.1	13	18.8	56	81.2	1.6	1	1.4	68	98.6	2.4		
	남동구	85	43	50.6	42	49.4	0.6	7	8.2	78	91.8	1.9	2	2.4	83	97.6	3.5		
	부평구	87	42	48.3	45	51.7	0.7	6	6.9	81	93.1	2.0	0	0.0	87	100.0	3.4		
	계양구	68	44	64.7	24	35.3	0.5	9	13.2	59	86.8	1.7	2	2.9	66	97.1	3.3		
	서구	88	30	34.1	58	65.9	1.1	7	8.0	81	92.0	2.1	2	2.3	86	97.7	3.6		
	강화군	41	27	65.9	14	34.1	0.5	3	7.3	38	92.7	1.9	1	2.4	40	97.6	3.3		
옹진군	23	9	39.1	14	60.9	1.6	3	13.0	20	87.0	1.5	0	0.0	23	100.0	2.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23	57.7	90	42.3	0.7	30	14.1	183	85.9	1.7	15	7.0	198	93.0	2.5		
	고졸	309	144	46.6	165	53.4	0.9	49	15.9	260	84.1	1.7	5	1.6	304	98.4	2.9		
	전문대졸 이상	97	36	37.1	61	62.9	1.1	11	11.3	86	88.7	1.8	3	3.1	94	96.9	3.1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155	37.8	255	62.2	1.1	31	7.6	379	92.4	1.9	6	1.5	404	98.5	3.1		
	미혼·비혼	26	25	96.2	1	3.8	0.0	13	50.0	13	50.0	0.7	7	26.9	19	73.1	1.5		
	그 외	183	123	67.2	60	32.8	0.5	46	25.1	137	74.9	1.3	10	5.5	173	94.5	2.4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184	40.5	270	59.5	1.0	41	9.0	413	91.0	1.9	11	2.4	443	97.6	3.0		
	전세	79	44	55.7	35	44.3	0.8	15	19.0	64	81.0	1.5	2	2.5	77	97.5	2.7		
	월세	86	75	87.2	11	12.8	0.2	34	39.5	52	60.5	1.0	10	11.6	76	88.4	2.0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26	72.8	47	27.2	0.4	53	30.6	120	69.4	1.2	16	9.2	157	90.8	2.3		
	부부가구	265	107	40.4	158	59.6	1.0	21	7.9	244	92.1	1.9	5	1.9	260	98.1	3.2		
	기타가구	181	70	38.7	111	61.3	1.0	16	8.8	165	91.2	1.8	2	1.1	179	98.9	2.8		

〈표 3-61〉 외로움

(단위 : 명, 점/4점만점)

구분		n	1)	2)	3)	4)	5)	6)	7)	평균
계		619	1.71	1.85	1.42	1.70	1.95	2.37	1.73	1.82
성별	남성	301	1.73	1.87	1.50	1.78	1.99	2.35	1.81	1.86
	여성	318	1.69	1.84	1.35	1.62	1.92	2.38	1.66	1.78
연령	60~64세	264	1.74	1.80	1.42	1.69	1.96	2.36	1.76	1.82
	65~74세	355	1.68	1.89	1.42	1.70	1.94	2.37	1.71	1.82
지역	중구	45	1.47	1.44	1.13	1.29	1.87	1.84	1.36	1.49
	동구	34	1.44	1.50	1.12	1.38	1.76	1.82	1.50	1.50
	미추홀구	79	1.92	1.85	1.44	1.72	2.04	2.10	1.95	1.86
	연수구	69	1.61	1.61	1.19	1.35	1.83	1.74	1.38	1.53
	남동구	85	1.81	1.96	1.54	1.89	1.99	2.81	1.84	1.98
	부평구	87	1.75	1.94	1.62	1.80	1.91	2.60	1.76	1.91
	계양구	68	1.76	2.07	1.57	1.93	2.01	2.72	1.93	2.00
	서구	88	1.59	1.99	1.42	1.69	1.95	2.63	1.70	1.85
	강화군	41	1.98	2.15	1.59	2.10	2.27	2.73	2.05	2.12
	옹진군	23	1.39	1.43	1.09	1.39	1.74	1.74	1.61	1.48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85	1.95	1.56	1.87	2.04	2.54	1.84	1.95
	고졸	309	1.65	1.85	1.38	1.64	1.91	2.35	1.72	1.79
	전문대졸 이상	97	1.57	1.64	1.26	1.47	1.88	2.04	1.56	1.63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1.44	1.70	1.26	1.51	1.84	2.29	1.60	1.66
	미혼·비혼	26	2.81	2.58	2.15	2.42	2.50	2.77	2.27	2.50
	그 외	183	2.15	2.08	1.67	2.01	2.13	2.47	1.96	2.07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1.55	1.73	1.31	1.57	1.86	2.32	1.63	1.71
	전세	79	1.70	1.94	1.39	1.73	1.96	2.29	1.73	1.82
	월세	86	2.56	2.43	2.03	2.34	2.41	2.65	2.27	2.38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2.33	2.21	1.84	2.14	2.20	2.56	2.05	2.19
	부부가구	265	1.45	1.76	1.26	1.52	1.85	2.34	1.60	1.68
	기타가구	181	1.50	1.65	1.25	1.53	1.87	2.22	1.62	1.66

\*1) 나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낸다 2) 나는 어떤 사회집단이나 조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 나는 오늘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4)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할 공통 화제가 별로 없다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6) 나는 사회적인 위함을 감수하지 않는다 7) 사람들은 나를 흥미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 제3절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

#### 1. 노후준비 시작연령 인식

〈표 3-61〉과 같이 노인은 평균 46.1세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연령이 다른 집단보다 더 낮았다.

〈표 3-61〉 노후준비 시작연령 인식

(단위 : 명, %, 세)

구분	n	39세 이하		40대		50대		60세 이상		평균(세)	
		n	%	n	%	n	%	n	%		
계	619	94	15.2	179	28.9	268	43.3	78	12.6	46.1	
성별	남성	301	52	17.3	76	25.2	135	44.9	38	12.6	46.1
	여성	318	42	13.2	103	32.4	133	41.8	40	12.6	46.0
연령	60~64세	264	50	18.9	67	25.4	126	47.7	21	8.0	45.3
	65~74세	355	44	12.4	112	31.5	142	40.0	57	16.1	46.7
지역	중구	45	13	28.9	16	35.6	14	31.1	2	4.4	41.4
	동구	34	11	32.4	9	26.5	12	35.3	2	5.9	41.3
	미추홀구	79	21	26.6	32	40.5	21	26.6	5	6.3	41.9
	연수구	69	15	21.7	25	36.2	27	39.1	2	2.9	42.4
	남동구	85	10	11.8	18	21.2	48	56.5	9	10.6	47.8
	부평구	87	6	6.9	22	25.3	48	55.2	11	12.6	48.5
	계양구	68	4	5.9	19	27.9	29	42.6	16	23.5	48.6
	서구	88	10	11.4	16	18.2	46	52.3	16	18.2	48.8
	강화군	41	2	4.9	13	31.7	17	41.5	9	22.0	49.1
옹진군	23	2	8.7	9	39.1	6	26.1	6	26.1	48.8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21	9.9	61	28.6	96	45.1	35	16.4	47.6
	고졸	309	50	16.2	90	29.1	134	43.4	35	11.3	45.8
	전문대졸 이상	97	23	23.7	28	28.9	38	39.2	8	8.2	43.5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64	15.6	127	31.0	170	41.5	49	12.0	45.8
	미혼·비혼	26	6	23.1	4	15.4	13	50.0	3	11.5	45.6
	그 외	183	24	13.1	48	26.2	85	46.4	26	14.2	46.8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70	15.4	141	31.1	191	42.1	52	11.5	45.7
	전세	79	14	17.7	20	25.3	33	41.8	12	15.2	46.3
	월세	86	10	11.6	18	20.9	44	51.2	14	16.3	47.9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23	13.3	36	20.8	88	50.9	26	15.0	47.4
	부부가구	265	38	14.3	86	32.5	106	40.0	35	13.2	45.9
	기타가구	181	33	18.2	57	31.5	74	40.9	17	9.4	45.0

## 2. 영역별 노후준비도 평가

각 영역별 노후준비도를 평가한 결과, <표 3-62>와 같이 가장 많이 준비했던 영역은 가족관계(58.0점)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건강(47.2점), 재무(45.4점), 일(40.0점), 돌봄(37.6점)의 순이었으며, 취미여가사회공헌(31.2%) 영역을 가장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준비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연, 금주, 운동 등을 시작하고, 정기적인 치과 및 건강검진 등의 진료를 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나 상담 등을 받은 경험을 말한다.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응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건강 준비도가 높았다.

돌봄 준비는 서비스나 지원 등 노년기 돌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돌봄(간병)비용 마련을 위해 적금, 간병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노력한 경험을 말한다.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돌봄 준비도가 비교하여 높았다.

재무 준비는 노년기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외의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는 등 자산을 마련하고, 노후 재무설계 교육이나 상담 등을 받은 경험을 말한다.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응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재무 준비도가 높았다.

취미여가사회공헌 준비는 노년기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거나 특정 단체 등에 의도적으로 가입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취미여가 교육을 받은 경험을 말한다.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취미여가사회공헌 준비도가 높았다.

일 준비는 노년기 경제활동을 위해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거나 노인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거나 노인 일자리 관련 기관에서 교육 또는 상담을 받은 경험을 말한다. 여성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일 준비도가 높았다.

가족관계 준비는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거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대하거나 가족관계 유지·향상을 위한 의사소통교육 등의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경험을 말한다.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가족관계 준비도가 높았다.

사회적관계 준비는 친구나 이웃을 비롯한 사적인 관계를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노력하거나 친구나 동료관계 유지·향상을 위한 성격유형이나 의사소통 등의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경험을 말한다.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사회적관계 준비도가 높았다.

〈표 3-62〉 영역별 노후준비도 평가

(단위 : 명, 점/100점)

구분		n	건강	돌봄	재무	취미여가, 사회공헌	일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계		619	47.2	37.6	45.4	31.2	40.0	58.0	46.6
성별	남성	301	47.5	34.6	44.1	29.3	39.5	52.0	45.2
	여성	318	46.9	40.5	46.5	33.0	40.4	63.6	48.0
연령	60~64세	264	47.8	38.6	45.5	32.9	40.0	57.2	47.7
	65~74세	355	46.7	36.9	45.2	30.0	40.0	58.5	45.8
지역	중구	45	54.4	46.1	51.1	26.1	38.9	62.2	50.6
	동구	34	52.2	42.6	51.5	29.4	42.6	60.3	47.1
	미추홀구	79	51.9	36.7	44.0	25.0	38.3	56.0	38.3
	연수구	69	52.5	31.2	52.2	25.0	33.7	58.0	43.5
	남동구	85	36.5	32.6	40.6	32.9	44.1	52.4	43.5
	부평구	87	51.4	41.7	44.5	42.2	45.1	58.9	50.9
	계양구	68	37.9	33.8	36.4	34.2	37.9	57.0	48.5
	서구	88	46.3	41.5	50.6	36.4	38.6	63.1	51.4
	강화군	41	39.6	32.3	36.6	25.6	37.2	52.4	44.5
옹진군	23	60.9	45.7	52.2	17.4	44.6	63.0	52.2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41.4	31.1	38.8	29.1	36.9	55.4	41.0
	고졸	309	47.6	38.6	46.3	31.7	41.4	58.9	48.6
	전문대졸 이상	97	58.5	49.0	56.7	34.3	42.3	60.6	52.8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51.8	44.0	52.0	34.1	43.8	66.2	51.1
	미혼·비혼	26	25.0	13.5	24.0	17.3	15.4	17.3	23.1
	그 외	183	40.0	26.8	33.6	26.8	34.8	45.2	40.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51.4	43.4	52.4	35.5	44.7	64.9	51.3
	전세	79	44.6	28.2	36.7	22.5	32.6	53.5	43.7
	월세	86	27.3	16.0	16.3	16.6	22.1	25.3	24.7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36.6	22.7	30.2	23.4	30.1	37.9	35.7
	부부가구	265	50.9	42.9	50.8	33.5	44.8	66.0	50.6
	기타가구	181	51.8	44.2	51.8	35.4	42.4	65.3	51.4

### 3. 영역별 노후준비 시작 연령

각 영역별 노후준비를 처음 시작한 연령을 살펴본 결과, <표 3-63>과 같이 가족관계 준비(46.1세)를 가장 먼저 시작하였고, 그 뒤를 이어 재무(47.9세), 사회적 관계(50.0세), 건강(52.8세), 돌봄 및 일 (각 52.9세), 취미여가사회공헌(54.0세)의 순이었다.

건강 준비는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이거나 미혼·비혼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일찍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준비는 남성일 때, 60~64세 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일찍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 준비는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일찍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여가사회공헌 준비는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용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일찍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준비는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일찍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준비는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월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일찍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관계 준비는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용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일찍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3> 영역별 노후준비 시작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n	건강	돌봄	재무	취미여가, 사회공헌	일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계		619	52.8	52.9	47.9	54.0	52.9	46.1	50.0
성별	남성	301	52.6	52.1	47.3	53.2	52.1	46.9	49.4
	여성	318	53.0	53.6	48.6	54.6	53.8	45.4	50.5
연령	60~64세	264	51.3	51.3	47.0	52.6	51.6	45.0	49.6
	65~74세	355	54.0	54.2	48.6	55.3	53.9	46.8	50.3
지역	중구	45	51.2	50.4	38.9	51.3	57.4	47.0	46.8
	동구	34	50.0	49.5	42.8	51.7	57.6	46.8	46.5

	미추홀구	79	51.2	47.8	42.1	47.5	53.8	43.8	48.6
	연수구	69	51.5	51.9	43.6	52.0	57.8	47.6	48.3
	남동구	85	54.8	55.1	52.0	54.3	50.5	46.0	49.7
	부평구	87	54.3	55.6	52.1	54.2	52.5	45.6	53.4
	계양구	68	55.7	55.3	54.8	54.3	50.9	47.1	52.0
	서구	88	54.5	54.9	52.7	55.2	49.6	46.8	51.2
	강화군	41	53.0	52.0	50.0	56.8	50.6	44.0	50.7
	옹진군	23	51.4	48.1	42.9	50.0	56.3	45.0	46.1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54.3	55.3	50.2	55.3	54.2	46.5	51.8
	고졸	309	52.1	52.9	47.6	53.6	52.4	46.3	49.5
	전문대졸 이상	97	52.4	50.0	45.7	52.5	52.0	44.5	48.7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52.6	52.5	47.9	53.7	52.1	46.0	49.6
	미혼·비혼	26	52.6	50.0	45.3	55.7	50.0	56.0	55.8
	그 외	183	53.5	54.7	48.3	54.5	55.2	46.1	50.9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52.6	52.6	45.5	54.2	51.8	46.2	49.0
	전세	79	53.4	55.1	50.0	53.5	53.0	46.3	50.6
	월세	86	54.2	55.0	48.1	54.0	53.4	45.8	50.1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53.8	55.6	57.0	65.0	55.4	50.0	56.7
	부부가구	265	53.1	53.1	48.1	53.9	53.0	45.8	49.8
	기타가구	181	51.7	51.5	45.8	54.9	53.2	46.8	49.6

#### 4. 현재 생활 대비 영역별 중요도

현재의 노후생활에 비추어 영역별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64>와 같다. 건강에 대한 중요도가 99.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가족관계(96.0점), 재무(93.8점), 일(87.5점), 돌봄(83.5점), 사회적 관계(73.9점), 취미여가사회공헌(69.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남동구계양구서구 외의 지역일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전세 및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돌봄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일 때, 고졸일 때, 혼인 중 및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재무는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취미여가사회공헌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월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일은 6~64세일 때, 미추홀구일 때, 고졸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족관계는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사회적 관계는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계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3-64〉 현재 생활 대비 영역별 중요도

(단위 : 명, 점/100점)

구분		n	건강	돌봄	재무	취미여가, 사회공헌	일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계		619	99.7	83.5	93.8	69.4	87.5	96.0	73.9
성별	남성	301	99.8	83.1	92.7	68.5	87.5	95.3	74.0
	여성	318	99.7	83.8	94.8	70.2	87.5	96.7	73.7
연령	60~64세	264	99.5	83.8	93.6	70.5	88.1	95.2	75.0
	65~74세	355	99.9	83.2	93.9	68.5	87.1	96.6	73.0
지역	중구	45	100.0	85.6	90.0	64.4	90.0	97.8	71.1
	동구	34	100.0	89.0	97.1	66.9	94.1	99.3	71.3
	미추홀구	79	100.0	89.9	96.5	73.4	90.2	98.4	76.9
	연수구	69	100.0	87.0	97.8	72.5	93.5	100.0	71.7
	남동구	85	99.7	78.2	90.9	71.2	84.7	91.8	76.5
	부평구	87	100.0	84.2	96.3	71.3	89.9	96.0	76.4
	계양구	68	98.9	83.1	93.0	73.5	89.0	96.0	77.6
	서구	88	99.1	80.7	92.0	64.8	79.5	93.5	71.0
	강화군	41	100.0	73.8	90.9	63.4	81.1	92.7	70.7
옹진군	23	100.0	84.8	90.2	62.0	84.8	98.9	65.2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99.8	82.3	94.2	65.7	85.9	96.0	70.9
	고졸	309	99.6	84.1	93.6	70.6	88.8	95.9	75.3
	전문대졸 이상	97	100.0	84.0	93.3	73.5	87.1	96.4	75.8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99.8	83.6	94.1	70.4	87.1	97.4	74.3
	미혼·비혼	26	99.0	80.8	92.3	62.5	84.6	87.5	72.1
	그 외	183	99.7	83.6	93.3	68.2	88.8	94.0	73.2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99.5	82.4	93.5	67.6	86.2	96.7	72.3
	전세	79	99.8	82.1	93.3	68.6	88.1	94.8	74.6
	월세	86	99.8	85.2	94.2	71.1	87.6	97.1	74.2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00.0	84.7	95.8	68.1	88.9	88.9	72.2
	부부가구	265	99.9	84.1	94.3	70.5	87.6	96.9	74.4
	기타가구	181	99.7	82.6	92.7	68.4	87.7	97.2	72.2

### 5. 현재 생활 대비 영역별 우선순위

현재의 노후생활에 비추어 영역별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65>와 같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건강(99.7%)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그 뒤를 이어 가족관계(78.2%), 재무(59.5%), 일(44.4%), 돌봄(9.9%), 취미여가사회공헌 및 사회관계(각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응답은 65~74세일 때, 서구 외 지역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 및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자가 및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돌봄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재무가 우선순위가 높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취미여가사회공헌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일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가족관계가 우선순위가 높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사회적관계가 우선순위가 높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65> 현재 생활 대비 영역별 우선순위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분	n	건강		돌봄		재무		취미여가, 사회공헌		일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n	%	n	%	n	%	n	%	n	%	n	%	n	%	
계	619	617	99.7	61	9.9	368	59.5	26	4.2	275	44.4	484	78.2	26	4.2	
성별	남성	301	300	99.7	34	11.3	182	60.5	11	3.7	134	44.5	226	75.1	16	5.3
	여성	318	317	99.7	27	8.5	186	58.5	15	4.7	141	44.3	258	81.1	10	3.1

연령	60~64세	264	262	99.2	29	11.0	162	61.4	14	5.3	118	44.7	198	75.0	9	3.4
	65~74세	355	355	100.0	32	9.0	206	58.0	12	3.4	157	44.2	286	80.6	17	4.8
지역	중구	45	45	100.0	10	22.2	13	28.9	0	0.0	25	55.6	40	88.9	2	4.4
	동구	34	34	100.0	6	17.6	10	29.4	0	0.0	18	52.9	33	97.1	1	2.9
	미추홀구	79	79	100.0	6	7.6	36	45.6	1	1.3	42	53.2	72	91.1	1	1.3
	연수구	69	69	100.0	1	1.4	33	47.8	0	0.0	36	52.2	68	98.6	0	0.0
	남동구	85	85	100.0	7	8.2	63	74.1	7	8.2	37	43.5	48	56.5	8	9.4
	부평구	87	87	100.0	5	5.7	64	73.6	2	2.3	38	43.7	65	74.7	0	0.0
	계양구	68	68	100.0	7	10.3	48	70.6	6	8.8	27	39.7	43	63.2	5	7.4
	서구	88	86	97.7	12	13.6	63	71.6	6	6.8	26	29.5	63	71.6	8	9.1
	강화군	41	41	100.0	2	4.9	32	78.0	4	9.8	13	31.7	30	73.2	1	2.4
	옹진군	23	23	100.0	5	21.7	6	26.1	0	0.0	13	56.5	22	95.7	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213	100.0	24	11.3	145	68.1	5	2.3	83	39.0	159	74.6	10	4.7
	고졸	309	307	99.4	27	8.7	173	56.0	16	5.2	149	48.2	243	78.6	12	3.9
	전문대졸 이상	97	97	100.0	10	10.3	50	51.5	5	5.2	43	44.3	82	84.5	4	4.1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409	99.8	35	8.5	235	57.3	14	3.4	176	42.9	344	83.9	17	4.1
	미혼·비혼	26	26	100.0	5	19.2	22	84.6	2	7.7	9	34.6	13	50.0	1	3.8
	그 외	183	182	99.5	21	11.5	111	60.7	10	5.5	90	49.2	127	69.4	8	4.4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454	100.0	36	7.9	269	59.3	18	4.0	192	42.3	372	81.9	21	4.6
	전세	79	79	100.0	13	16.5	41	51.9	5	6.3	38	48.1	59	74.7	2	2.5
	월세	86	84	97.7	12	14.0	58	67.4	3	3.5	45	52.3	53	61.6	3	3.5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72	99.4	24	13.9	111	64.2	11	6.4	81	46.8	111	64.2	9	5.2
	부부가구	265	265	100.0	21	7.9	157	59.2	9	3.4	107	40.4	224	84.5	12	4.5
	기타가구	181	180	99.4	16	8.8	100	55.2	6	3.3	87	48.1	149	82.3	5	2.8

## 6. 영역별 중요도 대비 준비도 차이

영역별 중요도와 준비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3-67>과 같이 건강에 대한 준비(-52.5점)가 가장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재무(-48.4점), 돌봄(-45.8점), 일(-47.5점), 취미여가사회공헌(-38.2점), 가족관계(-38.0점), 사회적 관계(-27.2점)의 순이었다.

건강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준비도가 낮았다.

돌봄과 일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준비도가 낮았다.

재무는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준비도가 낮았다.

취미여가사회공헌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준비도가 낮았다.

가족관계는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준비도가 낮았다.

사회적 관계는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준비도가 낮았다.

〈표 3-66〉 영역별 중요도 대비 준비도

(단위 : 명, 점/100점)

구분	n	건강	돌봄	재무	취미여가, 사회공헌	일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계	619	-52.5	-45.8	-48.4	-38.2	-47.5	-38.0	-27.2	
성별	남성	301	-52.2	-48.5	-48.6	-39.2	-48.0	-43.3	-28.8
	여성	318	-52.8	-43.3	-48.3	-37.2	-47.1	-33.1	-25.7
연령	60~64세	264	-51.7	-45.2	-48.0	-37.7	-48.1	-38.0	-27.3
	65~74세	355	-53.2	-46.3	-48.7	-38.5	-47.1	-38.1	-27.2
지역	중구	45	-45.6	-39.4	-38.9	-38.3	-51.1	-35.6	-20.6
	동구	34	-47.8	-46.3	-45.6	-37.5	-51.5	-39.0	-24.3
	미추홀구	79	-48.1	-53.2	-52.5	-48.4	-51.9	-42.4	-38.6
	연수구	69	-47.5	-55.8	-45.7	-47.5	-59.8	-42.0	-28.3
	남동구	85	-63.2	-45.6	-50.3	-38.2	-40.6	-39.4	-32.9
	부평구	87	-48.6	-42.5	-51.7	-29.0	-44.8	-37.1	-25.6
	계양구	68	-61.0	-49.3	-56.6	-39.3	-51.1	-39.0	-29.0
	서구	88	-52.8	-39.2	-41.5	-28.4	-40.9	-30.4	-19.6
	강화군	41	-60.4	-41.5	-54.3	-37.8	-43.9	-40.2	-26.2
옹진군	23	-39.1	-39.1	-38.0	-44.6	-40.2	-35.9	-13.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58.3	-51.2	-55.4	-36.6	-49.1	-40.6	-29.9
	고졸	309	-52.0	-45.6	-47.3	-38.9	-47.3	-37.0	-26.7
	전문대졸 이상	97	-41.5	-35.1	-36.6	-39.2	-44.8	-35.8	-22.9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48.0	-39.6	-42.1	-36.3	-43.3	-31.2	-23.2
	미혼·비혼	26	-74.0	-67.3	-68.3	-45.2	-69.2	-70.2	-49.0
	그 외	183	-59.7	-56.8	-59.7	-41.4	-54.0	-48.8	-33.2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48.5	-40.7	-42.0	-35.0	-43.0	-31.9	-23.1
	전세	79	-55.1	-54.4	-56.0	-45.9	-55.1	-43.7	-28.5
	월세	86	-71.5	-65.1	-75.6	-47.7	-64.8	-65.1	-48.0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63.0	-60.1	-62.6	-43.1	-57.8	-54.8	-38.2
	부부가구	265	-48.9	-41.1	-43.8	-36.3	-42.2	-31.2	-23.7
	기타가구	181	-47.9	-39.1	-41.7	-36.2	-45.6	-32.0	-22.0

\*영역별 준비도에서 중요도를 뺀 값임(준비도-중요도)영역별 준비도 대비 중요도

## 7. 개인적인 돌봄 준비 방법

〈표 3-67〉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위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준비를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 민간보험 가입이 63.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자산마련(45.4%), 자녀와의 관계(43.8%), 신체·정신건강 관리(43.5%), 없다(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준비한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웅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가족 내 돌봄 등을 기대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준비한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간병보험 등 민간 보험을 준비한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자산 마련을 준비한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국가 지원만 기대한다는 응답을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없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67〉 개인적인 돌봄 준비 방법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분	n	신체·정신건강 관리		자녀와의 관계(가족 내 돌봄)		간병보험 등 민간 보험		자산 마련		전혀 없다 (국가 지원만 기대)		
		n	%	n	%	n	%	n	%	n	%	
계	619	269	43.5	271	43.8	394	63.7	281	45.4	105	17.0	
성별	남성	301	134	44.5	120	39.9	171	56.8	124	41.2	70	23.3
	여성	318	135	42.5	151	47.5	223	70.1	157	49.4	35	11.0
연령	60~64세	264	126	47.7	118	44.7	179	67.8	119	45.1	45	17.0
	65~74세	355	143	40.3	153	43.1	215	60.6	162	45.6	60	16.9
지역	중구	45	33	73.3	6	13.3	24	53.3	28	62.2	4	8.9
	동구	34	21	61.8	8	23.5	21	61.8	21	61.8	0	0.0
	미추홀구	79	47	59.5	26	32.9	46	58.2	31	39.2	13	16.5
	연수구	69	34	49.3	17	24.6	40	58.0	35	50.7	3	4.3
	남동구	85	21	24.7	40	47.1	61	71.8	37	43.5	19	22.4

	부평구	87	25	28.7	44	50.6	62	71.3	39	44.8	13	14.9
	계양구	68	23	33.8	41	60.3	47	69.1	21	30.9	15	22.1
	서구	88	34	38.6	57	64.8	66	75.0	42	47.7	20	22.7
	강화군	41	11	26.8	21	51.2	19	46.3	13	31.7	18	43.9
	옹진군	23	20	87.0	11	47.8	8	34.8	14	60.9	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59	27.7	84	39.4	128	60.1	81	38.0	49	23.0
	고졸	309	149	48.2	138	44.7	192	62.1	142	46.0	49	15.9
	전문대졸 이상	97	61	62.9	49	50.5	74	76.3	58	59.8	7	7.2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202	49.3	221	53.9	299	72.9	213	52.0	36	8.8
	미혼·비혼	26	2	7.7	0	0.0	7	26.9	4	15.4	18	69.2
	그 외	183	65	35.5	50	27.3	88	48.1	64	35.0	51	27.9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212	46.7	234	51.5	333	73.3	252	55.5	38	8.4
	전세	79	39	49.4	27	34.2	37	46.8	21	26.6	15	19.0
	월세	86	18	20.9	10	11.6	24	27.9	8	9.3	52	60.5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51	29.5	36	20.8	71	41.0	51	29.5	66	38.2
	부부가구	265	122	46.0	145	54.7	192	72.5	131	49.4	24	9.1
	기타가구	181	96	53.0	90	49.7	131	72.4	99	54.7	15	8.3

## 8. 노년기 월평균 생활비 인식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월평균 최소·적정·의료 생활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68>과 같다. 최소 생활비란 의식주 해결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말하며, 적정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말한다. 의료 생활비는 간병이나 질병 치료 등으로 간병·의료비가 증가할 때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로 정의하였다.

1인 기준 최소 생활비는 109.3만원, 적정 생활비는 170.9만원, 의료 생활비는 243.4만원이었다.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185.7만원, 적정 생활비는 276.1만원, 의료 생활비는 386.6만원이었다.

1인 기준 최소 생활비는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적정 생활비는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에 거주할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의료 생활비는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부부기준 최소 생활비는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적정 생활비는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의료 생활비는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68〉 노년기 월평균 생활비 인식

(단위 : 명, 만원)

구분		n	1인 기준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	의료 생활비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	의료 생활비
계		619	109.3	170.9	243.4	185.7	276.1	386.6
성별	남성	301	111.0	173.4	248.4	187.2	276.4	388.8
	여성	318	107.7	168.5	238.6	184.2	275.8	384.5
연령	60~64세	264	111.0	171.1	244.4	187.3	276.9	388.4
	65~74세	355	108.0	170.7	242.6	184.5	275.5	385.2
지역	중구	45	100.0	166.7	266.9	174.7	284.2	438.9
	동구	34	103.5	177.9	269.1	182.4	295.3	434.1
	미추홀구	79	100.4	161.4	263.8	169.4	275.2	430.6
	연수구	69	112.9	179.1	260.0	196.5	310.4	446.2
	남동구	85	115.1	175.6	232.9	190.8	276.7	360.1
	부평구	87	110.1	166.2	224.4	186.9	263.1	351.1
	계양구	68	112.4	171.9	231.2	185.6	262.2	350.7
	서구	88	120.3	177.2	240.7	202.3	277.0	371.1
	강화군	41	104.9	167.3	230.2	184.1	255.6	340.2
	옹진군	23	87.2	156.1	220.0	151.7	252.6	363.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03.7	167.2	237.5	178.7	265.2	373.8
	고졸	309	107.8	167.2	236.7	183.0	273.6	379.2
	전문대졸 이상	97	126.2	190.7	277.5	209.5	308.0	438.6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113.7	175.7	249.5	191.6	283.0	394.7
	미혼·비혼	26	90.8	153.5	231.5	166.9	245.8	350.4
	그 외	183	102.0	162.6	231.4	175.2	265.0	373.6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112.8	176.0	249.3	189.8	281.3	393.6
	전세	79	104.7	159.7	226.1	180.8	271.0	382.7
	월세	86	94.9	154.2	227.9	168.4	253.0	353.4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99.2	159.0	229.1	171.2	257.6	365.1
	부부가구	265	112.3	175.8	249.8	190.0	281.8	394.0
	기타가구	181	114.4	175.0	247.7	193.3	285.4	396.4

### 9. 노후준비교육 경험

〈표 3-69〉와 같이 노인이 되기 전 은퇴나 노후준비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을 살펴본 결과, 95.0%는 경험이 없었고 5.0%는 경험이 있었다.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다.

〈표 3-69〉 노후준비교육 경험

(단위 : 명, %)

구분	n	있다		없다		
		n	%	n	%	
계	619	31	5.0	588	95.0	
성별	남성	301	16	5.3	285	94.7
	여성	318	15	4.7	303	95.3
연령	60~64세	264	12	4.5	252	95.5
	65~74세	355	19	5.4	336	94.6
지역	중구	45	1	2.2	44	97.8
	동구	34	4	11.8	30	88.2
	미추홀구	79	7	8.9	72	91.1
	연수구	69	7	10.1	62	89.9
	남동구	85	5	5.9	80	94.1
	부평구	87	2	2.3	85	97.7
	계양구	68	0	0.0	68	100.0
	서구	88	2	2.3	86	97.7
	강화군	41	2	4.9	39	95.1
옹진군	23	1	4.3	22	95.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6	2.8	207	97.2
	고졸	309	18	5.8	291	94.2
	전문대졸 이상	97	7	7.2	90	92.8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25	6.1	385	93.9
	미혼·비혼	26	1	3.8	25	96.2
	그 외	183	5	2.7	178	97.3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26	5.7	428	94.3
	전세	79	4	5.1	75	94.9
	월세	86	1	1.2	85	98.8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6	3.5	167	96.5
	부부가구	265	15	5.7	250	94.3
	기타가구	181	10	5.5	171	94.5

## 10. 노후준비교육 내용

노후준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31명을 선별하여 받은 교육의 내용을 모두 살펴본 결과 <표 3-70>과 같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87.1%)를 가장 많이 받았다. 그 뒤를 이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67.7%), 여가활동을 위한 취미 개발(45.2%), 자기계발을 위한 준비(41.9%), 사회관계를 위한 활동(35.5%), 가족친구와의 친밀도 강화(19.4%)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옹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전세 및 월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중구 및 옹진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사회관계를 위한 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자기계발을 위한 준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여가활동을 위한 취미 개발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가족친구와의 친밀도 강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70〉 노후준비교육 내용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분	n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사회관계를 위한 활동		자기계발을 위한 준비		여가활동을 위한 취미 개발		가족·친구와의 친밀도 강화		
		n	%	n	%	n	%	n	%	n	%	n	%	
계	31	27	87.1	21	67.7	11	35.5	13	41.9	14	45.2	6	19.4	
성별	남성	16	15	93.8	11	68.8	6	37.5	8	50.0	6	37.5	2	12.5
	여성	15	12	80.0	10	66.7	5	33.3	5	33.3	8	53.3	4	26.7
연령	60~64세	12	10	83.3	8	66.7	2	16.7	5	41.7	6	50.0	2	16.7
	65~74세	19	17	89.5	13	68.4	9	47.4	8	42.1	8	42.1	4	21.1
지역	중구	1	1	100.0	1	100.0	1	100.0	1	100.0	0	0.0	0	0.0
	동구	4	4	100.0	3	75.0	2	50.0	2	50.0	1	25.0	2	50.0
	미추홀구	7	7	100.0	6	85.7	1	14.3	5	71.4	6	85.7	1	14.3
	연수구	7	7	100.0	6	85.7	4	57.1	4	57.1	4	57.1	2	28.6
	남동구	5	4	80.0	2	40.0	1	20.0	0	0.0	0	0.0	0	0.0
	부평구	2	1	5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서구	2	1	50.0	0	0.0	1	50.0	0	0.0	1	50.0	0	0.0
	강화군	2	1	50.0	1	50.0	0	0.0	1	50.0	1	50.0	0	0.0
옹진군	1	1	100.0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	3	50.0	4	66.7	1	16.7	1	16.7	4	66.7	2	33.3
	고졸	18	17	94.4	14	77.8	7	38.9	8	44.4	6	33.3	3	16.7
	전문대졸 이상	7	7	100.0	3	42.9	3	42.9	4	57.1	4	57.1	1	14.3
혼인 상태	혼인 중	25	23	92.0	18	72.0	9	36.0	11	44.0	13	52.0	6	24.0
	미혼·비혼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그 외	5	3	60.0	3	60.0	2	40.0	2	40.0	1	20.0	0	0.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26	22	84.6	20	76.9	10	38.5	11	42.3	14	53.8	6	23.1
	전세	4	4	100.0	1	25.0	1	25.0	2	50.0	0	0.0	0	0.0
	월세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가구 유형	1인가구	6	4	66.7	3	50.0	2	33.3	2	33.3	1	16.7	0	0.0
	부부가구	15	14	93.3	11	73.3	5	33.3	6	40.0	7	46.7	3	20.0
	기타가구	10	9	90.0	7	70.0	4	40.0	5	50.0	6	60.0	3	30.0

## 11. 노후준비상담 경험

〈표 3-71〉과 같이 노인이 되기 전 은퇴나 노후준비 관련 상담을 받아본 경험을 살펴본 결과, 96.0%는 경험이 없었고 4.0%는 경험이 있었다.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다.

〈표 3-71〉 노후준비상담 경험

(단위 : 명, %)

구분		n	있다		없다	
			n	%	n	%
계		619	25	4.0	594	96.0
성별	남성	301	19	6.3	282	93.7
	여성	318	6	1.9	312	98.1
연령	60~64세	264	10	3.8	254	96.2
	65~74세	355	15	4.2	340	95.8
지역	중구	45	1	2.2	44	97.8
	동구	34	2	5.9	32	94.1
	미추홀구	79	6	7.6	73	92.4
	연수구	69	6	8.7	63	91.3
	남동구	85	3	3.5	82	96.5
	부평구	87	1	1.1	86	98.9
	계양구	68	2	2.9	66	97.1
	서구	88	1	1.1	87	98.9
	강화군	41	2	4.9	39	95.1
	옹진군	23	1	4.3	22	95.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5	2.3	208	97.7
	고졸	309	12	3.9	297	96.1
	전문대졸 이상	97	8	8.2	89	91.8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23	5.6	387	94.4
	미혼·비혼	26	1	3.8	25	96.2
	그 외	183	1	0.5	182	99.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21	4.6	433	95.4
	전세	79	3	3.8	76	96.2
	월세	86	1	1.2	85	98.8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2	1.2	171	98.8
	부부가구	265	15	5.7	250	94.3
	기타가구	181	8	4.4	173	95.6

## 12. 노후준비상담 내용

노후준비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25명을 선별하여 받은 교육의 내용을 모두 살펴본 결과 <표 3-72>과 같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80.0%)를 가장 많이 받았다. 그 뒤를 이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및 자기계발을 위한 준비(각 56.0%), 여가활동을 위한 취미 개발(28.0%), 사회관계를 위한 활동(24.0%), 가족친구와의 친밀도 강화(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 및 계양구 외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 및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중구·동구·서구·옹진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사회관계를 위한 활동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중구 및 동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자기계발을 위한 준비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여가활동을 위한 취미 개발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가족친구와의 친밀도 강화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계양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73〉 노후준비상담 내용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분		n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사회관계를 위한 활동		자기계발을 위한 준비		여가활동을 위한 취미 개발		가족·친구와의 친밀도 강화	
			n	%	n	%	n	%	n	%	n	%	n	%
계		25	20	80.0	14	56.0	6	24.0	14	56.0	7	28.0	4	16.0
성별	남성	19	15	78.9	10	52.6	4	21.1	10	52.6	4	21.1	2	10.5
	여성	6	5	83.3	4	66.7	2	33.3	4	66.7	3	50.0	2	33.3
연령	60~64세	10	7	70.0	5	50.0	1	10.0	6	60.0	4	40.0	3	30.0
	65~74세	15	13	86.7	9	60.0	5	33.3	8	53.3	3	20.0	1	6.7
지역	중구	1	1	100.0	1	100.0	1	100.0	1	100.0	0	0.0	0	0.0
	동구	2	2	100.0	2	100.0	2	100.0	1	50.0	0	0.0	0	0.0
	미추홀구	6	4	66.7	4	66.7	0	0.0	5	83.3	3	50.0	1	16.7
	연수구	6	6	100.0	5	83.3	3	50.0	4	66.7	1	16.7	1	16.7
	남동구	3	3	100.0	0	0.0	0	0.0	2	66.7	1	33.3	1	33.3
	부평구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양구	2	0	0.0	0	0.0	0	0.0	0	0.0	1	50.0	1	50.0
	서구	1	1	100.0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강화군	2	1	50.0	0	0.0	0	0.0	1	50.0	0	0.0	0	0.0
	용진군	1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5	3	60.0	2	40.0	0	0.0	1	20.0	2	40.0	0	0.0
	고졸	12	11	91.7	8	66.7	5	41.7	8	66.7	4	33.3	3	25.0
	전문대졸 이상	8	6	75.0	4	50.0	1	12.5	5	62.5	1	12.5	1	12.5
혼인 상태	혼인 중	23	18	78.3	13	56.5	6	26.1	14	60.9	7	30.4	4	17.4
	미혼·비혼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그 외	1	1	10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21	17	81.0	13	61.9	5	23.8	13	61.9	6	28.6	4	19.0
	전세	3	2	66.7	1	33.3	1	33.3	1	33.3	1	33.3	0	0.0
	월세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가구 유형	1인가구	2	2	100.0	1	50.0	0	0.0	0	0.0	0	0.0	0	0.0
	부부가구	15	11	73.3	7	46.7	4	26.7	9	60.0	2	13.3	1	6.7
	기타가구	8	7	87.5	6	75.0	2	25.0	5	62.5	5	62.5	3	37.5

### 13.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준비내용 필요도

#### 1) 현재 자산 관리 및 노후 재무 설계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준비내용으로 현재 자산 관리 및 노후 재무 설계에 대한 교육 필요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74>와 같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85.1%, 필요 없다는 응답은 14.9%였으며 평균 3.09점이었다. 제공방법으로는 교육(72.2%)을 상담(52.7%)보다 더 선호하였다.

현재 자산 관리 및 노후 재무 설계에 대한 교육 필요도는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제공방법으로 교육을 선호하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상담을 선호하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 2) 노년기 성격특성과 신체변화 등의 정보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준비내용으로 노년기 성격특성과 신체변화 등의 정보에 대한 교육 필요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75>와 같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92.2%, 필요 없다는 응답은 7.8%였으며 평균 3.28점이었다. 제공방법으로는 교육(83.0%)을 상담(40.3%)보다 더 선호하였다.

노년기 성격특성과 신체변화 등에 대한 교육 필요도는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 및 월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제공방법으로 교육을 선호하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자가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상담을 선호하는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74〉 현재 자산 관리 및 노후 재무 설계

(단위 : 명, %, 점/4점, 복수응답)

구분		n	필요도					제공방법			
			필요 없음		필요함		평균	교육		상담	
			n	%	n	%		n	%	n	%
계		619	92	14.9	527	85.1	3.09	444	72.2	324	52.7
성별	남성	301	45	15.0	256	85.0	3.07	208	69.3	174	58.0
	여성	318	47	14.8	271	85.2	3.10	236	74.9	150	47.6
연령	60~64세	264	34	12.9	230	87.1	3.14	196	74.8	144	55.0
	65~74세	355	58	16.3	297	83.7	3.05	248	70.3	180	51.0
지역	중구	45	0	0.0	45	100.0	3.27	41	91.1	18	40.0
	동구	34	1	2.9	33	97.1	3.21	32	94.1	18	52.9
	미추홀구	79	3	3.8	76	96.2	3.30	53	67.1	56	70.9
	연수구	69	2	2.9	67	97.1	3.28	53	76.8	41	59.4
	남동구	85	20	23.5	65	76.5	2.86	62	73.8	47	56.0
	부평구	87	7	8.0	80	92.0	3.30	51	58.6	38	43.7
	계양구	68	12	17.6	56	82.4	3.09	43	64.2	31	46.3
	서구	88	33	37.5	55	62.5	2.75	61	70.1	47	54.0
	강화군	41	14	34.1	27	65.9	2.80	28	70.0	21	52.5
	옹진군	23	0	0.0	23	100.0	3.09	20	87.0	7	30.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46	21.6	167	78.4	2.97	158	75.2	92	43.8
	고졸	309	37	12.0	272	88.0	3.13	217	70.5	172	55.8
	전문대졸 이상	97	9	9.3	88	90.7	3.23	69	71.1	60	61.9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58	14.1	352	85.9	3.12	294	72.1	219	53.7
	미혼·비혼	26	5	19.2	21	80.8	2.88	17	65.4	15	57.7
	그 외	183	29	15.8	154	84.2	3.04	133	73.5	90	49.7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63	13.9	391	86.1	3.13	333	73.7	234	51.8
	전세	79	11	13.9	68	86.1	3.06	52	65.8	46	58.2
	월세	86	18	20.9	68	79.1	2.91	59	70.2	44	52.4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30	17.3	143	82.7	3.02	122	71.3	90	52.6
	부부가구	265	38	14.3	227	85.7	3.12	189	71.9	139	52.9
	기타가구	181	24	13.3	157	86.7	3.10	133	73.5	95	52.5

〈표 3-75〉 노년기 성격특성과 신체변화 등의 정보

(단위 : 명, %, 점/4점, 복수응답)

구분		n	필요도					제공방법			
			필요 없음		필요함		평균	교육		상담	
			n	%	n	%		n	%	n	%
계		619	48	7.8	571	92.2	3.28	511	83.0	248	40.3
성별	남성	301	20	6.6	281	93.4	3.29	247	82.3	123	41.0
	여성	318	28	8.8	290	91.2	3.28	264	83.5	125	39.6
연령	60~64세	264	14	5.3	250	94.7	3.25	227	86.6	100	38.2
	65~74세	355	34	9.6	321	90.4	3.30	284	80.2	148	41.8
지역	중구	45	3	6.7	42	93.3	3.31	42	93.3	16	35.6
	동구	34	2	5.9	32	94.1	3.15	26	76.5	11	32.4
	미추홀구	79	17	21.5	62	78.5	2.97	49	63.6	42	54.5
	연수구	69	4	5.8	65	94.2	3.22	43	62.3	37	53.6
	남동구	85	5	5.9	80	94.1	3.40	82	96.5	37	43.5
	부평구	87	3	3.4	84	96.6	3.56	77	88.5	26	29.9
	계양구	68	4	5.9	64	94.1	3.44	63	92.6	17	25.0
	서구	88	6	6.8	82	93.2	3.16	75	86.2	37	42.5
	강화군	41	2	4.9	39	95.1	3.34	36	87.8	16	39.0
	옹진군	23	2	8.7	21	91.3	3.04	18	78.3	9	39.1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6	7.5	197	92.5	3.31	173	81.2	92	43.2
	고졸	309	27	8.7	282	91.3	3.24	262	85.6	109	35.6
	전문대졸 이상	97	5	5.2	92	94.8	3.34	76	78.4	47	48.5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33	8.0	377	92.0	3.28	333	81.6	168	41.2
	미혼·비혼	26	1	3.8	25	96.2	3.19	22	88.0	7	28.0
	그 외	183	14	7.7	169	92.3	3.30	156	85.2	73	39.9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33	7.3	421	92.7	3.30	385	85.2	177	39.2
	전세	79	10	12.7	69	87.3	3.16	55	69.6	40	50.6
	월세	86	5	5.8	81	94.2	3.30	71	83.5	31	36.5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3	7.5	160	92.5	3.30	145	84.3	68	39.5
	부부가구	265	23	8.7	242	91.3	3.31	215	81.4	112	42.4
	기타가구	181	12	6.6	169	93.4	3.23	151	83.9	68	37.8

### 3) 금연, 금주, 식이조절 등 건강관리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준비내용으로 금연, 금주, 식이조절 등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필요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76>와 같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98.5%, 필요 없다는 응답은 1.5%였으며 평균 3.61점이었다. 제공방법으로는 교육(84.7%)을 상담(66.9%)보다 더 선호하였다.

금연, 금주, 식이조절 등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필요도는 남성일 때, 60~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제공방법으로 교육을 선호하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계양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상담을 선호하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 4) 우울증, 치매 등 정신건강관리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준비내용으로 우울증, 치매 등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필요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77>와 같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99.5%, 필요 없다는 응답은 0.5%였으며 평균 3.65점이었다. 제공방법으로는 교육(78.7%)을 상담(74.5%)보다 더 선호하였다.

우울증, 치매 등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필요도는 여성일 때, 60~4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제공방법으로 교육을 선호하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상담을 선호하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76〉 금연, 금주, 식이조절 등 건강관리

(단위 : 명, %, 점/4점, 복수응답)

구분		n	필요도					제공방법			
			필요 없음		필요함		평균	교육		상담	
			n	%	n	%		n	%	n	%
계		619	9	1.5	610	98.5	3.61	524	84.7	414	66.9
성별	남성	301	3	1.0	298	99.0	3.62	258	85.7	200	66.4
	여성	318	6	1.9	312	98.1	3.61	266	83.6	214	67.3
연령	60~64세	264	4	1.5	260	98.5	3.63	233	88.3	174	65.9
	65~74세	355	5	1.4	350	98.6	3.60	291	82.0	240	67.6
지역	중구	45	0	0.0	45	100.0	3.69	29	64.4	37	82.2
	동구	34	0	0.0	34	100.0	3.74	30	88.2	29	85.3
	미추홀구	79	1	1.3	78	98.7	3.70	58	73.4	69	87.3
	연수구	69	0	0.0	69	100.0	3.87	59	85.5	63	91.3
	남동구	85	5	5.9	80	94.1	3.45	77	90.6	45	52.9
	부평구	87	1	1.1	86	98.9	3.68	78	89.7	39	44.8
	계양구	68	0	0.0	68	100.0	3.57	66	97.1	23	33.8
	서구	88	1	1.1	87	98.9	3.42	74	84.1	61	69.3
	강화군	41	1	2.4	40	97.6	3.46	32	78.0	30	73.2
	옹진군	23	0	0.0	23	100.0	3.70	21	91.3	18	78.3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4	1.9	209	98.1	3.56	180	84.5	139	65.3
	고졸	309	5	1.6	304	98.4	3.62	259	83.8	201	65.0
	전문대졸 이상	97	0	0.0	97	100.0	3.70	85	87.6	74	76.3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5	1.2	405	98.8	3.59	349	85.1	276	67.3
	미혼·비혼	26	1	3.8	25	96.2	3.62	19	73.1	17	65.4
	그 외	183	3	1.6	180	98.4	3.66	156	85.2	121	66.1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5	1.1	449	98.9	3.63	387	85.2	302	66.5
	전세	79	0	0.0	79	100.0	3.53	64	81.0	54	68.4
	월세	86	4	4.7	82	95.3	3.59	73	84.9	58	67.4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4	2.3	169	97.7	3.64	142	82.1	113	65.3
	부부가구	265	5	1.9	260	98.1	3.56	223	84.2	173	65.3
	기타가구	181	0	0.0	181	100.0	3.66	159	87.8	128	70.7

〈표 3-77〉 우울증, 치매 등 정신건강관리

(단위 : 명, %, 점/4점, 복수응답)

구분		n	필요도					제공방법			
			필요 없음		필요함		평균	교육		상담	
			n	%	n	%		n	%	n	%
계		619	3	0.5	616	99.5	3.65	487	78.7	461	74.5
성별	남성	301	2	0.7	299	99.3	3.61	239	79.4	219	72.8
	여성	318	1	0.3	317	99.7	3.69	248	78.0	242	76.1
연령	60~64세	264	1	0.4	263	99.6	3.61	213	80.7	188	71.2
	65~74세	355	2	0.6	353	99.4	3.68	274	77.2	273	76.9
지역	중구	45	0	0.0	45	100.0	3.58	24	53.3	41	91.1
	동구	34	0	0.0	34	100.0	3.82	25	73.5	32	94.1
	미추홀구	79	0	0.0	79	100.0	3.62	65	82.3	73	92.4
	연수구	69	0	0.0	69	100.0	3.78	59	85.5	62	89.9
	남동구	85	1	1.2	84	98.8	3.56	72	84.7	48	56.5
	부평구	87	0	0.0	87	100.0	3.83	66	75.9	58	66.7
	계양구	68	0	0.0	68	100.0	3.72	58	85.3	39	57.4
	서구	88	1	1.1	87	98.9	3.55	68	77.3	65	73.9
	강화군	41	1	2.4	40	97.6	3.46	32	78.0	23	56.1
	옹진군	23	0	0.0	23	100.0	3.39	18	78.3	20	87.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0	0.0	213	100.0	3.71	165	77.5	168	78.9
	고졸	309	3	1.0	306	99.0	3.61	243	78.6	222	71.8
	전문대졸 이상	97	0	0.0	97	100.0	3.64	79	81.4	71	73.2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3	0.7	407	99.3	3.62	319	77.8	315	76.8
	미혼·비혼	26	0	0.0	26	100.0	3.77	17	65.4	17	65.4
	그 외	183	0	0.0	183	100.0	3.69	151	82.5	129	70.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2	0.4	452	99.6	3.66	350	77.1	340	74.9
	전세	79	1	1.3	78	98.7	3.57	63	79.7	58	73.4
	월세	86	0	0.0	86	100.0	3.69	74	86.0	63	73.3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0	0.0	173	100.0	3.71	140	80.9	116	67.1
	부부가구	265	2	0.8	263	99.2	3.63	202	76.2	201	75.8
	기타가구	181	1	0.6	180	99.4	3.62	145	80.1	144	79.6

### 5) 새로운 또는 확장된 취미·여가활동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준비내용으로 새로운 또는 확장된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교육 필요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78>과 같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83.2%, 필요 없다는 응답은 16.8%였으며 평균 3.08점이었다. 제공방법으로는 교육(81.7%)을 상담(22.5%)보다 더 선호하였다.

새로운 또는 확장된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교육 필요도는 여성일 때, 60~4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제공방법으로 교육을 선호하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상담을 선호하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 6) 가족관계 재정립 및 의사소통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준비내용으로 가족관계 재정립 및 의사소통(대화)에 대한 교육 필요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79>와 같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95.5%, 필요 없다는 응답은 4.5%였으며 평균 3.28점이었다. 제공방법으로는 교육(85.9%)을 상담(35.3%)보다 더 선호하였다.

가족관계 재정립 및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 필요도는 여성일 때, 60~4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제공방법으로 교육을 선호하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상담을 선호하는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78〉 새로운 또는 확장된 취미·여가활동

(단위 : 명, %, 점/4점, 복수응답)

구분		n	필요도					제공방법			
			필요 없음		필요함		평균	교육		상담	
			n	%	n	%		n	%	n	%
계		619	104	16.8	515	83.2	3.08	506	81.7	139	22.5
성별	남성	301	52	17.3	249	82.7	3.05	248	82.4	60	19.9
	여성	318	52	16.4	266	83.6	3.11	258	81.1	79	24.8
연령	60~64세	264	42	15.9	222	84.1	3.14	217	82.2	54	20.5
	65~74세	355	62	17.5	293	82.5	3.05	289	81.4	85	23.9
지역	중구	45	14	31.1	31	68.9	2.98	41	91.1	5	11.1
	동구	34	4	11.8	30	88.2	3.09	31	91.2	5	14.7
	미추홀구	79	13	16.5	66	83.5	2.90	66	83.5	22	27.8
	연수구	69	4	5.8	65	94.2	3.17	65	94.2	9	13.0
	남동구	85	20	23.5	65	76.5	3.09	79	92.9	10	11.8
	부평구	87	2	2.3	85	97.7	3.37	56	64.4	33	37.9
	계양구	68	7	10.3	61	89.7	3.21	48	70.6	21	30.9
	서구	88	29	33.0	59	67.0	2.88	69	78.4	20	22.7
	강화군	41	7	17.1	34	82.9	3.10	32	78.0	9	22.0
	옹진군	23	4	17.4	19	82.6	2.96	19	82.6	5	21.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45	21.1	168	78.9	3.03	181	85.0	40	18.8
	고졸	309	37	12.0	272	88.0	3.16	248	80.3	75	24.3
	전문대졸 이상	97	22	22.7	75	77.3	2.97	77	79.4	24	24.7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68	16.6	342	83.4	3.08	335	81.7	91	22.2
	미혼·비혼	26	4	15.4	22	84.6	3.12	20	76.9	6	23.1
	그 외	183	32	17.5	151	82.5	3.09	151	82.5	42	23.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75	16.5	379	83.5	3.09	373	82.2	99	21.8
	전세	79	14	17.7	65	82.3	3.11	67	84.8	17	21.5
	월세	86	15	17.4	71	82.6	3.02	66	76.7	23	26.7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28	16.2	145	83.8	3.10	142	82.1	38	22.0
	부부가구	265	44	16.6	221	83.4	3.07	214	80.8	63	23.8
	기타가구	181	32	17.7	149	82.3	3.09	150	82.9	38	21.0

〈표 3-79〉 가족관계 재정립 및 의사소통

(단위 : 명, %, 점/4점, 복수응답)

구분		n	필요도					제공방법			
			필요 없음		필요함		평균	교육		상담	
			n	%	n	%		n	%	n	%
계		619	28	4.5	591	95.5	3.28	531	85.9	218	35.3
성별	남성	301	18	6.0	283	94.0	3.26	261	87.0	107	35.7
	여성	318	10	3.1	308	96.9	3.31	270	84.9	111	34.9
연령	60~64세	264	12	4.5	252	95.5	3.27	238	90.2	84	31.8
	65~74세	355	16	4.5	339	95.5	3.30	293	82.8	134	37.9
지역	중구	45	1	2.2	44	97.8	3.18	27	61.4	24	54.5
	동구	34	0	0.0	34	100.0	3.29	24	70.6	16	47.1
	미추홀구	79	2	2.5	77	97.5	3.27	54	68.4	51	64.6
	연수구	69	0	0.0	69	100.0	3.26	55	79.7	30	43.5
	남동구	85	7	8.2	78	91.8	3.33	84	98.8	19	22.4
	부평구	87	2	2.3	85	97.7	3.57	83	95.4	28	32.2
	계양구	68	4	5.9	64	94.1	3.37	67	98.5	20	29.4
	서구	88	9	10.2	79	89.8	3.06	83	94.3	9	10.2
	강화군	41	3	7.3	38	92.7	3.20	38	92.7	8	19.5
	옹진군	23	0	0.0	23	100.0	3.13	16	69.6	13	56.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1	5.2	202	94.8	3.27	188	88.3	70	32.9
	고졸	309	14	4.5	295	95.5	3.31	263	85.4	107	34.7
	전문대졸 이상	97	3	3.1	94	96.9	3.25	80	82.5	41	42.3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15	3.7	395	96.3	3.27	347	84.6	142	34.6
	미혼·비혼	26	2	7.7	24	92.3	3.31	21	80.8	11	42.3
	그 외	183	11	6.0	172	94.0	3.31	163	89.6	65	35.7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19	4.2	435	95.8	3.29	391	86.3	159	35.1
	전세	79	4	5.1	75	94.9	3.22	64	81.0	29	36.7
	월세	86	5	5.8	81	94.2	3.31	76	88.4	30	34.9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2	6.9	161	93.1	3.29	154	89.5	59	34.3
	부부가구	265	8	3.0	257	97.0	3.29	222	83.8	101	38.1
	기타가구	181	8	4.4	173	95.6	3.27	155	85.6	58	32.0

## 7) 인터넷, 스마트기기 이용방법 등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준비내용으로 편리한 생활을 위한 인터넷, 스마트기기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필요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80>과 같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94.8%, 필요 없다는 응답은 5.2%였으며 평균 3.15점이었다. 제공방법으로는 교육(95.9%)을 상담(5.7%)보다 더 선호하였다.

인터넷, 스마트기기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필요도는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제공방법으로 교육을 선호하는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서구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상담을 선호하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 8) 새로운 직업을 위한 직업능력 및 기술개발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준비내용으로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능력 및 기술개발에 대한 교육 필요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81>과 같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96.4%, 필요 없다는 응답은 3.6%였으며 평균 3.31점이었다. 제공방법으로는 교육(88.7%)을 상담(24.7%)보다 더 선호하였다.

새로운 직업을 위한 직업능력 및 기술개발에 대한 교육 필요도는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제공방법으로 교육을 선호하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상담을 선호하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80〉 인터넷, 스마트기기 이용방법 등

(단위 : 명, %, 점/4점, 복수응답)

구분		n	필요도					제공방법			
			필요 없음		필요함		평균	교육		상담	
			n	%	n	%		n	%	n	%
계		619	32	5.2	587	94.8	3.15	592	95.9	35	5.7
성별	남성	301	15	5.0	286	95.0	3.11	292	97.0	15	5.0
	여성	318	17	5.3	301	94.7	3.18	300	94.9	20	6.3
연령	60~64세	264	15	5.7	249	94.3	3.15	252	95.8	14	5.3
	65~74세	355	17	4.8	338	95.2	3.14	340	96.0	21	5.9
지역	중구	45	0	0.0	45	100.0	3.00	43	95.6	2	4.4
	동구	34	0	0.0	34	100.0	3.12	33	97.1	2	5.9
	미추홀구	79	14	17.7	65	82.3	2.84	62	80.5	21	27.3
	연수구	69	0	0.0	69	100.0	3.06	66	95.7	3	4.3
	남동구	85	3	3.5	82	96.5	3.24	83	97.6	3	3.5
	부평구	87	2	2.3	85	97.7	3.45	86	98.9	3	3.4
	계양구	68	0	0.0	68	100.0	3.32	67	98.5	1	1.5
	서구	88	10	11.4	78	88.6	3.09	88	100.0	0	0.0
	강화군	41	2	4.9	39	95.1	3.20	41	100.0	0	0.0
옹진군	23	1	4.3	22	95.7	2.96	23	100.0	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1	5.2	202	94.8	3.22	203	95.8	13	6.1
	고졸	309	15	4.9	294	95.1	3.13	297	96.4	16	5.2
	전문대졸 이상	97	6	6.2	91	93.8	3.06	92	94.8	6	6.2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26	6.3	384	93.7	3.12	394	96.3	19	4.6
	미혼·비혼	26	2	7.7	24	92.3	3.15	25	100.0	3	12.0
	그 외	183	4	2.2	179	97.8	3.21	173	94.5	13	7.1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22	4.8	432	95.2	3.16	441	97.1	17	3.7
	전세	79	5	6.3	74	93.7	3.10	71	89.9	10	12.7
	월세	86	5	5.8	81	94.2	3.10	80	95.2	8	9.5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5	2.9	168	97.1	3.22	164	95.3	13	7.6
	부부가구	265	16	6.0	249	94.0	3.13	253	95.8	14	5.3
	기타가구	181	11	6.1	170	93.9	3.10	175	96.7	8	4.4

〈표 3-81〉 새로운 직업을 위한 직업능력 및 기술개발

(단위 : 명, %, 점/4점, 복수응답)

구분		n	필요도					제공방법			
			필요 없음		필요함		평균	교육		상담	
			n	%	n	%		n	%	n	%
계		619	22	3.6	597	96.4	3.31	549	88.7	153	24.7
성별	남성	301	7	2.3	294	97.7	3.30	273	90.7	63	20.9
	여성	318	15	4.7	303	95.3	3.31	276	86.8	90	28.3
연령	60~64세	264	9	3.4	255	96.6	3.34	236	89.4	63	23.9
	65~74세	355	13	3.7	342	96.3	3.28	313	88.2	90	25.4
지역	중구	45	1	2.2	44	97.8	3.20	42	93.3	9	20.0
	동구	34	0	0.0	34	100.0	3.24	33	97.1	6	17.6
	미추홀구	79	5	6.3	74	93.7	3.19	71	89.9	30	38.0
	연수구	69	0	0.0	69	100.0	3.19	65	94.2	10	14.5
	남동구	85	1	1.2	84	98.8	3.32	74	87.1	28	32.9
	부평구	87	2	2.3	85	97.7	3.63	83	95.4	8	9.2
	계양구	68	2	2.9	66	97.1	3.53	60	88.2	10	14.7
	서구	88	9	10.2	79	89.8	3.20	70	79.5	30	34.1
	강화군	41	2	4.9	39	95.1	3.12	33	80.5	13	31.7
	옹진군	23	0	0.0	23	100.0	3.13	18	78.3	9	39.1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7	3.3	206	96.7	3.35	189	88.7	55	25.8
	고졸	309	11	3.6	298	96.4	3.31	276	89.3	76	24.6
	전문대졸 이상	97	4	4.1	93	95.9	3.20	84	86.6	22	22.7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18	4.4	392	95.6	3.26	369	90.0	94	22.9
	미혼·비혼	26	0	0.0	26	100.0	3.46	25	96.2	5	19.2
	그 외	183	4	2.2	179	97.8	3.39	155	84.7	54	29.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20	4.4	434	95.6	3.28	408	89.9	102	22.5
	전세	79	1	1.3	78	98.7	3.33	67	84.8	30	38.0
	월세	86	1	1.2	85	98.8	3.40	74	86.0	21	24.4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2	1.2	171	98.8	3.41	149	86.1	47	27.2
	부부가구	265	8	3.0	257	97.0	3.28	239	90.2	61	23.0
	기타가구	181	12	6.6	169	93.4	3.24	161	89.0	45	24.9

### 9) 노년기 일자리 정보 및 구직방법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준비내용으로 노년기 일자리 정보 및 구직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82>와 같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97.6%, 필요 없다는 응답은 2.4%였으며 평균 3.37점이었다. 제공방법으로는 교육(69.6%)을 상담(53.9%)보다 더 선호하였다.

노년기 일자리 정보 및 구직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도는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동 구미추출구연수구옹진군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 및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제공방법으로 교육을 선호하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상담을 선호하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 10) 자원봉사 수요처 및 단체활동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준비내용으로 자원봉사 수요처 및 단체활동에 대한 교육 필요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83>과 같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83.5%, 필요 없다는 응답은 16.5%였으며 평균 2.95점이었다. 제공방법으로는 교육(77.4%)을 상담(27.6%)보다 더 선호하였다.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및 단체 활동에 대한 교육 필요도는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제공방법으로 교육을 선호하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상담을 선호하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82〉 노년기 일자리 정보 및 구직방법

(단위 : 명, %, 점/4점, 복수응답)

구분		n	필요도					제공방법			
			필요 없음		필요함		평균	교육		상담	
			n	%	n	%		n	%	n	%
계		619	15	2.4	604	97.6	3.37	430	69.6	333	53.9
성별	남성	301	4	1.3	297	98.7	3.35	204	67.8	159	52.8
	여성	318	11	3.5	307	96.5	3.38	226	71.3	174	54.9
연령	60~64세	264	5	1.9	259	98.1	3.39	189	71.6	132	50.0
	65~74세	355	10	2.8	345	97.2	3.35	241	68.1	201	56.8
지역	중구	45	0	0.0	45	100.0	3.51	31	68.9	24	53.3
	동구	34	0	0.0	34	100.0	3.53	26	76.5	17	50.0
	미추홀구	79	0	0.0	79	100.0	3.28	60	75.9	42	53.2
	연수구	69	0	0.0	69	100.0	3.55	44	63.8	39	56.5
	남동구	85	1	1.2	84	98.8	3.39	69	81.2	43	50.6
	부평구	87	2	2.3	85	97.7	3.41	42	48.3	60	69.0
	계양구	68	1	1.5	67	98.5	3.34	50	73.5	26	38.2
	서구	88	10	11.4	78	88.6	3.22	61	70.1	48	55.2
	강화군	41	1	2.4	40	97.6	3.22	30	73.2	24	58.5
	옹진군	23	0	0.0	23	100.0	3.26	17	73.9	10	43.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5	2.3	208	97.7	3.42	149	70.0	124	58.2
	고졸	309	7	2.3	302	97.7	3.34	219	71.1	159	51.6
	전문대졸 이상	97	3	3.1	94	96.9	3.32	62	63.9	50	51.5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11	2.7	399	97.3	3.33	290	70.9	213	52.1
	미혼·비혼	26	0	0.0	26	100.0	3.42	17	65.4	15	57.7
	그 외	183	4	2.2	179	97.8	3.45	123	67.2	105	57.4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13	2.9	441	97.1	3.37	317	70.0	247	54.5
	전세	79	2	2.5	77	97.5	3.30	54	68.4	44	55.7
	월세	86	0	0.0	86	100.0	3.40	59	68.6	42	48.8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2	1.2	171	98.8	3.45	116	67.1	99	57.2
	부부가구	265	8	3.0	257	97.0	3.32	187	70.8	143	54.2
	기타가구	181	5	2.8	176	97.2	3.36	127	70.2	91	50.3

〈표 3-83〉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및 단체 활동

(단위 : 명, %, 점/4점, 복수응답)

구분		n	필요도					제공방법			
			필요 없음		필요함		평균	교육		상담	
			n	%	n	%		n	%	n	%
계		619	102	16.5	517	83.5	2.95	477	77.4	170	27.6
성별	남성	301	52	17.3	249	82.7	2.92	238	79.3	75	25.0
	여성	318	50	15.7	268	84.3	2.97	239	75.6	95	30.1
연령	60~64세	264	42	15.9	222	84.1	2.97	215	82.1	62	23.7
	65~74세	355	60	16.9	295	83.1	2.94	262	74.0	108	30.5
지역	중구	45	13	28.9	32	71.1	2.71	35	77.8	14	31.1
	동구	34	5	14.7	29	85.3	2.88	29	85.3	6	17.6
	미추홀구	79	38	48.1	41	51.9	2.49	56	72.7	32	41.6
	연수구	69	8	11.6	61	88.4	2.90	52	75.4	22	31.9
	남동구	85	7	8.2	78	91.8	3.15	74	87.1	14	16.5
	부평구	87	2	2.3	85	97.7	3.31	65	74.7	23	26.4
	계양구	68	5	7.4	63	92.6	3.07	48	70.6	20	29.4
	서구	88	14	15.9	74	84.1	2.93	68	78.2	20	23.0
	강화군	41	6	14.6	35	85.4	2.95	31	75.6	12	29.3
	옹진군	23	4	17.4	19	82.6	2.83	19	82.6	7	30.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39	18.3	174	81.7	2.96	166	78.7	58	27.5
	고졸	309	50	16.2	259	83.8	2.95	239	77.6	83	26.9
	전문대졸 이상	97	13	13.4	84	86.6	2.94	72	74.2	29	29.9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67	16.3	343	83.7	2.94	314	77.0	110	27.0
	미혼·비혼	26	8	30.8	18	69.2	2.77	18	72.0	8	32.0
	그 외	183	27	14.8	156	85.2	3.00	145	79.2	52	28.4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69	15.2	385	84.8	2.97	352	77.5	124	27.3
	전세	79	17	21.5	62	78.5	2.91	59	75.6	22	28.2
	월세	86	16	18.6	70	81.4	2.87	66	78.6	24	28.6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27	15.6	146	84.4	2.98	136	79.1	48	27.9
	부부가구	265	41	15.5	224	84.5	2.95	203	76.9	70	26.5
	기타가구	181	34	18.8	147	81.2	2.92	138	76.7	52	28.9

## 14. 노후준비 정보 획득 경로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었던 곳을 최대 3개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다음 <표 3-84>와 같이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얻는다는 응답이 97.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주변사람(84.8%), 유튜브 및 인터넷 검색(64.3%), 행정기관(19.1%), 신문이나 광고지(12.8%), 민간시설(6.8%), 국민연금공단 및 회사 교육(4.8%), SNS(2.3%), 복지시설(2.1%)의 순이었으며 얻는 곳이 없다는 응답은 1명(0.2%)에 불과하였다.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계양구 및 강화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신문이나 광고지를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유튜브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 및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주변사람들을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동사무소나 구청 등 행정기관을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국민연금공단이나 회사의 교육을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복지관, 평생교육원 등 복지시설을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은행, 보험사 등 민간시설을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얻는 곳이 없다는 응답은 1사례로, 남동구에 거주하는 중졸 이하의 65~74세 남성으로 그 외 혼인상태, 월세, 1인가구의 특성을 보였다.

〈표 3-84〉 노후준비 정보 획득 경로

(단위 : 명, %, 복수응답)

구분	n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신문이나 광고지를 통해		유튜브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주변사람들을 통해		
		n	%	n	%	n	%	n	%	n	%	
계	619	602	97.3	79	12.8	398	64.3	14	2.3	525	84.8	
성별	남성	301	289	96.0	56	18.6	209	69.4	7	2.3	240	79.7
	여성	318	313	98.4	23	7.2	189	59.4	7	2.2	285	89.6
연령	60~64세	264	253	95.8	38	14.4	198	75.0	8	3.0	211	79.9
	65~74세	355	349	98.3	41	11.5	200	56.3	6	1.7	314	88.5
지역	중구	45	43	95.6	10	22.2	38	84.4	1	2.2	31	68.9
	동구	34	33	97.1	3	8.8	28	82.4	0	0.0	22	64.7
	미추홀구	79	75	94.9	8	10.1	65	82.3	5	6.3	58	73.4
	연수구	69	66	95.7	16	23.2	51	73.9	2	2.9	51	73.9
	남동구	85	83	97.6	10	11.8	41	48.2	2	2.4	83	97.6
	부평구	87	86	98.9	7	8.0	50	57.5	0	0.0	82	94.3
	계양구	68	68	100.0	8	11.8	38	55.9	1	1.5	62	91.2
	서구	88	86	97.7	9	10.2	53	60.2	2	2.3	78	88.6
	강화군	41	41	100.0	6	14.6	17	41.5	1	2.4	37	90.2
옹진군	23	21	91.3	2	8.7	17	73.9	0	0.0	21	91.3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209	98.1	21	9.9	104	48.8	3	1.4	197	92.5
	고졸	309	300	97.1	46	14.9	213	68.9	7	2.3	258	83.5
	전문대졸 이상	97	93	95.9	12	12.4	81	83.5	4	4.1	70	72.2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397	96.8	61	14.9	272	66.3	6	1.5	353	86.1
	미혼·비혼	26	25	96.2	3	11.5	17	65.4	1	3.8	21	80.8
	그 외	183	180	98.4	15	8.2	109	59.6	7	3.8	151	82.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445	98.0	53	11.7	299	65.9	9	2.0	393	86.6
	전세	79	76	96.2	17	21.5	52	65.8	2	2.5	63	79.7
	월세	86	81	94.2	9	10.5	47	54.7	3	3.5	69	80.2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70	98.3	15	8.7	100	57.8	7	4.0	143	82.7
	부부가구	265	261	98.5	39	14.7	168	63.4	3	1.1	230	86.8
	기타가구	181	171	94.5	25	13.8	130	71.8	4	2.2	152	84.0

(표계속)

구분		동사무소나 구청 등 행정기관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나 회사의 교육을 통해		복지관, 평생교육원 등 복지시설을 통해		은행, 보험사 등 민간 시설을 통해		얻는 곳이 없음	
		n	%	n	%	n	%	n	%	n	%
계		118	19.1	30	4.8	13	2.1	42	6.8	1	0.2
성별	남성	54	17.9	16	5.3	5	1.7	17	5.6	1	0.3
	여성	64	20.1	14	4.4	8	2.5	25	7.9	0	0.0
연령	60~64세	41	15.5	11	4.2	5	1.9	22	8.3	0	0.0
	65~74세	77	21.7	19	5.4	8	2.3	20	5.6	1	0.3
지역	중구	3	6.7	6	13.3	1	2.2	2	4.4	0	0.0
	동구	8	23.5	6	17.6	2	5.9	0	0.0	0	0.0
	미추홀구	9	11.4	5	6.3	3	3.8	7	8.9	0	0.0
	연수구	7	10.1	7	10.1	1	1.4	5	7.2	0	0.0
	남동구	21	24.7	1	1.2	0	0.0	7	8.2	1	1.2
	부평구	14	16.1	1	1.1	1	1.1	8	9.2	0	0.0
	계양구	18	26.5	0	0.0	0	0.0	5	7.4	0	0.0
	서구	17	19.3	2	2.3	4	4.5	6	6.8	0	0.0
	강화군	17	41.5	0	0.0	0	0.0	1	2.4	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57	26.8	3	1.4	4	1.9	13	6.1	1	0.5
	고졸	56	18.1	15	4.9	4	1.3	21	6.8	0	0.0
	전문대졸 이상	5	5.2	12	12.4	5	5.2	8	8.2	0	0.0
혼인 상태	혼인 중	62	15.1	21	5.1	10	2.4	31	7.6	0	0.0
	미혼·비혼	10	38.5	0	0.0	0	0.0	0	0.0	0	0.0
	그 외	46	25.1	9	4.9	3	1.6	11	6.0	1	0.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72	15.9	22	4.8	11	2.4	34	7.5	0	0.0
	전세	12	15.2	7	8.9	1	1.3	3	3.8	0	0.0
	월세	34	39.5	1	1.2	1	1.2	5	5.8	1	1.2
가구 유형	1인가구	49	28.3	7	4.0	3	1.7	9	5.2	1	0.6
	부부가구	43	16.2	9	3.4	6	2.3	22	8.3	0	0.0
	기타가구	26	14.4	14	7.7	4	2.2	11	6.1	0	0.0

## 제4절 정책 욕구

### 1.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노력

〈표 3-85〉와 같이 중앙정부나 인천시가 노인 일자리 지원을 충분히 마련하는지에 대해 평균 2.99점으로 중간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부정평가는 24.9%, 긍정평가는 25.7%였다.

노인일자리 지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높았다.

노인일자리 지원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중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높았다.

〈표 3-85〉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노력

(단위 : 명, %, 점/5점)

구분	n	부족함		보통		충분함		평균	
		n	%	n	%	n	%		
계	619	154	24.9	306	49.4	159	25.7	2.99	
성별	남성	301	81	26.9	165	54.8	55	18.3	2.87
	여성	318	73	23.0	141	44.3	104	32.7	3.10
연령	60~64세	264	57	21.6	146	55.3	61	23.1	2.98
	65~74세	355	97	27.3	160	45.1	98	27.6	2.99
지역	중구	45	13	28.9	16	35.6	16	35.6	3.04
	동구	34	12	35.3	11	32.4	11	32.4	2.91
	미추홀구	79	20	25.3	42	53.2	17	21.5	2.92
	연수구	69	18	26.1	32	46.4	19	27.5	2.99
	남동구	85	22	25.9	43	50.6	20	23.5	2.96
	부평구	87	29	33.3	45	51.7	13	14.9	2.76
	계양구	68	8	11.8	43	63.2	17	25.0	3.13
	서구	88	17	19.3	44	50.0	27	30.7	3.13
	강화군	41	8	19.5	22	53.7	11	26.8	3.07
	옹진군	23	7	30.4	8	34.8	8	34.8	3.0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51	23.9	115	54.0	47	22.1	2.97
	고졸	309	75	24.3	142	46.0	92	29.8	3.04
	전문대졸 이상	97	28	28.9	49	50.5	20	20.6	2.88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100	24.4	196	47.8	114	27.8	3.02
	미혼·비혼	26	6	23.1	14	53.8	6	23.1	2.92
	그 외	183	48	26.2	96	52.5	39	21.3	2.92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128	28.2	210	46.3	116	25.6	2.95
	전세	79	12	15.2	43	54.4	24	30.4	3.13
	월세	86	14	16.3	53	61.6	19	22.1	3.07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44	25.4	96	55.5	33	19.1	2.90
	부부가구	265	62	23.4	119	44.9	84	31.7	3.08
	기타가구	181	48	26.5	91	50.3	42	23.2	2.93

## 2.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

### 1) 인지 여부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을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86>과 같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경로당은 각각 99.7%가 알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방문요양서비스(99.0%), 노인의료복지시설(98.2%), 노인일자리지원기관(92.6%), 주간보호서비스(89.8%), 노인보호전문기관(60.7%), 긴급돌봄서비스(54.6%)의 순으로 인지율이 높았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하며,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인지율이 낮았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는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인지율이 낮았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전문대졸 이상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인지율이 낮았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인지율이 낮았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인지율이 낮았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인지율이 낮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인지율이 낮았다.

긴급돌봄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하는 서비스로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인지율이 낮았다.

〈표 3-86〉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 인지 여부

(단위 : 명, %, “안다”의 복수응답)

구분	n	노인의료 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n	%	n	%	n	%	n	%	
계	619	608	98.2	613	99.0	556	89.8	617	99.7	
성별	남성	301	295	98.0	297	98.7	260	86.4	299	99.3
	여성	318	313	98.4	316	99.4	296	93.1	318	100.0
연령	60~64세	264	258	97.7	259	98.1	233	88.3	263	99.6
	65~74세	355	350	98.6	354	99.7	323	91.0	354	99.7
지역	중구	45	45	100.0	45	100.0	43	95.6	45	100.0
	동구	34	34	100.0	34	100.0	24	70.6	34	100.0
	미추홀구	79	70	88.6	75	94.9	60	75.9	78	98.7
	연수구	69	69	100.0	68	98.6	47	68.1	69	100.0
	남동구	85	85	100.0	85	100.0	84	98.8	84	98.8
	부평구	87	87	100.0	87	100.0	86	98.9	87	100.0
	계양구	68	67	98.5	68	100.0	68	100.0	68	100.0
	서구	88	88	100.0	88	100.0	87	98.9	88	100.0
	강화군	41	41	100.0	41	100.0	41	100.0	41	100.0
옹진군	23	22	95.7	22	95.7	16	69.6	23	10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209	98.1	211	99.1	191	89.7	212	99.5
	고졸	309	304	98.4	306	99.0	282	91.3	308	99.7
	전문대졸 이상	97	95	97.9	96	99.0	83	85.6	97	100.0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405	98.8	408	99.5	374	91.2	410	100.0
	미혼·비혼	26	25	96.2	26	100.0	24	92.3	26	100.0
	그 외	183	178	97.3	179	97.8	158	86.3	181	98.9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449	98.9	453	99.8	409	90.1	454	100.0
	전세	79	76	96.2	76	96.2	70	88.6	77	97.5
	월세	86	83	96.5	84	97.7	77	89.5	86	100.0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68	97.1	169	97.7	149	86.1	171	98.8
	부부가구	265	262	98.9	263	99.2	246	92.8	265	100.0
	기타가구	181	178	98.3	181	100.0	161	89.0	181	100.0

(표계속)

구분		경로당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긴급돌봄 서비스	
		n	%	n	%	n	%	n	%
계		617	99.7	573	92.6	376	60.7	338	54.6
성별	남성	299	99.3	273	90.7	182	60.5	158	52.5
	여성	318	100.0	300	94.3	194	61.0	180	56.6
연령	60~64세	263	99.6	240	90.9	165	62.5	150	56.8
	65~74세	354	99.7	333	93.8	211	59.4	188	53.0
지역	중구	45	100.0	41	91.1	18	40.0	16	35.6
	동구	34	100.0	32	94.1	14	41.2	18	52.9
	미추홀구	79	100.0	68	86.1	42	53.2	38	48.1
	연수구	68	98.6	56	81.2	14	20.3	16	23.2
	남동구	84	98.8	84	98.8	67	78.8	58	68.2
	부평구	87	100.0	82	94.3	65	74.7	56	64.4
	계양구	68	100.0	67	98.5	53	77.9	42	61.8
	서구	88	100.0	86	97.7	61	69.3	54	61.4
	강화군	41	100.0	41	100.0	33	80.5	29	70.7
옹진군	23	100.0	16	69.6	9	39.1	11	47.8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00.0	200	93.9	124	58.2	112	52.6
	고졸	308	99.7	284	91.9	189	61.2	168	54.4
	전문대졸 이상	96	99.0	89	91.8	63	64.9	58	59.8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100.0	385	93.9	265	64.6	244	59.5
	미혼·비혼	26	100.0	21	80.8	12	46.2	10	38.5
	그 외	181	98.9	167	91.3	99	54.1	84	45.9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3	99.8	425	93.6	278	61.2	261	57.5
	전세	78	98.7	72	91.1	51	64.6	42	53.2
	월세	86	100.0	76	88.4	47	54.7	35	40.7
가구 유형	1인가구	171	98.8	158	91.3	95	54.9	77	44.5
	부부가구	265	100.0	252	95.1	169	63.8	157	59.2
	기타가구	181	100.0	163	90.1	112	61.9	104	57.5

## 2) 이용 경험 여부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을 각 유형별로 선별하여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87>과 같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는 없어 이를 제외하고 기술하였다. 가장 많이 이용한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11.0%)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9.4%), 경로당(1.1%), 방문요양서비스(0.3%)의 순이었다.

집단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사례 수인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응답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강화

군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혼인 중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참여 경험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1인가구일 때 참여 경험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표 3-87〉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명, %, “있다”의 복수응답)

구분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N	n	%	N	n	%	N	n	%	N	n	%
계		613	2	0.3	617	58	9.4	617	7	1.1	573	63	11.0
성별	남성	297	1	0.3	299	30	10.0	299	2	0.7	273	26	9.5
	여성	316	1	0.3	318	28	8.8	318	5	1.6	300	37	12.3
연령	60~64세	259	1	0.4	263	13	4.9	263	0	0.0	240	13	5.4
	65~74세	354	1	0.3	354	45	12.7	354	7	2.0	333	50	15.0
지역	중구	45	0	0.0	45	2	4.4	45	1	2.2	41	5	12.2
	동구	34	0	0.0	34	0	0.0	34	1	2.9	32	6	18.8
	미추홀구	75	1	1.3	78	10	12.8	79	0	0.0	68	8	11.8
	연수구	68	0	0.0	69	10	14.5	68	0	0.0	56	16	28.6
	남동구	85	1	1.2	84	1	1.2	84	0	0.0	84	7	8.3
	부평구	87	0	0.0	87	10	11.5	87	2	2.3	82	3	3.7
	계양구	68	0	0.0	68	5	7.4	68	1	1.5	67	7	10.4
	서구	88	0	0.0	88	9	10.2	88	0	0.0	86	5	5.8
	강화군	41	0	0.0	41	10	24.4	41	0	0.0	41	4	9.8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1	2	0.9	212	29	13.7	213	5	2.3	200	30	15.0
	고졸	306	0	0.0	308	22	7.1	308	0	0.0	284	28	9.9
	전문대졸 이상	96	0	0.0	97	7	7.2	96	2	2.1	89	5	5.6
혼인 상태	혼인 중	408	1	0.2	410	34	8.3	410	3	0.7	385	35	9.1
	미혼·비혼	26	0	0.0	26	4	15.4	26	0	0.0	21	0	0.0
	그 외	179	1	0.6	181	20	11.0	181	4	2.2	167	28	16.8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3	1	0.2	454	42	9.3	453	5	1.1	425	49	11.5
	전세	76	0	0.0	77	4	5.2	78	1	1.3	72	7	9.7
	월세	84	1	1.2	86	12	14.0	86	1	1.2	76	7	9.2
가구 유형	1인가구	169	1	0.6	171	22	12.9	171	4	2.3	158	21	13.3
	부부가구	263	0	0.0	265	22	8.3	265	1	0.4	252	24	9.5
	기타가구	181	1	0.6	181	14	7.7	181	2	1.1	163	18	11.0

## 3) 이용 만족도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을 각 유형별로 선별하여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3-88>과 같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는 없어 이를 제외하고 기술하였다. 가장 만족한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은 방문요양서비스(3.50점)였으며, 그 뒤를 이어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3.48점), 노인일자리지원기관(3.43점), 경로당(3.00점)의 순이었다.

<표 3-88>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 이용만족도

(단위 : 명, 점/4점 만점)

구분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N	n	평균	N	n	%	N	n	%	N	n	%
계		613	2	3.50	617	58	3.48	617	7	3.00	573	63	3.43
성별	남성	297	1	4.00	299	30	3.53	299	2	3.00	273	26	3.27
	여성	316	1	3.00	318	28	3.43	318	5	3.00	300	37	3.54
연령	60~64세	259	1	4.00	263	13	3.46	263	0	0.0	240	13	3.08
	65~74세	354	1	3.00	354	45	3.49	354	7	3.00	333	50	3.52
지역	중구	45	0	0.0	45	2	3.50	45	1	3.00	41	5	3.20
	동구	34	0	0.0	34	0	0.00	34	1	3.00	32	6	3.33
	미추홀구	75	1	4.00	78	10	3.30	79	0	0.0	68	8	3.75
	연수구	68	0	0.0	69	10	3.40	68	0	0.0	56	16	3.13
	남동구	85	1	3.00	84	1	2.00	84	0	0.0	84	7	3.43
	부평구	87	0	0.0	87	10	3.50	87	2	3.00	82	3	3.67
	계양구	68	0	0.0	68	5	3.60	68	1	3.00	67	7	3.71
	서구	88	0	0.0	88	9	3.56	88	0	0.0	86	5	3.40
	강화군	41	0	0.0	41	10	3.70	41	0	0.0	41	4	3.75
옹진군	22	0	0.0	23	1	4.00	23	2	3.00	16	2	3.5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1	2	3.50	212	29	3.45	213	5	3.00	200	30	3.47
	고졸	306	0	0.0	308	22	3.55	308	0	0.0	284	28	3.43
	전문대졸 이상	96	0	0.0	97	7	3.43	96	2	3.00	89	5	3.20
혼인 상태	혼인 중	408	1	3.00	410	34	3.50	410	3	3.00	385	35	3.31
	미혼·비혼	26	0	0.0	26	4	3.50	26	0	0.0	21	0	0.0
	그 외	179	1	4.00	181	20	3.45	181	4	3.00	167	28	3.57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3	1	3.00	454	42	3.48	453	5	3.00	425	49	3.39
	전세	76	0	0.0	77	4	3.75	78	1	3.00	72	7	3.29
	월세	84	1	4.00	86	12	3.42	86	1	3.00	76	7	3.86
가구 유형	1인가구	169	1	4.00	171	22	3.45	171	4	3.00	158	21	3.62
	부부가구	263	0	0.0	265	22	3.59	265	1	3.00	252	24	3.42
	기타가구	181	1	3.00	181	14	3.36	181	2	3.00	163	18	3.22

집단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사례 수인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노인일자리지원 기관의 응답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의 이용만족도는 남성일 때, 응진군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혼인 중 및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이용만족도는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 4) 이용 의향

〈표 3-89〉와 같이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에 대해 이용 의향을 살펴보았다. 이는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지속하여 이용할 의향이 있음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음을 뜻한다. 그 결과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88.9%)을 이용할 의향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방문요양서비스(83.5%), 노인의료복지시설(80.3%), 노인일자리지원기관(76.4%), 긴급돌봄서비스(75.4%), 주간보호서비스(72.4%), 노인보호전문기관(65.8%), 경로당(56.9%)의 순이었으며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용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1.3%였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계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자가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경로당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응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등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자가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부평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용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89〉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 이용 의향

(단위 : 명, %, “있다”의 복수응답)

구분	n	노인의료 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n	%	n	%	n	%	n	%	
계	619	497	80.3	517	83.5	448	72.4	550	88.9	
성별	남성	301	235	78.1	235	78.1	204	67.8	259	86.0
	여성	318	262	82.4	282	88.7	244	76.7	291	91.5
연령	60~64세	264	210	79.5	212	80.3	188	71.2	229	86.7
	65~74세	355	287	80.8	305	85.9	260	73.2	321	90.4
지역	중구	45	32	71.1	41	91.1	30	66.7	35	77.8
	동구	34	27	79.4	32	94.1	26	76.5	33	97.1
	미추홀구	79	58	73.4	74	93.7	59	74.7	60	75.9
	연수구	69	54	78.3	68	98.6	62	89.9	64	92.8
	남동구	85	73	85.9	59	69.4	56	65.9	75	88.2
	부평구	87	78	89.7	78	89.7	75	86.2	85	97.7
	계양구	68	62	91.2	58	85.3	54	79.4	65	95.6
	서구	88	63	71.6	59	67.0	48	54.5	80	90.9
	강화군	41	30	73.2	26	63.4	25	61.0	31	75.6
옹진군	23	20	87.0	22	95.7	13	56.5	22	95.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79	84.0	181	85.0	158	74.2	195	91.5
	고졸	309	248	80.3	259	83.8	220	71.2	278	90.0
	전문대졸 이상	97	70	72.2	77	79.4	70	72.2	77	79.4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322	78.5	338	82.4	293	71.5	365	89.0
	미혼·비혼	26	22	84.6	24	92.3	19	73.1	23	88.5
	그 외	183	153	83.6	155	84.7	136	74.3	162	88.5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365	80.4	376	82.8	328	72.2	407	89.6
	전세	79	63	79.7	68	86.1	59	74.7	68	86.1
	월세	86	69	80.2	73	84.9	61	70.9	75	87.2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48	85.5	148	85.5	125	72.3	152	87.9
	부부가구	265	209	78.9	223	84.2	194	73.2	239	90.2
	기타가구	181	140	77.3	146	80.7	129	71.3	159	87.8

(표계속)

구분		경로당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긴급돌봄 서비스		모두 이용 의향 없음	
		n	%	n	%	n	%	n	%	n	%
계		352	56.9	473	76.4	407	65.8	467	75.4	8	1.3
성별	남성	171	56.8	213	70.8	195	64.8	230	76.4	5	1.7
	여성	181	56.9	260	81.8	212	66.7	237	74.5	3	0.9
연령	60~64세	144	54.5	194	73.5	168	63.6	195	73.9	7	2.7
	65~74세	208	58.6	279	78.6	239	67.3	272	76.6	1	0.3
지역	중구	19	42.2	33	73.3	22	48.9	24	53.3	1	2.2
	동구	24	70.6	33	97.1	23	67.6	34	100.0	0	0.0
	미추홀구	36	45.6	54	68.4	38	48.1	52	65.8	0	0.0
	연수구	49	71.0	63	91.3	65	94.2	66	95.7	0	0.0
	남동구	48	56.5	61	71.8	50	58.8	62	72.9	1	1.2
	부평구	58	66.7	77	88.5	79	90.8	77	88.5	1	1.1
	계양구	35	51.5	52	76.5	49	72.1	53	77.9	1	1.5
	서구	43	48.9	58	65.9	50	56.8	61	69.3	2	2.3
	강화군	17	41.5	23	56.1	20	48.8	24	58.5	2	4.9
옹진군	23	100.0	19	82.6	11	47.8	14	60.9	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39	65.3	176	82.6	149	70.0	162	76.1	2	0.9
	고졸	172	55.7	231	74.8	194	62.8	232	75.1	3	1.0
	전문대졸 이상	41	42.3	66	68.0	64	66.0	73	75.3	3	3.1
혼인 상태	혼인 중	221	53.9	312	76.1	259	63.2	303	73.9	3	0.7
	미혼·비혼	16	61.5	18	69.2	19	73.1	22	84.6	0	0.0
	그 외	115	62.8	143	78.1	129	70.5	142	77.6	5	2.7
주택 점유 형태	자가	251	55.3	349	76.9	293	64.5	338	74.4	5	1.1
	전세	44	55.7	60	75.9	52	65.8	59	74.7	2	2.5
	월세	57	66.3	64	74.4	62	72.1	70	81.4	1	1.2
가구 유형	1인가구	107	61.8	131	75.7	125	72.3	138	79.8	3	1.7
	부부가구	144	54.3	203	76.6	172	64.9	197	74.3	0	0.0
	기타가구	101	55.8	139	76.8	110	60.8	132	72.9	5	2.8

### 5) 확대 필요성

〈표 3-90〉과 같이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에 대해 확대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간보호서비스(96.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96.4%), 방문요양서비스(95.8%), 긴급돌봄서비스(95.3%),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93.5%),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각 92.9%), 경로당(83.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확대 필요 없다는 응답은 0.2%였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계양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방문요양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동구·연수구·계양구·강화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주간보호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일 때, 동구 및 연수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강화군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90〉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 확대 필요성

(단위 : 명, %, “있다”의 복수응답)

구분	n	노인의료 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n	%	n	%	n	%	n	%	
계	619	575	92.9	593	95.8	599	96.8	579	93.5	
성별	남성	301	274	91.0	288	95.7	293	97.3	282	93.7
	여성	318	301	94.7	305	95.9	306	96.2	297	93.4
연령	60~64세	264	245	92.8	254	96.2	254	96.2	253	95.8
	65~74세	355	330	93.0	339	95.5	345	97.2	326	91.8
지역	중구	45	36	80.0	43	95.6	42	93.3	34	75.6
	동구	34	29	85.3	34	100.0	34	100.0	33	97.1
	미추홀구	79	75	94.9	75	94.9	78	98.7	70	88.6
	연수구	69	66	95.7	69	100.0	69	100.0	67	97.1
	남동구	85	80	94.1	81	95.3	83	97.6	82	96.5
	부평구	87	77	88.5	75	86.2	79	90.8	82	94.3
	계양구	68	68	100.0	68	100.0	67	98.5	65	95.6
	서구	88	83	94.3	85	96.6	86	97.7	84	95.5
	강화군	41	40	97.6	41	100.0	40	97.6	40	97.6
최종 학력	응진군	23	21	91.3	22	95.7	21	91.3	22	95.7
	중졸 이하	213	196	92.0	203	95.3	205	96.2	200	93.9
	고졸	309	290	93.9	298	96.4	300	97.1	291	94.2
혼인 상태	전문대졸 이상	97	89	91.8	92	94.8	94	96.9	88	90.7
	혼인 중	410	377	92.0	394	96.1	395	96.3	383	93.4
	미혼·비혼	26	26	100.0	25	96.2	26	100.0	25	96.2
주택 점유 형태	그 외	183	172	94.0	174	95.1	178	97.3	171	93.4
	자가	454	422	93.0	434	95.6	438	96.5	424	93.4
	전세	79	70	88.6	75	94.9	76	96.2	72	91.1
가구 유형	월세	86	83	96.5	84	97.7	85	98.8	83	96.5
	1인가구	173	166	96.0	164	94.8	168	97.1	162	93.6
	부부가구	265	246	92.8	255	96.2	256	96.6	246	92.8
기타가구	181	163	90.1	174	96.1	175	96.7	171	94.5	

(표계속)

구분		경로당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긴급돌봄 서비스		모두 확대 필요 없음	
		n	%	n	%	n	%	n	%	n	%
계		519	83.8	597	96.4	575	92.9	590	95.3	1	0.2
성별	남성	253	84.1	293	97.3	285	94.7	294	97.7	1	0.3
	여성	266	83.6	304	95.6	290	91.2	296	93.1	0	0.0
연령	60~64세	225	85.2	252	95.5	246	93.2	254	96.2	1	0.4
	65~74세	294	82.8	345	97.2	329	92.7	336	94.6	0	0.0
지역	중구	32	71.1	42	93.3	38	84.4	41	91.1	0	0.0
	동구	25	73.5	34	100.0	33	97.1	34	100.0	0	0.0
	미추홀구	65	82.3	78	98.7	75	94.9	77	97.5	0	0.0
	연수구	64	92.8	69	100.0	69	100.0	69	100.0	0	0.0
	남동구	73	85.9	84	98.8	80	94.1	83	97.6	0	0.0
	부평구	71	81.6	82	94.3	81	93.1	79	90.8	0	0.0
	계양구	61	89.7	67	98.5	65	95.6	66	97.1	0	0.0
	서구	73	83.0	81	92.0	78	88.6	83	94.3	0	0.0
	강화군	34	82.9	40	97.6	38	92.7	39	95.1	0	0.0
	옹진군	21	91.3	20	87.0	18	78.3	19	82.6	1	4.3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71	80.3	209	98.1	196	92.0	197	92.5	1	0.5
	고졸	266	86.1	295	95.5	286	92.6	297	96.1	0	0.0
	전문대졸 이상	82	84.5	93	95.9	93	95.9	96	99.0	0	0.0
혼인 상태	혼인 중	345	84.1	394	96.1	380	92.7	390	95.1	1	0.2
	미혼·비혼	21	80.8	24	92.3	25	96.2	26	100.0	0	0.0
	그 외	153	83.6	179	97.8	170	92.9	174	95.1	0	0.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378	83.3	435	95.8	421	92.7	432	95.2	0	0.0
	전세	66	83.5	77	97.5	73	92.4	76	96.2	1	1.3
	월세	75	87.2	85	98.8	81	94.2	82	95.3	0	0.0
가구 유형	1인가구	143	82.7	167	96.5	162	93.6	166	96.0	0	0.0
	부부가구	225	84.9	252	95.1	244	92.1	250	94.3	0	0.0
	기타가구	151	83.4	178	98.3	169	93.4	174	96.1	1	0.6

경로당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월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월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동구 및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모든 서비스와 기관에 대해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사례로, 옹진군에 전세로 거주하는 중졸 이하의 혼인 중인 60~64세 남성으로 기타가구에 해당한다.

### 3.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및 기관

#### 1) 인지 여부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및 기관을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91>과 같다. 노인일자리사업은 97.6%로, 앞서 노인일자리기관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응답자가 알고 있었으며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및 기관 중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64.6%), 노후준비서비스(57.4%), 귀농귀촌종합센터(42.2%), 사회적기업 등(38.9%), 고령자 인재은행(36.0%)의 순이었으며, 모든 사회서비스 및 기관을 모른다고 한 응답도 1.5%였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교육,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를 안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남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40대 이상의 경력관리, 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를 안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계양구에 거주할 때, 중졸 이하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노인일자리사업은 60대 이상은 시장형사업단, 인턴십 등에 참여가 가능하며 노인뿐만 아니라 예비노인세대도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안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5~74세일 때, 동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고령자 인재은행은 50대 이상 구직자를 위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이다. 고령자 인재은행을 안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계양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농설계, 컨설팅 등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안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옹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사회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안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응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모든 사회서비스 및 기관을 모른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응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전세일 때, 1인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3-91〉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및 기관 인지 여부

(단위 : 명, %, “안다”의 복수응답)

구분	n	노후준비서비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		고령자 인재은행		귀농귀촌종합센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모든 서비스 및 기관 모름		
		n	%	n	%	n	%	n	%	n	%	n	%	n	%	
계	619	355	57.4	400	64.6	604	97.6	223	36.0	261	42.2	241	38.9	9	1.5	
성별	남성	301	166	55.1	192	63.8	290	96.3	110	36.5	131	43.5	122	40.5	7	2.3
	여성	318	189	59.4	208	65.4	314	98.7	113	35.5	130	40.9	119	37.4	2	0.6
연령	60~64세	264	176	66.7	179	67.8	254	96.2	95	36.0	121	45.8	122	46.2	4	1.5
	65~74세	355	179	50.4	221	62.3	350	98.6	128	36.1	140	39.4	119	33.5	5	1.4
지역	중구	45	23	51.1	15	33.3	44	97.8	9	20.0	18	40.0	17	37.8	1	2.2
	동구	34	15	44.1	9	26.5	34	100.0	11	32.4	17	50.0	16	47.1	0	0.0
	미추홀구	79	44	55.7	36	45.6	76	96.2	34	43.0	36	45.6	29	36.7	1	1.3
	연수구	69	41	59.4	14	20.3	68	98.6	13	18.8	35	50.7	26	37.7	0	0.0
	남동구	85	55	64.7	78	91.8	84	98.8	35	41.2	39	45.9	30	35.3	1	1.2
	부평구	87	56	64.4	72	82.8	84	96.6	34	39.1	29	33.3	27	31.0	1	1.1
	계양구	68	43	63.2	64	94.1	67	98.5	33	48.5	26	38.2	31	45.6	1	1.5
	서구	88	47	53.4	78	88.6	85	96.6	39	44.3	30	34.1	37	42.0	3	3.4
	강화군	41	19	46.3	30	73.2	40	97.6	12	29.3	16	39.0	16	39.0	0	0.0
응진군	23	12	52.2	4	17.4	22	95.7	3	13.0	15	65.2	12	52.2	1	4.3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125	58.7	143	67.1	211	99.1	68	31.9	80	37.6	64	30.0	1	0.5
	고졸	309	170	55.0	201	65.0	302	97.7	110	35.6	126	40.8	119	38.5	4	1.3
	전문대졸 이상	97	60	61.9	56	57.7	91	93.8	45	46.4	55	56.7	58	59.8	4	4.1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232	56.6	271	66.1	402	98.0	153	37.3	180	43.9	179	43.7	5	1.2
	미혼·비혼	26	18	69.2	16	61.5	24	92.3	10	38.5	11	42.3	5	19.2	1	3.8
	그 외	183	105	57.4	113	61.7	178	97.3	60	32.8	70	38.3	57	31.1	3	1.6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263	57.9	303	66.7	445	98.0	165	36.3	201	44.3	189	41.6	4	0.9
	전세	79	45	57.0	44	55.7	76	96.2	29	36.7	36	45.6	33	41.8	3	3.8
	월세	86	47	54.7	53	61.6	83	96.5	29	33.7	24	27.9	19	22.1	2	2.3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96	55.5	108	62.4	166	96.0	59	34.1	65	37.6	42	24.3	4	2.3
	부부가구	265	154	58.1	180	67.9	261	98.5	100	37.7	114	43.0	108	40.8	3	1.1
	기타가구	181	105	58.0	112	61.9	177	97.8	64	35.4	82	45.3	91	50.3	2	1.1

## 2) 필요도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및 기관의 필요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3-92>와 같다. 가장 필요한 것은 노인일자리사업(99.2%)이며, 그 뒤를 이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98.7%), 노후준비서비스(98.4%), 고령자 인재은행(94.7%), 사회적기업 등(83.4%), 귀농귀촌종합센터(82.2%)의 순이었다. 모든 서비스 및 기관에 대해 필요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0.6%였다.

노후준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옹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월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연수구남동구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일 때, 전세 및 월세일 때, 1인가구 및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계양구 및 서구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할 때,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비혼 및 그 외 혼인상태일 때, 전세 및 월세일 때, 1인가구 및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고령자 인재은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중구동구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귀농귀촌종합센터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일 때, 60~64세일 때, 연수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여성일 때, 60~64세일 때, 미추홀구에 거주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혼인 중일 때, 전세일 때, 기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모든 서비스 및 기관이 필요 없거나 모른다고 한 응답은 남성일 때, 65~74세일 때, 서구에 거주할 때, 고졸일 때, 혼인 중일 때, 자가일 때, 부부가구일 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그 외 예비노인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해 주관식으로 응답을 받은 결과, 노인일자리 제공(31명), 금융관리서비스(25명), 자산관리서비스(19명), 기초연금 대상 확대(19명), 노인복지서비스 확대(12명), 건강관리 정보제공(10명), 일자리교육기관 확대(8명), 의사소통교육 제공(7명), 노령연금 인상(5명), 복지관련 정보제공(2명), 주택복지정책 확대(2명), 취미개발교육 제공(2명) 등으로 응답하였다.

〈표 3-92〉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및 기관 필요도

(단위 : 명, %, “필요함”의 복수응답)

구분	n	노후준비 서비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		고령자 인재은행		귀농귀촌 종합센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모든 서비스 및 기관 필요없음, 모름		
		n	%	n	%	n	%	n	%	n	%	n	%	n	%	
계	619	609	98.4	611	98.7	614	99.2	586	94.7	509	82.2	516	83.4	4	0.6	
성별	남성	301	293	97.3	295	98.0	297	98.7	281	93.4	249	82.7	249	82.7	3	1.0
	여성	318	316	99.4	316	99.4	317	99.7	305	95.9	260	81.8	267	84.0	1	0.3
연령	60~64세	264	260	98.5	262	99.2	263	99.6	255	96.6	219	83.0	226	85.6	1	0.4
	65~74세	355	349	98.3	349	98.3	351	98.9	331	93.2	290	81.7	290	81.7	3	0.8
지역	중구	45	43	95.6	45	100.0	45	100.0	45	100.0	37	82.2	35	77.8	0	0.0
	동구	34	33	97.1	33	97.1	34	100.0	34	100.0	31	91.2	30	88.2	0	0.0
	미추홀구	79	79	100.0	78	98.7	79	100.0	78	98.7	71	89.9	72	91.1	0	0.0
	연수구	69	69	100.0	69	100.0	69	100.0	69	100.0	65	94.2	62	89.9	0	0.0
	남동구	85	85	100.0	85	100.0	85	100.0	79	92.9	72	84.7	74	87.1	0	0.0
	부평구	87	86	98.9	86	98.9	87	100.0	83	95.4	70	80.5	72	82.8	0	0.0
	계양구	68	67	98.5	67	98.5	67	98.5	59	86.8	46	67.6	45	66.2	1	1.5
	서구	88	84	95.5	84	95.5	84	95.5	79	89.8	64	72.7	71	80.7	3	3.4
	강화군	41	40	97.6	41	100.0	41	100.0	38	92.7	35	85.4	37	90.2	0	0.0
옹진군	23	23	100.0	23	100.0	23	100.0	22	95.7	18	78.3	18	78.3	0	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13	212	99.5	211	99.1	212	99.5	199	93.4	166	77.9	172	80.8	1	0.5
	고졸	309	305	98.7	305	98.7	307	99.4	292	94.5	255	82.5	260	84.1	2	0.6
	전문대졸 이상	97	92	94.8	95	97.9	95	97.9	95	97.9	88	90.7	84	86.6	1	1.0
혼인 상태	혼인 중	410	402	98.0	403	98.3	405	98.8	389	94.9	342	83.4	350	85.4	4	1.0
	미혼·비혼	26	26	100.0	26	100.0	26	100.0	24	92.3	21	80.8	22	84.6	0	0.0
	그 외	183	181	98.9	182	99.5	183	100.0	173	94.5	146	79.8	144	78.7	0	0.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454	445	98.0	446	98.2	449	98.9	428	94.3	372	81.9	382	84.1	4	0.9
	전세	79	78	98.7	79	100.0	79	100.0	76	96.2	70	88.6	69	87.3	0	0.0
	월세	86	86	100.0	86	100.0	86	100.0	82	95.3	67	77.9	65	75.6	0	0.0
가구 유형	1인가구	173	171	98.8	172	99.4	173	100.0	162	93.6	136	78.6	134	77.5	0	0.0
	부부가구	265	257	97.0	259	97.7	260	98.1	248	93.6	219	82.6	222	83.8	4	1.5
	기타가구	181	181	100.0	180	99.4	181	100.0	176	97.2	154	85.1	160	88.4	0	0.0

# 4

##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적 제언

제2절 결론



## 제4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 제1절 정책적 제언

#### 1. 시민 욕구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본 조사결과 나타난 노후준비에 대한 시민 욕구는 중요도와 준비도 그리고 두 지표의 차이에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노후준비도는 사적·공적 영역을 모두 포함한 개인이 준비한 경험이므로 노후준비도가 낮을수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취미여가사 회공헌(31.2점), 돌봄(37.2점), 일(40.0점) 영역의 노후준비도를 높이도록 지원해야 한다. 노후준비 중요도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노후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잘 준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건강(99.7점), 가족관계(96.0점), 재무(93.8점) 영역의 준비도를 높이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모두 고려한 관점은 중요도 대비 준비도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준비할 수 없었던 영역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52.5점), 재무(-48.4점), 일(-47.5점) 영역이 이에 해당한다.

예비노인세대는 노후준비 영역 중 재무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생각하지만(양지훈, 2022), 노인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 지원 영역은 건강이라는 결과는 예비노인세대의 기대와 노인의 생활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강은 현재의 노후생활 영역별 우선순위에서도 1순위(99.7%)이며, 영역별 노후준비 중요도 대비 노후준비도에서도 가장 준비하지 못한 영역(-52.5점)이다. 건강 영역의 노후준비 시작 연령은 52.8세로 노후준비 시작 또한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늦은 편이다.

건강 영역의 준비는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과 같은 신체건강 관리와 치매예방, 우울 및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과 가족에 대한 돌봄 계획 등을 포함한다. 온라인 검색을 통해 손쉽게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과잉 정보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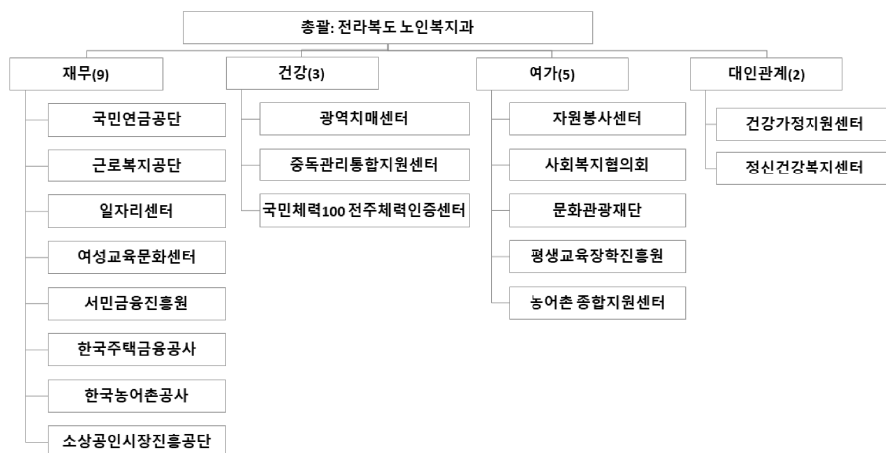
또한 재무와 일 두 영역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준비할 수 없었던 영역으로, 이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다. 재무는 노년기 빈곤에 대비하여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퇴직금, 개인연금(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에 가입한 연금), 금융자산(현금, 예적금, 주식, 펀드, 저축성

보험 등), 부동산 자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산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노년기 지속적인 일 참여를 통해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데, 고령자친화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상담,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예산, 인력 등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므로 노후준비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노후준비 실천을 돕도록 한다. 이러한 기관 연계를 위해 구축하는 전달체계는 노후준비협의체가 대표적이다(보건복지부, 2023). 노후준비협의체는 지역 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준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구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전라북도의 경우 <그림 4-1>과 같이 시 노인복지과에서 총괄을 맡고, 재무 영역으로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전라북도 일자리센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서민금융진흥원 광주전라지역본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가 포함되었다. 건강 영역은 전북 광역치매센터,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국민체력100 전주체력인증센터, 여가영역은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포함되며, 대인관계 영역에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그림 4-1> 전라북도 노후준비 광역협의체 기관(2022년)



출처: 보건복지부(2023). 지자체 노후준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인천시 또한 이와 같은 영역별 노후준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단과 실천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가 광역센터로 운영되고 있어 재무에 집중된 협의체 구성을 보이는데, 인천의 경우 시민 욕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요도에 비하여 준비도가 낮은 건강 영역에도 집중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에 관한 대표적인 서비스 지원 기관은 보건소이다. 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금연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을 제공하며, 정신·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 정신건강교육, 찾아가는 마음으로 안심버스, 정신건강 자가검사, 청년마음건강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또 다른 서비스 기관으로는 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자살예방사업, 자살관련 사회인식개선사업을 제공한다. 따라서 건강 영역에서 상기 기관을 노후준비협의체로 포함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 각 서비스는 현재 상태에 초점을 둔 것으로 노후준비 측면에서의 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영역을 포함하여 돌봄과 의료비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노후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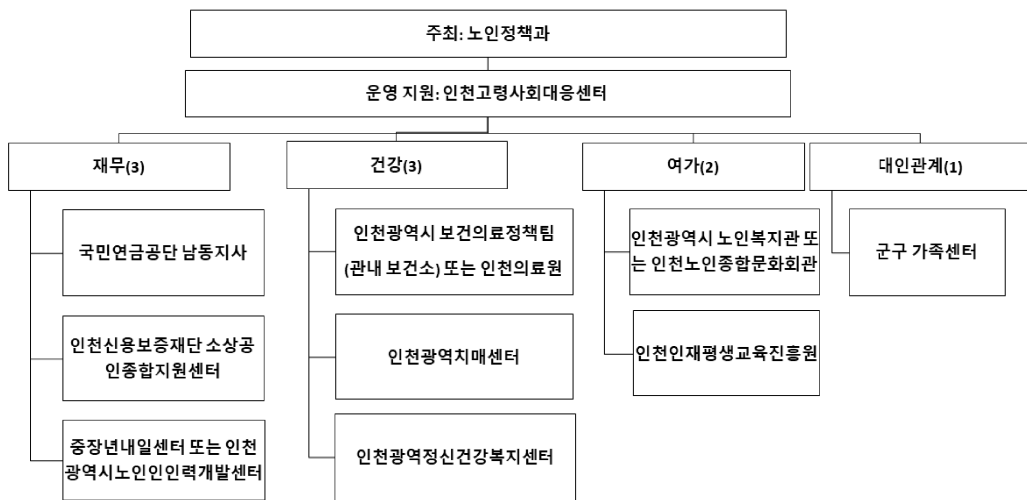
건강 외의 영역에서도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은 필요하다. 노인의 현재 생활에 따른 선호를 고려하면 건강 다음으로 재무, 일, 대인관계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생활 대비 중요도에서 건강(99.7%), 가족관계(78.2%), 재무(59.5%), 일(44.4%)에 대한 욕구가 높다. 내용적 측면에서 예비노인세대를 위해 정신건강(99.5%), 건강행태(98.5%), 직업능력(96.4%), 대인관계(95.5%), 정보화(94.8%), 신체건강(92.2%), 재무(85.1%), 여가(83.2%), 자원봉사(83.5%) 등의 순으로 노후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방식은 대부분 교육을 선호하였지만 과반은 재무, 건강행태, 정신건강, 일자리에 대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은 상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네 영역에 대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체 선정 기준으로 ① 공적 전달체계, ② 광역 기능 수행을 설정하여 인천광역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하면 다음 <그림 4-2>와 같다. 노후준비협의체의 주축은 인천광역시가 되며, 운영 지원은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수행한다. 각 영역별로 보면, 재무 영역은 국민연금공단 남동지사,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중장년내일센터(또는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3개 기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로 선호가 가장 높은 건강 영역은 관내 보건소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팀, 인천광역시치매센터,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3개 기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여가 영역은 전 연령이 모두 이용하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노인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또는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을 포함할 수 있다. 대인관계 영역에서 가족센터는 광역 역할을 하는 곳이 부재하여 각 군구의 가족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인구가 많거나 협업과 연계가 편리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다.

인천광역시의 노후준비협의체는 9개 기관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하여 시범사업 지역(부산, 전라북도 등)과 비교하여 참여 기관의 수가 적은데, 이는 실질적인 노후준비 협의체 활동을 위함이다. 현재 두 시범사업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의뢰 및 컨퍼런스 개최의 연계활동을 수행하였다. 협의체가 정기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정기적 욕구파악 수행, 협의체 내 기관 간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 분장, 협업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공유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여 안정화 된 이후 협의체 참여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4-2〉 인천광역시 노후준비 협의체 구성(안)



정리하면, 시민 욕구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재무, 일, 대인관계 등 시민의 욕구가 높은 영역에서 노후준비 진단·교육 후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교육 형태로 제공하되, 개별화된 진단과 실천 계획이 필요한 영역은 상담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 2. 1인가구 준비를 위한 특화서비스 개발

노인 1인가구는 생활 전반에서 다른 가구유형보다 취약한 집단이며, 노후준비 욕구는 높았으나 노후를 잘 준비하지 못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건강 영역(건강, 돌봄)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가장 높고, 진료가 필요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 또한 높다. 건강행태 또한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고, 운동과 구강관리를 하는 비율은 낮았다. 우울유증상자의 비율 또한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 돌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재무 영역에서도 소득과 자산이 가장 낮고, 현재 생활비 마련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주관적인 가구 경제수준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월세(35.3%)와 전세(16.8%)의 비율이 높고, 자가 비율은 낮다. 현재 일하고 있는 비율은 가장 낮았지만 생계를 위해 일한다는 응답은 가장 많았다. 여가 영역(취미여가 및 사회공헌, 일)에서 일일 영상 시청 시간이 높고 모든 사회활동 유형에서 참여 경험은 가장 낮았으며, 여가활동은 대부분 혼자 보냈다. 대인관계 영역(가족, 사회적 관계)에서 자녀와 지인의 사회적지지가 가장 낮았다. 사회적 관계망 또한 없다는 응답이 높고 평균 인원 수 또한 가장 적었다. 또한 외로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노후준비도는 모든 영역이 50점 이하로 세 집단 중 가장 낮지만 중요도는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노후준비 또한 공적 지원을 주로 기대하였으며,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미혼·비혼인 응답과 차이를 보인다. 노인 1인가구 중 미혼·비혼은 14.5%로, 사별(41.6%), 이혼(38.3%), 별거(4.5%)로 인해 1인가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접근은 미혼·비혼을 포함하여 사별, 자녀분가 등의 이슈로 노인이 되었을 때 1인가구가 되는 사례에 대한 노후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양지훈 등(202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에 자녀로부터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 만남이 없는 상태는 자녀라는 지지체계가 오히려 노인에게 외로움을 유발하고 열심히 살아온 삶을 후회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부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동 연구에서는 사별 이후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이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

한 자녀 독립이나 사별 등으로 주택 규모를 축소하면 지역을 자녀 근거지로 옮기면서 사회적 관계 또한 단절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의 노후준비지원서비스는 부모-자녀 관계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부부나 가구 구성을 가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노년기에 1인가구가 되는 준비를 돕는데 제한적이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란 결혼한 이성애 부부와 그들의 생물학적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의 가족을 건강한 가족의 형태로 보는 시각을 말한다(경은주·양영자, 2021). 따라서 인천에서 선제적으로 노년기 1인가구를 위한 노후준비서비스를 특화서비스로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3. 생활실천 기반 상담 프로토콜 제공

대부분 50대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후준비도 평가는 중요도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영역별 중요도 대비 노후준비도는 건강(-52.5점), 재무(-48.4점), 돌봄(45.8점), 일(-47.5점), 취미여가·사회공헌(-38.2점), 가족관계(-38.0점), 사회적 관계(-27.2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재무, 일, 돌봄은 약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전반적인 노후준비서비스 부족에 따른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노후준비 교육을 받아본 노인은 5.0%, 상담 경험은 4.0%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노후준비 진단과 체계적인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육학적 관점에서 노후준비교육과 상담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노후준비서비스에서 예비노인세대의 행동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진단과 서비스 제공·연계 사이에서 수행목표를 수립하고 단기·장기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자신의 노후준비도를 비교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인구집단 특성별 나이대의 평균 등)을 제시한다면 목표가 적절한지, 또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알기 쉬워진다.

노후준비도와 중요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건강(건강행태 66.9%, 정신건강 74.5%), 재무(52.7%), 일(53.9%), 돌봄 영역은 서비스 제공방법으로 상담으로 제공받길 희망하는 응답률도 높다. 이는 이 네 영역이 다른 영역들과 비교하여 더 개별화된 특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 영역들은 누구나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대일의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이해할 수 있다. 건강 영역에서도 신체 건강에 대한 상담 욕구는 낮은 반면 건강행태와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욕구가 높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례별 적용할 수 있는 노후준비 상담서비스를 구조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구유형, 혼인상태, 연령 등을 조합하여 상담 대상 유형을 구체화하고, 각 영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과 개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기관과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프로토콜(protocol)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진단-상담-교육-연계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담을 수 있도록 상담 영역을 강화한다면 시민 당사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후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연계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게 것이다.

나아가 인천 시민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서 그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고, 노후준비서비스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결론

활동적 노화와 건강 노화의 패러다임 하에서 예비노인세대에게 노년기를 잘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포괄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조사연구는 노인의 노후준비 경험과 현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삼아 예비노인세대가 노년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만 60세부터 만 74세까지의 인천시 거주 노인 619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노후생활 실태,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 정책 욕구의 네 영역을 구성하여 대면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후생활실태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며, 대부분 필요할 때 진료를 받고 있었다. 73.8%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음주와 구강관리에서의 건강행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17.4%가 우울 유증상자였다. 일상생활 도움이나 가족돌봄을 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었으며 대부분 배우자 중심의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308.6만원으로, 주된 소득원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과반이었다. 평균 자산은 3억 2515만원으로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었으며, 부채를 가진 노인은 20.0%였다.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가구 경제수준은 평균보다 낮게

평가했다. 63.5%는 현재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노년기 생계를 위함이 가장 높았고, 일은 향후 74.4세까지 지속하고자 하였다. 대부분 소극적 여가활동, 친목·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주로 다른 이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배우자, 자녀, 지인의 순으로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가 높았다. 외로움은 중간보다 낮았고,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관계망이 가장 취약했다.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에서 평균 46.1세에 노후준비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대부분 50세 전후로 노후준비를 시작하였다.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영역은 건강이며, 영역별 중요도 대비 준비도를 보면 건강, 재무, 일, 돌봄에 대한 준비도가 많이 부족하였다. 1인 기준 최소 생활비는 109.3만원, 적정생활비는 170.9만원, 의료생활비는 243.4만원이었다. 노후준비교육과 상담을 받은 비율은 5% 이하였으나,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든 영역에서 80% 이상이었다. 노후준비는 주로 TV나 라디오 방송(97.3%)을 통해 얻었으며, 주변사람들을 통해 얻은 비율도 84.8%에 달했다.

정책 욕구와 관련하여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노력은 중간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2.99 점), 노인복지서비스 및 기관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이용률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11.0%),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9.4%)을 주로 이용하였고, 이용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동 기관을 향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80% 이상이었다.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서비스는 노인시설에 비하여 인식하는 기관의 비율이 낮았지만, 그 필요성은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욕구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1인가구 준비를 위한 특화서비스 개발, 생활실천 기반 상담 프로토콜 제공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 실태와 노후준비 인식 및 경험을 살펴본 조사연구로, 주로 연구되고 있는 예비노인세대의 노년기 예측에 따른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현재 노년기를 영위하고 있는 노인의 생활에 비추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시민 욕구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예비노인세대의 결과와 비교한 후속연구를 수행한다면 노후준비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은주·양영자(2021). 소설 [고령화 가족] 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5), 638-653.
- 김양이·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 박지현(2018). 통합적 노후준비도에 따른 한국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연구: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준비 관점에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준비 관점에서. 한국정책연구, 18(4), 105-120.
- 배문조(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1107-1122.
- 양지훈·권미애(2018).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보고서.
- 양지훈·서종수·김수진(2022). 인천시 취약노인의 예방적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방안.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보고서.
- 양지훈(2022). 2022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실태 및 욕구조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보고서.
-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함의. 보건복지포럼, 147, 1-9.
- 이용재(201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5), 253-261.
- 이지윤·최현자(2023). 중고령 비은퇴자의 예상 노후생활비 평가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6(4), 143-173.
- 하석철·김제희(2021). 2023 인천시 노인실태조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보고서.
- Collinson, C. (2016). Perspectives on retirement: Baby boomers, generation X, and millennials. Transamerica center reopr.
- Robison, J., Shugrue, N., Fortinsky, R. H., & Gruman, C. (2013). Long-term supports and services planning for the future: Implications from a statewide survey of baby boomers and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54(2), 297-313.

Sullivan, S. E., Forret, M. L., Carraher, S. M., & Mainiero, L. A. (2009). Using the kaleidoscope career model to examine generational differences in work attitudes.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4(3), 284-302.

[인터넷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4). 국민노후보장패널. <https://institute.nps.or.kr>. (검색일 2024-03-10).

나우앤서베이(2024). 샘플사이즈 및 표본오차 이해하기. <https://www.nownsurvey.com/calculator>. (검색일 2024-04-15).

법제처(2024a).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고용상\\_연령차별\\_금지\\_및\\_고령자고용촉진에\\_관한\\_법률](https://www.law.go.kr/법령/고용상_연령차별_금지_및_고령자고용촉진에_관한_법률). (검색일 2024-04-11).

법제처(2024b). 노후준비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노후준비지원법>. (검색일 2024-04-11).

법제처(2024c).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https://www.law.go.kr/행정\\_규칙/발명\\_등의\\_평가에\\_대한\\_조사\\_업무수행지침](https://www.law.go.kr/행정_규칙/발명_등의_평가에_대한_조사_업무수행지침). (검색일 2024-04-11).


보건복지부(2023). 지자체 노후준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https://www.mohw.go.kr>

한국고용정보원(2024). 고령화고용패널. <https://www.keis.or.kr>. (검색일 2024-03-10).

Chan, A., & Yap, M. T.(2009). Baby-boomers survey. [https://www.nas.gov.sg/archivesonline/data/pdfdoc/20090116004/baby\\_boomer\\_survey\\_7jan09.pdf](https://www.nas.gov.sg/archivesonline/data/pdfdoc/20090116004/baby_boomer_survey_7jan09.pdf). (검색일 2024-03-10).

OECD(2022). life expectancy at birth.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life-expectancy-at-birth.html>. (검색일 2024-0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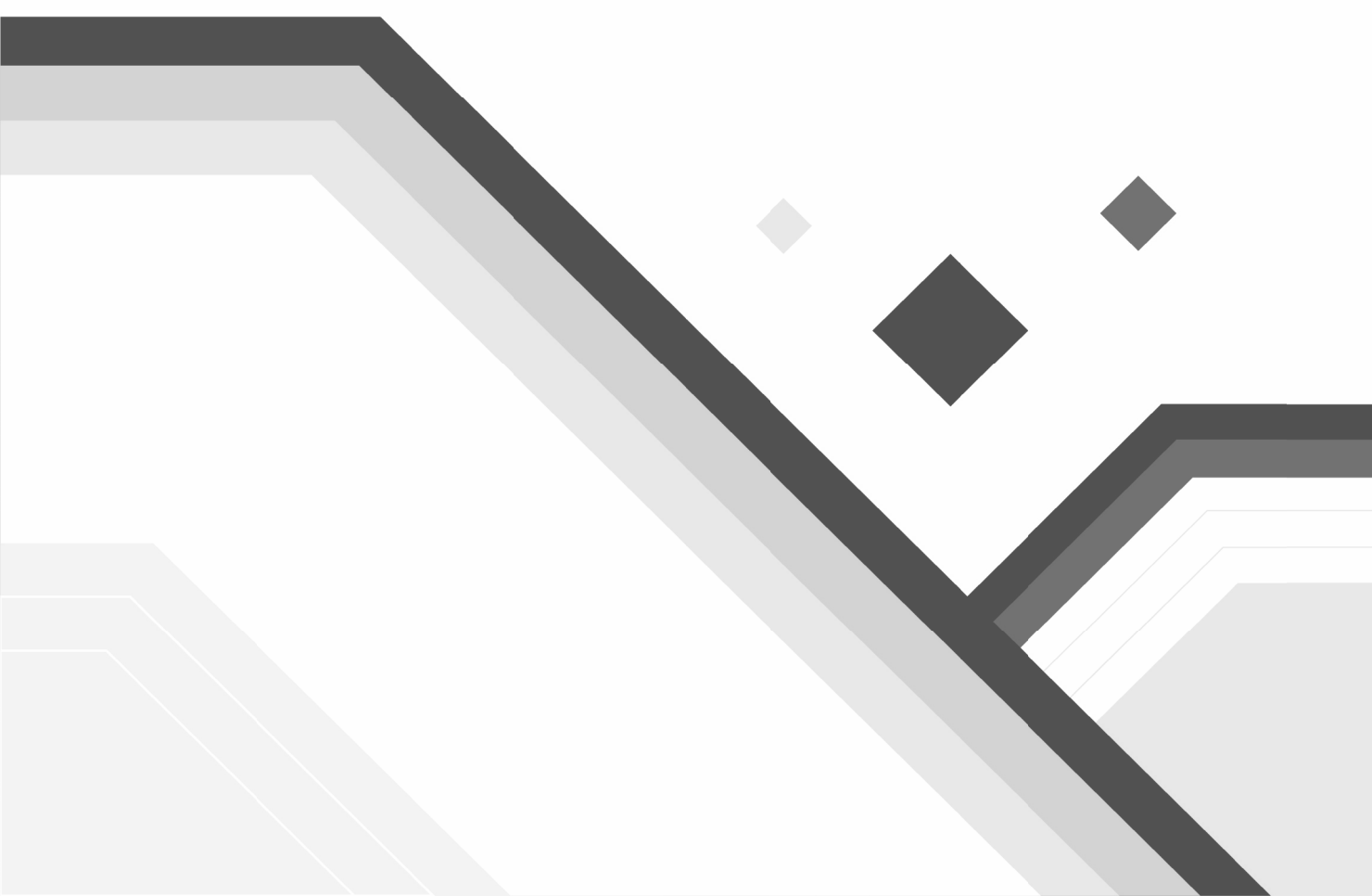
OECD(2023).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income-and-wealth-distribution-database.html>. (검색일 2024-04-11).



---

# 부록 1. 설문지

---











B7-3. 귀하께서는 돌보는 일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받는다면, 받고 있는 서비스나 자원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⑫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

가족 내	① 동거 가구원의 현금 지원	② 동거 가구원의 수발 지원
	③ 비동거 가구원 및 친인척의 현금 지원	④ 비동거 가구원 및 친인척의 수발 지원
가족 외	⑤ 장애인 수당 등 국가/지자체 수당	⑥ 장기요양서비스, 맞춤형돌봄서비스
	⑦ 복지관 등 복지단체	⑧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바우처
	⑨ 교회 등 종교기관	⑩ 간병보험 등 민간보험
기타	⑪ 기타 ( )	
없음	⑫ 받지 않음	

[재무]

B8. 귀댁의 작년 한 해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 )만원

※ 응답이 어려우실 경우, 아래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미만      ③ 100~150만원미만      ④ 150~200만원미만      ⑤ 200~250만원미만
- ⑥ 250~300만원미만      ⑦ 300~350만원미만      ⑧ 350~400만원미만      ⑨ 400~450만원미만      ⑩ 450~500만원미만
- ⑪ 500~550만원미만      ⑫ 550~600만원미만      ⑬ 600~650만원미만      ⑭ 650~700만원미만      ⑮ 700~750만원미만
- ⑯ 750~800만원미만      ⑰ 800~850만원미만      ⑱ 850~900만원미만      ⑲ 900~950만원미만      ⑳ 950만원이상

B8-1. 주된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아래 표의 설명 참고)

-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사업소득      ② 자녀의 사업소득(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 ③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④ 자녀의 근로소득(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 ⑤ 재산소득      ⑥ 사적 이전소득(자녀 및 친인척의 생활비, 용돈 등)
- ⑦ 기초연금      ⑧ 기초연금 외 공적이전소득      ⑨ 기타 ( )

구분		설명
사업소득	본인 및 배우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프리랜서 포함), 배우자의 사업소득
	자녀	자녀와 동거하며, 자녀의 사업소득이 주 소득원인 경우
근로소득	본인 및 배우자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봉급, 급여,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등), 배우자의 근로소득
	자녀	자녀와 동거하며, 자녀의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경우
재산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개인연금 등
사적이전소득		자녀,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나 용돈, 민간이전소득 등
공적이전 소득	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 급여, 장애수당, 산재보험급여, 국가유공자 급여, 독립유공자급여, 지자체 지원 등

B9. 귀댁의 현재 가구 자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 )억 ( )만원

B9-1. 주된 자산은 무엇입니까? (※아래 표의 설명 참고)

- ① 부동산자산                      ② 금융자산                      ③ 기타자산

B9-2. 귀댁에는 현재 부채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입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 ( )만원

구분	설명
부동산자산	소유 주택, 소유 사업체, 기타 소유 부동산, 임차 주택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
금융자산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개인연금, 불입액, 저축성보험 불입액, 적립펀드 납부금, 주식투자자금, 회사채/국·공채 등 유가증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아직 타지 않은 것
기타자산	직접적인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승용차, 트럭, 선박, 버스, 항공기, 농기계, 콘도 및 골프 회원권, 귀금속, 그림 등 소장예술품 등
부채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빌린 돈의 잔액, 시체나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돈,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여할 것, 연대보증,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에서 받은 총 금액, 빚의 잔액 및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 신용카드 일시금 및 할부잔액, 현금서비스, 학자금 대출금 등

B10. 귀댁의 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이 얼마입니까? 월평균 ( )만원

※ 응답이 어려우실 경우, 아래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미만    ③ 100~150만원미만    ④ 150~200만원미만    ⑤ 200~250만원미만  
 ⑥ 250~300만원미만    ⑦ 300~350만원미만    ⑧ 350~400만원미만    ⑨ 400~450만원미만    ⑩ 450~500만원미만  
 ⑪ 500~550만원미만    ⑫ 550~600만원미만    ⑬ 600~650만원미만    ⑭ 650~700만원미만    ⑮ 700~750만원미만  
 ⑯ 750~800만원미만    ⑰ 800~850만원미만    ⑱ 850~900만원미만    ⑲ 900~950만원미만    ⑳ 950만원이상

B11. 현재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부담됨    ② 약간 부담됨    ③ 보통    ④ 별로 부담되지 않음    ⑤ 전혀 부담되지 않음

B12. 현재 생활비 중 부담이 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부담이 높은 우선순위 항목을 3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식비                                  ② 교육비                                  ③ 주거관리비(주택관리비, 냉난방비, 수도비 등)  
 ④ 보건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⑤ 가구·집기·가사용품                  ⑥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⑦ 교양오락비                          ⑧ 교통비                                  ⑨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⑩ 경조사비                              ⑪ 부채상환                              ⑫ 기타 (구체적으로 )

B13.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귀하 가구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취미·여가 및 사회공헌]

B14. 지난 1년간 TV나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영상을 시청하신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하루 평균 ( )시간



**B17-4. 귀하께서 언제까지 일을 하실 생각입니까? ( )세까지**

※ 면접원 확인 : 현재 연령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 응답 후 B18로 이동)

**B17-5. 귀하께서 현재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구직 중)
- ② 더 이상 일 할 생각이 없어서
- ③ 가사노동, (손)자녀 돌봄과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 ④ 여가 또는 사회활동을 즐기고 싶어서
- ⑤ 장애, 부상, 노령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서
- ⑥ 가족이 반대해서
- ⑦ 기타 (구체적으로: )

**B18.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 항	그렇다	아니다
1) (공익형 일자리) 월 29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며 월30시간(주 2-3회, 일 3시간 이내)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	①	②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월 63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며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며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①	②
3) (시장형사업단) 월 29만원 이상(계약에 따라 상이) 일 최대 8시간 이내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일자리	①	②
4) (취업알선형) 주일 4-5회, 1일 8시간 가까이 일하더라도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등 기업에 취업하는 일자리	①	②

**[가족]**

**B19. 귀하는 가구주입니까?**

- ① 그렇다(가구주)
- ② 아니다(가구원)

※ 가구주는 "한 가구 내에서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는 생계책임자"를 의미합니다.

**B20. 동거여부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수는 어떠합니까? 해당되는 구성원 칸에 각 구성원의 수를 써 주십시오.**

※ 혈족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가족이 없다면 "0"으로 적어 주십시오.  
배우자의 경우 이혼, 사별, 별거인 경우 '없음', 동거(사실혼, 주말부부 포함)인 경우에만 '있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부모 (양가)	조부모 (양가)	기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수	① 있음 ② 없음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구성원 수		( )명	( )명	( )명	( )명	( )명	
계		( )명	( )명	( )명	( )명	( )명	

**B21. (자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문항	전혀 안 함	거의 안 함	가끔 함	자주 함
1) 자녀에게 걱정거리 털어 놓기	①	②	③	④
2)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 받고자 자녀에게 의지하기	①	②	③	④
3) 자녀가 나에게 무리한 요구 함	①	②	③	④
4) 자녀가 나를 비난함	①	②	③	④

**B22.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문항	전혀 안 함	거의 안 함	가끔 함	자주 함
1) 배우자에게 걱정거리 털어 놓기	①	②	③	④
2)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 받고자 배우자에게 의지하기	①	②	③	④
3) 배우자가 나에게 무리한 요구 함	①	②	③	④
4) 배우자가 나를 비난함	①	②	③	④

**[사회적 관계]**

**B23. 귀하는 지인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 지인이란 친구나 이웃을 포함하여 사적인 친교활동을 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문항	전혀 안 함	거의 안 함	가끔 함	자주 함
1) 지인에게 걱정거리 털어 놓기	①	②	③	④
2)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 받고자 지인에게 의지하기	①	②	③	④
3) 지인이 나에게 무리한 요구 함	①	②	③	④
4) 지인이 나를 비난함	①	②	③	④

**B24. 귀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문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1)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 )명
2)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 )명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명

**B25. 귀하께서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평소 경험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떤 사회집단이나 조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오늘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할 공통 화제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7) 사람들은 나를 흥미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C. 노후준비 경험**

C1. 귀하는 몇 세부터 전반적인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 (          )세부터

C2. 귀하는 다음의 영역을 몇 세부터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영역	A. 준비도 평가					(A=③④⑤만) B. 준비시작 연령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	다소 준비하지 못했다	보통이다	약간 준비했다	잘 준비했다	
1) 건강	①	②	③	④	⑤	세
2) 돌봄	①	②	③	④	⑤	세
3) 재무	①	②	③	④	⑤	세
4) 취미여가, 사회공헌	①	②	③	④	⑤	세
5) 일	①	②	③	④	⑤	세
6)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세
7) 사회적 관계	①	②	③	④	⑤	세

구분	설명
건강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연, 금주, 운동 등을 시작하고, 정기적인 치과 및 건강검진 등의 진료를 받기 위해 노력함,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나 상담 등을 받음
돌봄	노년기 돌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서비스나 자원), 돌봄(간병비용) 마련을 위해 노력함(적금, 간병보험 등에 가입 등)
재무	노년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산을 마련함(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외의 개인연금 가입, 주식투자 등), 노후 재무설계 교육이나 상담 등을 받음
취미여가, 사회공헌	노년기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새로운 취미의 개발, 사회공헌활동 시작, 특정 단체 등을 의도적으로 가입함,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취미여가교육을 받음
일	노년기 경제활동을 위해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음, 노인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거나 노인 일자리 관련 기관에서 교육 또는 상담을 받음
가족관계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함,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대함, 가족관계 유지향상을 위한 의사소통교육 등 교육이나 상담을 받음
사회적 관계	친구나 이웃을 비롯한 사적인 관계를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노력함(모임 결성이나 확대 등), 친구나 동료 관계유지향상을 위한 성격유형이나 의사소통 등 교육이나 상담을 받음

C3. 귀하는 현재의 노후생활에 비추어 다음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A. 중요도 평가					B. 우선순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건강	①	②	③	④	⑤	순위
2) 돌봄	①	②	③	④	⑤	순위
3) 재무	①	②	③	④	⑤	순위
4) 취미여가, 사회공헌	①	②	③	④	⑤	순위
5) 일	①	②	③	④	⑤	순위
6)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순위
7) 사회적 관계	①	②	③	④	⑤	순위

**C4. 귀하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 ① 신체정신건강 관리                      ② 자녀와의 관계(가족 내 돌봄)                      ③ 간병보험 등 민간 보험
- ④ 자산 마련                                      ⑤ 기타 (                                      )                                      ⑥ 전혀 없다(국가 지원만 기대 포함)

**C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데 월평균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1인 기준	부부 기준
1) 의식주 해결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                      )만원	월 (                      )만원
2)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장할 때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                      )만원	월 (                      )만원
3) 간병이나 질병 치료 등으로 간병/의료비가 증가할 때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                      )만원	월 (                      )만원

**C6. 귀하는 이전에 은퇴나 노후준비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C6-1로)                                      ② 없다 (→ C7로)

**C6-1.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복수응답)**

- ①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②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 ③ 사회관계를 위한 활동(단체, 종교활동)                                      ④ 자기계발을 위한 준비(교육, 직업훈련 등)
- ⑤ 여가활동을 위한 취미 개발                                      ⑥ 가족·친구와의 친밀도 강화
- ⑦ 기타 (                                      )

**C7. 귀하는 이전에 은퇴나 노후준비와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C7-1로)                                      ② 없다 (→ C8로)

**C7-1. 어떠한 내용의 상담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복수응답)**

- ①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②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 ③ 사회관계를 위한 활동(단체, 종교활동)                                      ④ 자기계발을 위한 준비(교육, 직업훈련 등)
- ⑤ 여가활동을 위한 취미 개발                                      ⑥ 가족·친구와의 친밀도 강화
- ⑦ 기타 (                                      )

**C8. 귀하는 다음의 내용이 예비노인세대에게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  역	A. 필요도				(A=②③④만) B. 희망방법(복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교육	② 상담
1) 현재 자산 관리 및 노후 재무 설계	①	②	③	④	①	②
2) 노년기 성격특성과 신체변화 등의 정보	①	②	③	④	①	②
3) 금연, 금주, 식이조절 등 건강관리	①	②	③	④	①	②
4) 우울증, 치매 등 정신건강관리	①	②	③	④	①	②
5) 새로운 또는 확장된 취미·여가활동	①	②	③	④	①	②
6) 가족관계 재정립 및 의사소통(대화)교육	①	②	③	④	①	②
7) 편리한 생활을 위한 인터넷, 스마트기기 이용방법 등	①	②	③	④	①	②
8)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능력 및 기술개발	①	②	③	④	①	②
9) 노년기 일자리 정보 및 구직방법	①	②	③	④	①	②
10)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및 단체 활동	①	②	③	④	①	②

C9. 귀하께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주로 정보를 얻었던 곳을 3개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를 모를 경우 1순위에 '11'을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 ② 신문이나 광고지를 통해
- ③ 유튜브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 ④ 카카오페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 ⑤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주변사람들을 통해
- ⑥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통해
- ⑦ 국민연금공단이나 회사 차원의 교육을 통해
- ⑧ 복지관, 평생교육원 등 복지기관을 통해
- ⑨ 은행, 보험 등 민간 시설을 통해
- ⑩ 기타(구체적으로: )
- ⑪ 얻는 곳이 없음

**D. 정책욕구**

D1. 귀하께서는 중앙정부나 인천시가 노인일자리 지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함      ② 약간 부족함      ③ 보통      ④ 약간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D2. 귀하는 노인을 위한 다음의 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이용경험, 만족도, 향후 이용의향, 확대여부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모두) A. 인지여부	(A=① 인지여부) B. 이용경험	(B=①이용경험지만) C. 만족도				(모두) D. 이용(지속) 의향	(모두) E. 확대 필요성
			매우 불만	약간 불만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안다 ② 모른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2) 방문요양, 방문서비스 등의 돌봄서비스	① 안다 ② 모른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3) 데이케어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서비스	① 안다 ② 모른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4)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① 안다 ② 모른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5) 경로당	① 안다 ② 모른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6)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등 일자리 지원기관	① 안다 ② 모른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7)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발생 시 도움)	① 안다 ② 모른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8) 긴급돌봄서비스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요양보호사 등이 방문)	① 안다 ② 모른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②	③	④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D3. 귀하는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다음의 사회 서비스 및 기관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예비노인세대가 노년기를 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활동 유형	A. 인지 여부		B. 필요도		
	안다	모른다	필요하다	필요없다	모르겠다
1) 노후준비서비스(교육 및 상담)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③
2)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 40대 이상 경력관리, 능력개발 등 지원	①	②	①	②	③
3) 노인일자리사업 : 60대 이상 시정행사업단 참여 가능	①	②	①	②	③
4) 고령자 인재은행 : 50대 이상 구직자 대상 무료직업소개사업	①	②	①	②	③
5) 귀농귀촌종합센터 : 귀농설계, 컨설팅 등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	①	②	①	②	③
6)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①	②	①	②	③

D4. 귀하께서는 상기 조사한 항목 이외에 예비노인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구체적인 서비스가 있으십니까?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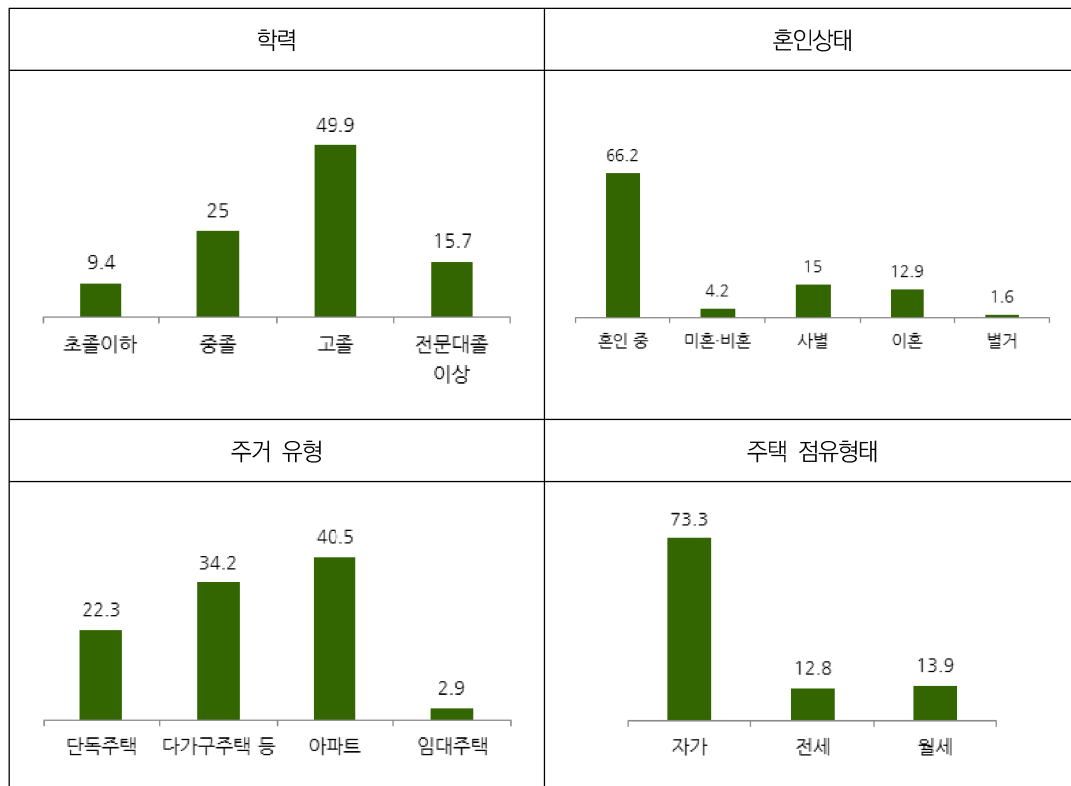
## 부록 2. 조사결과 시각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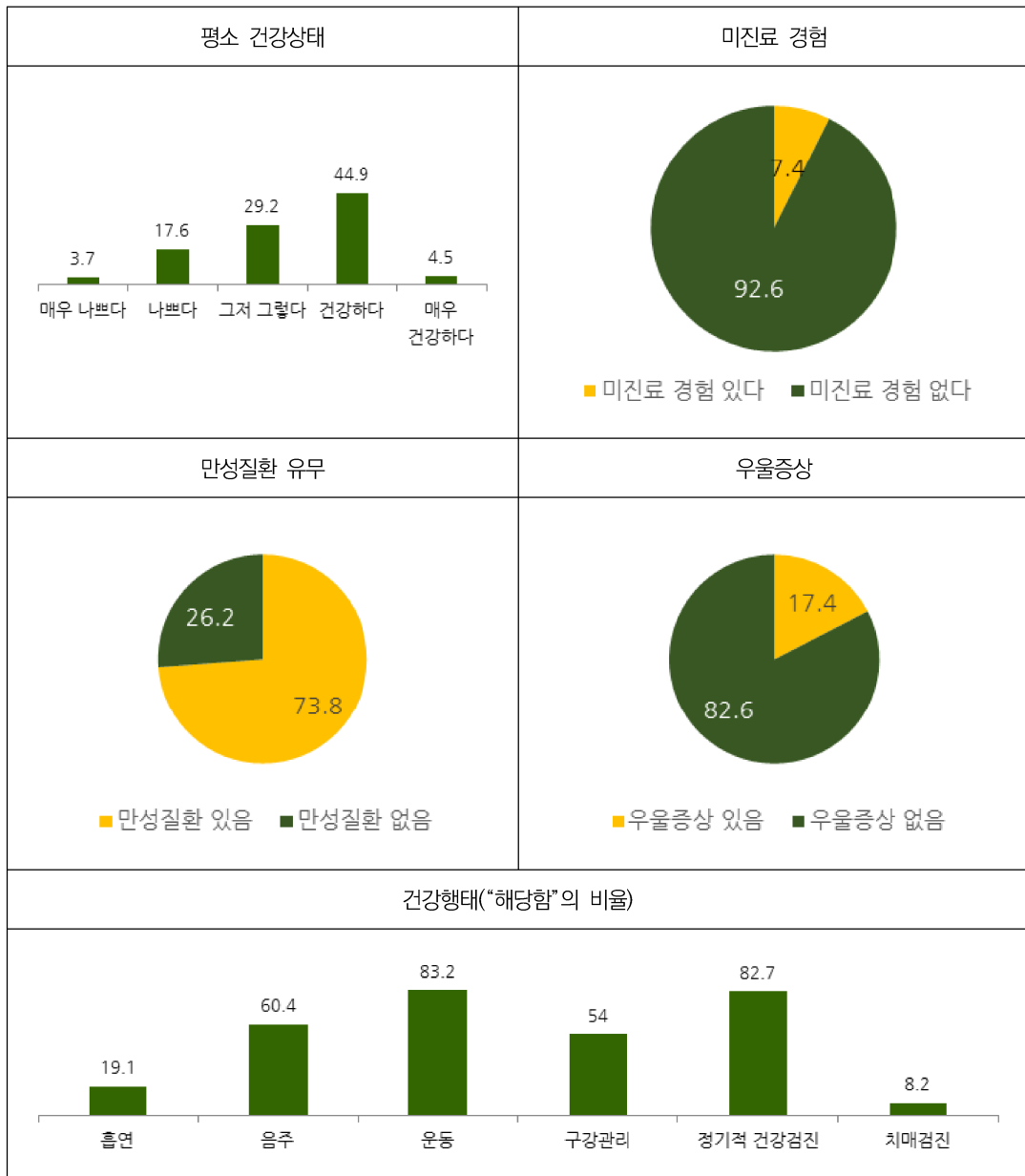


## 1.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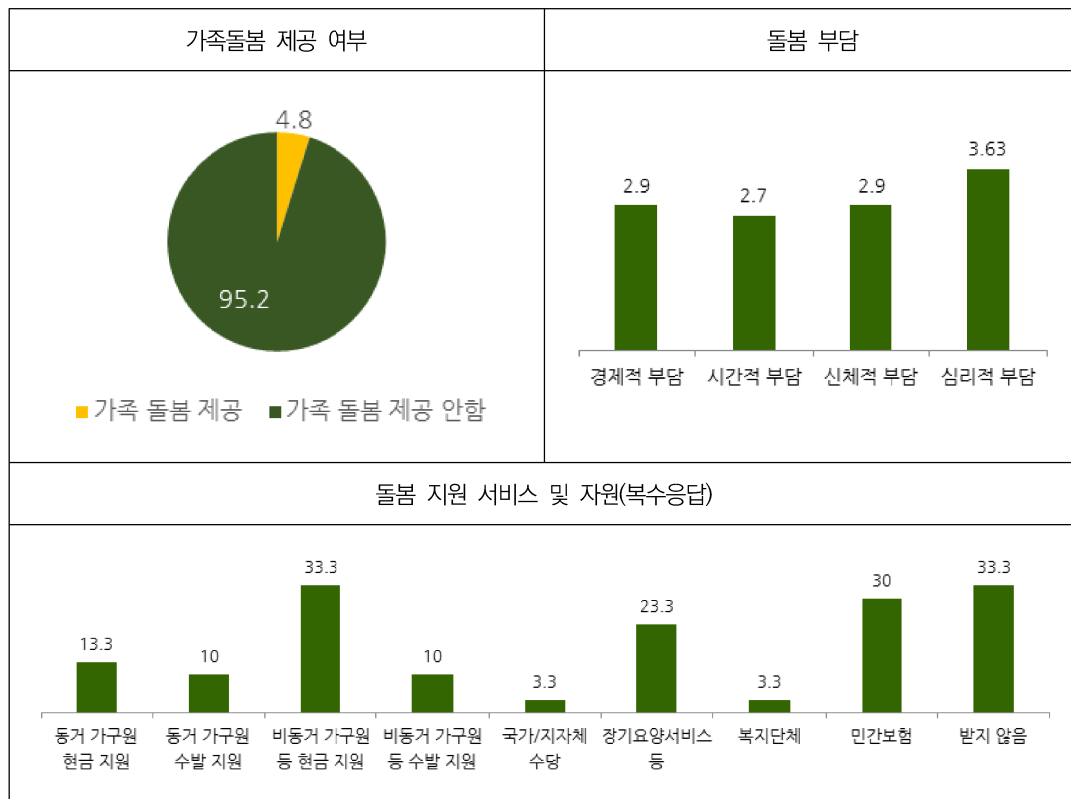


## 2. 노후생활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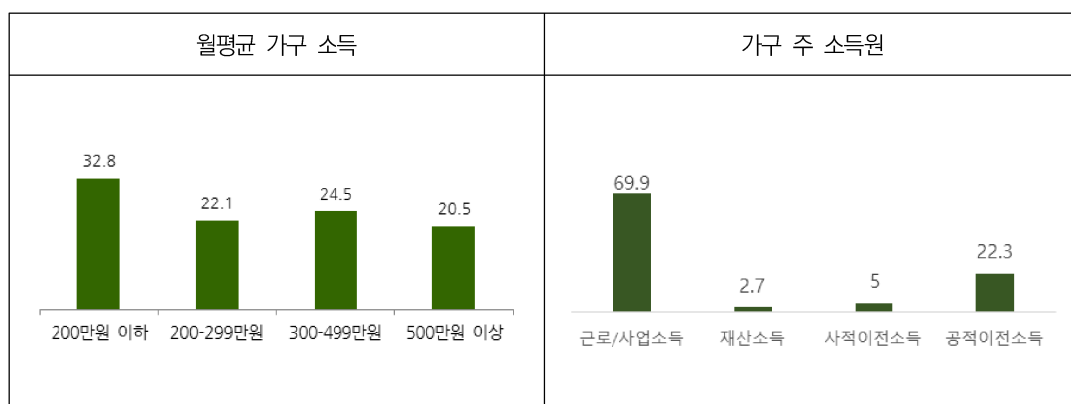
### 1)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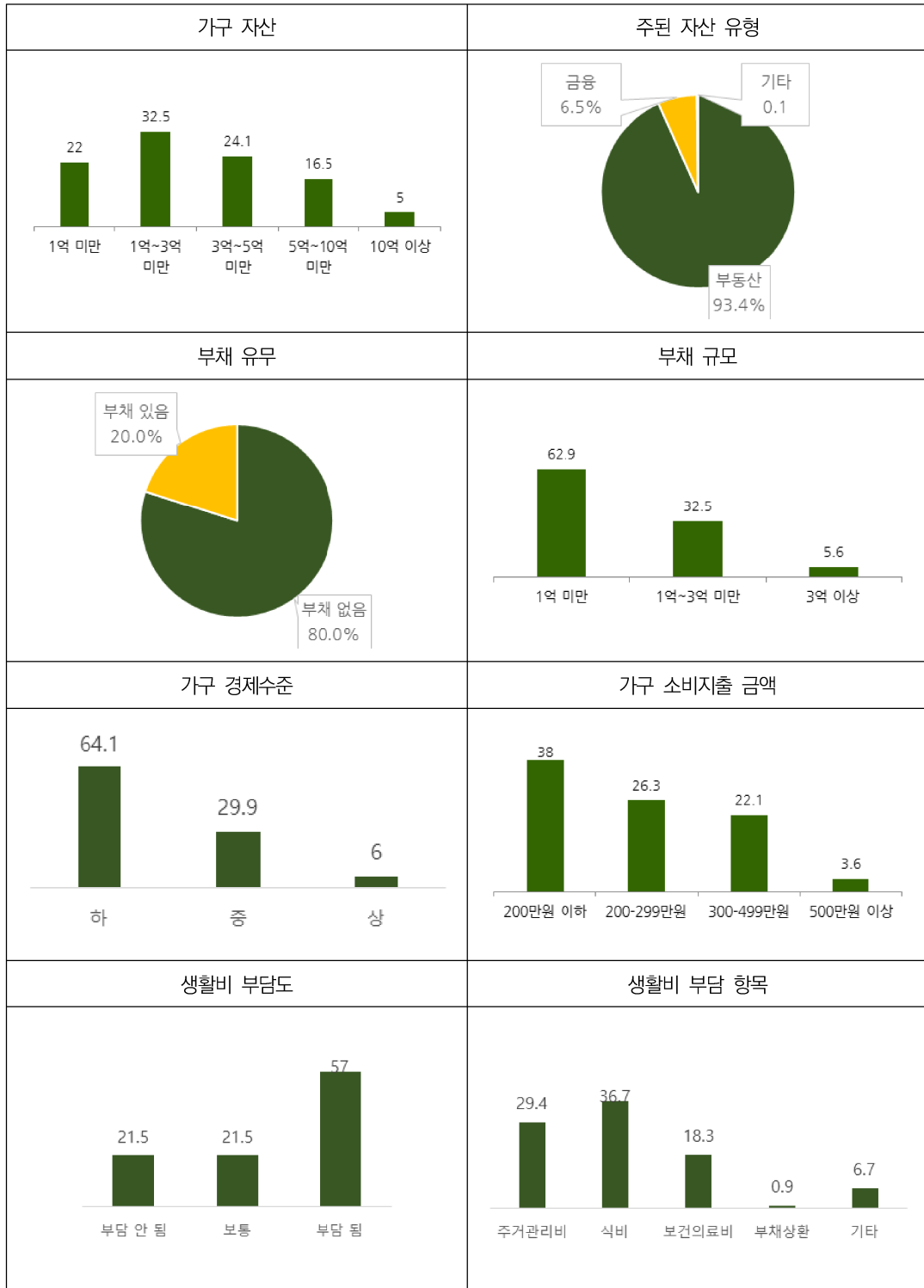


## 2)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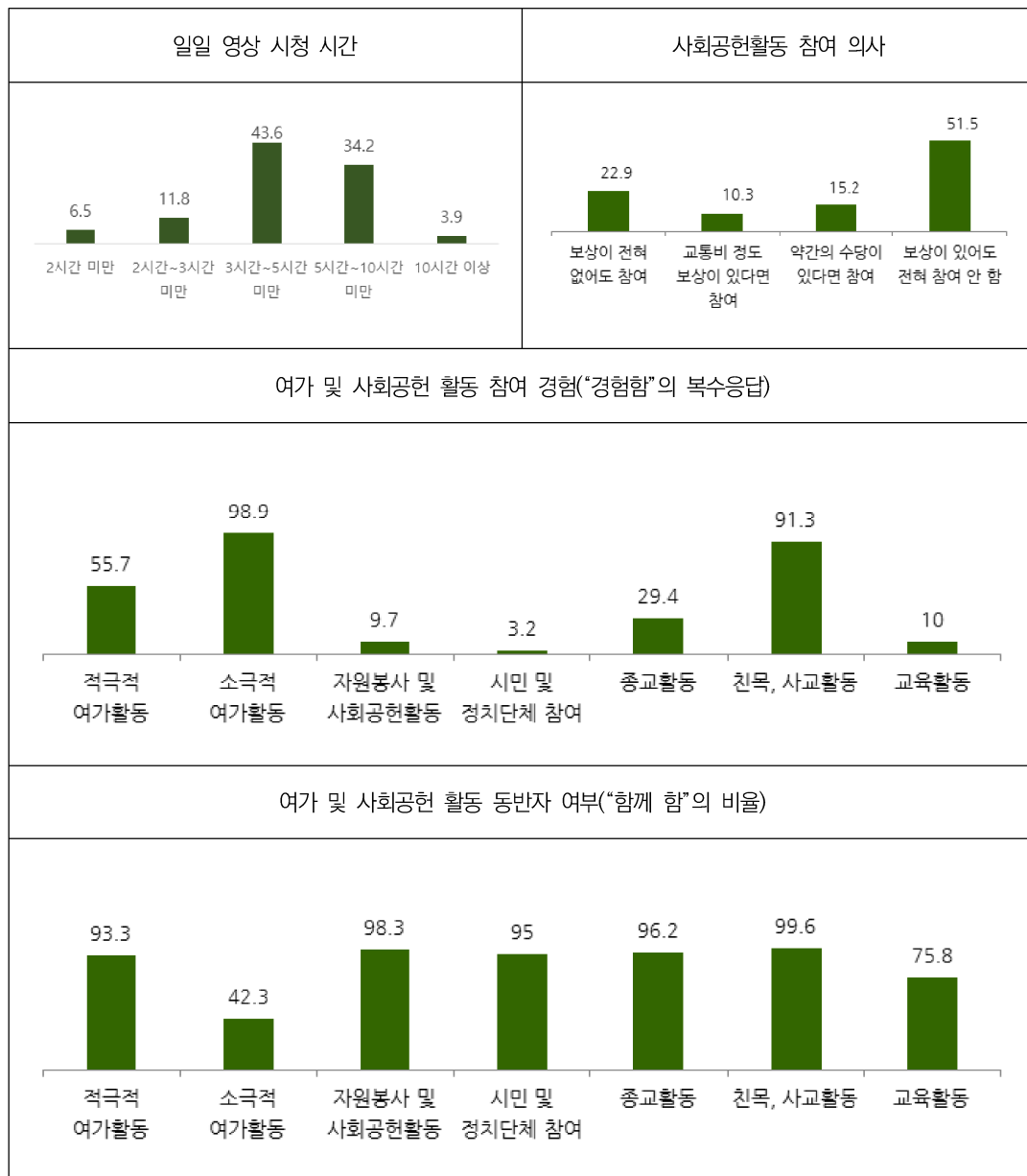


## 3) 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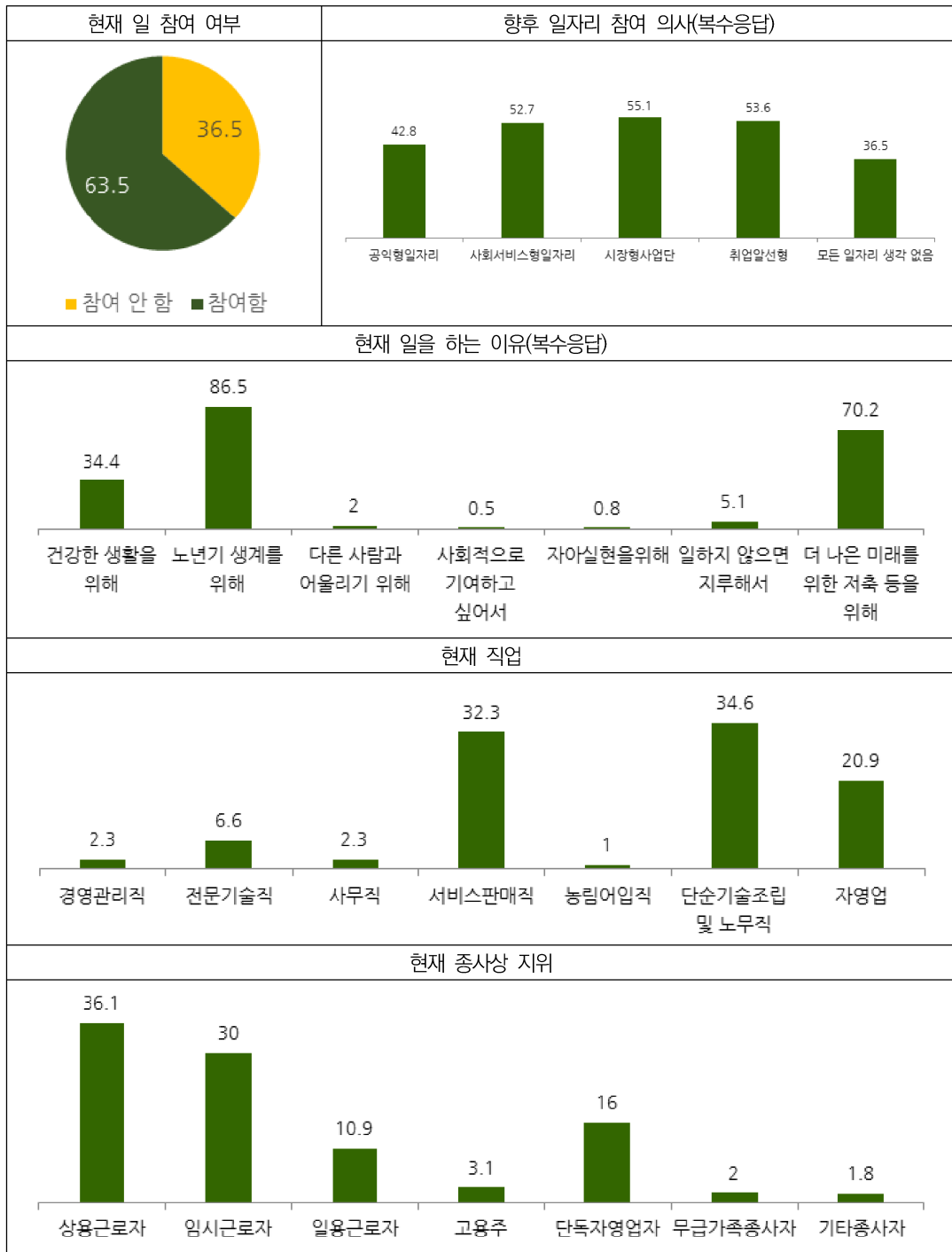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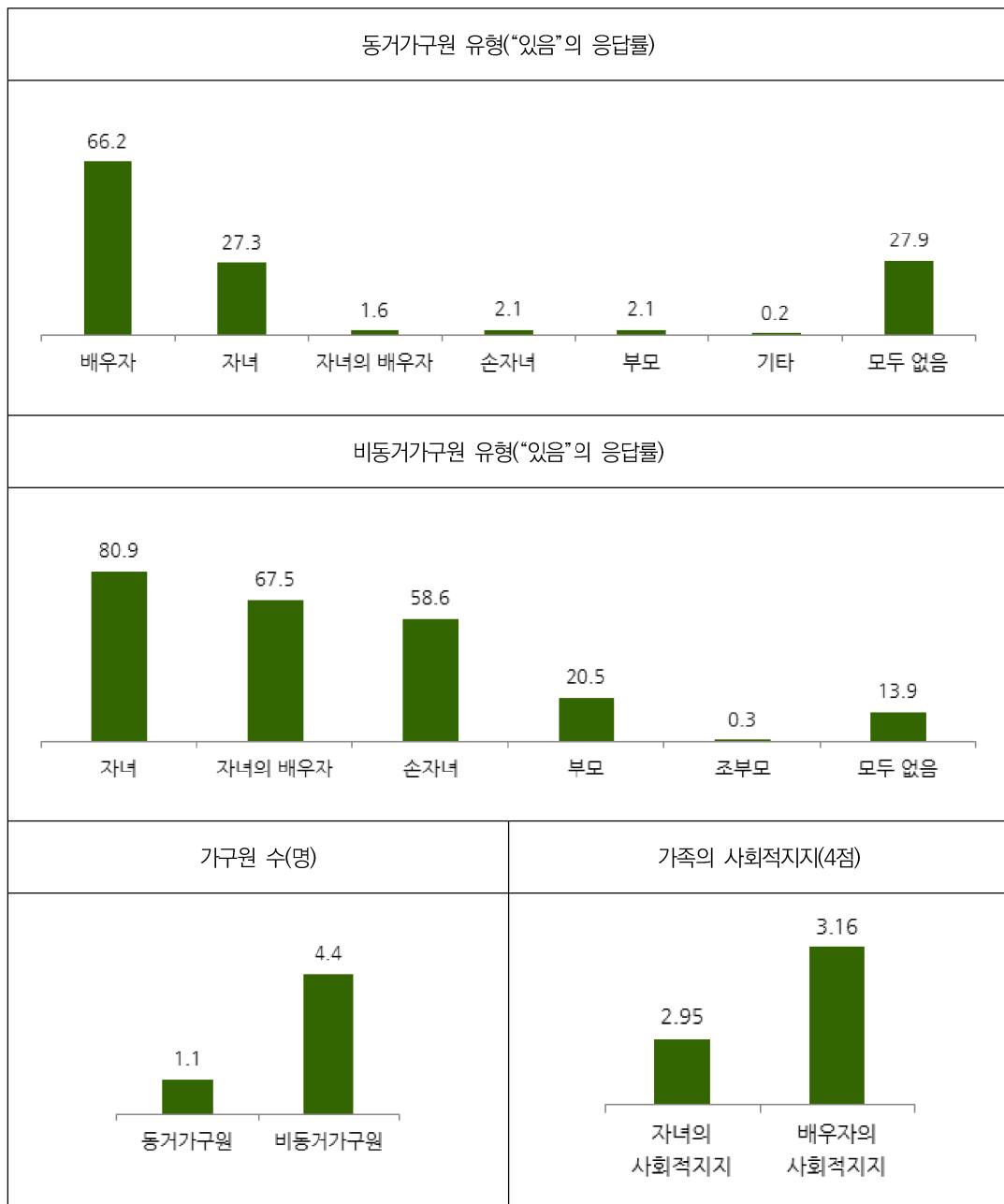
#### 4) 취미·여가 및 사회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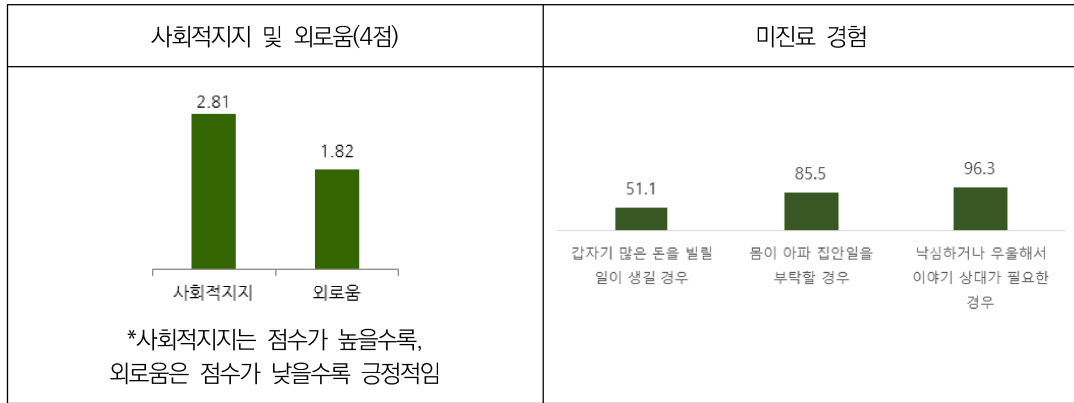
5)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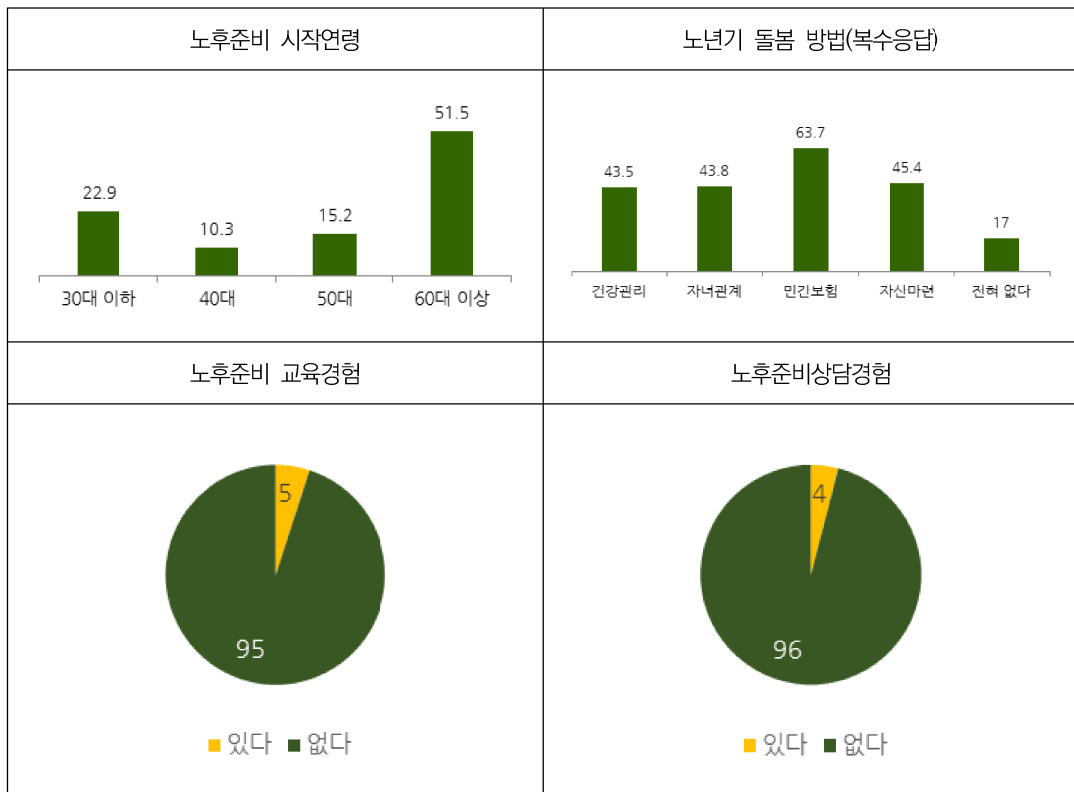
6)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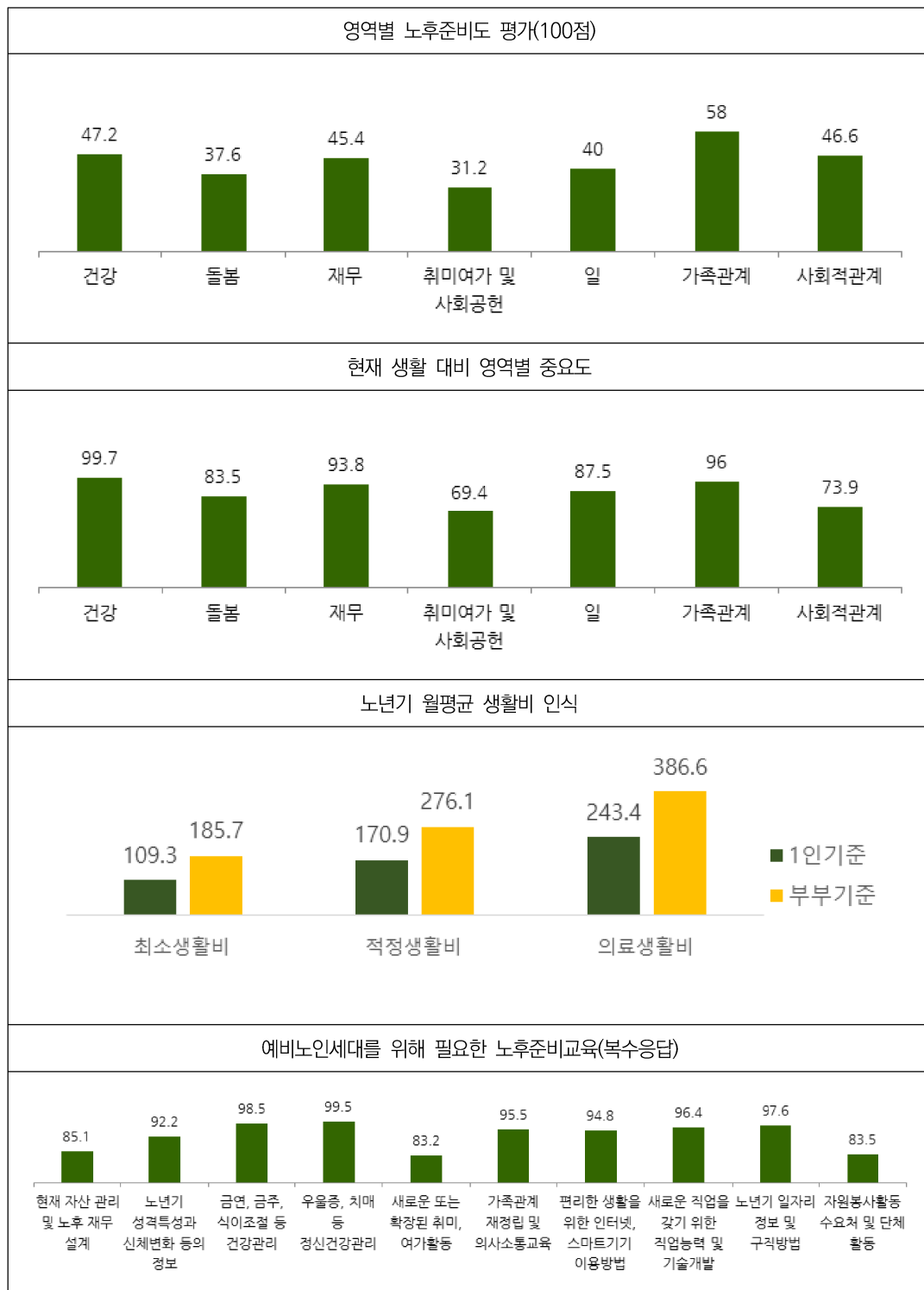


7) 사회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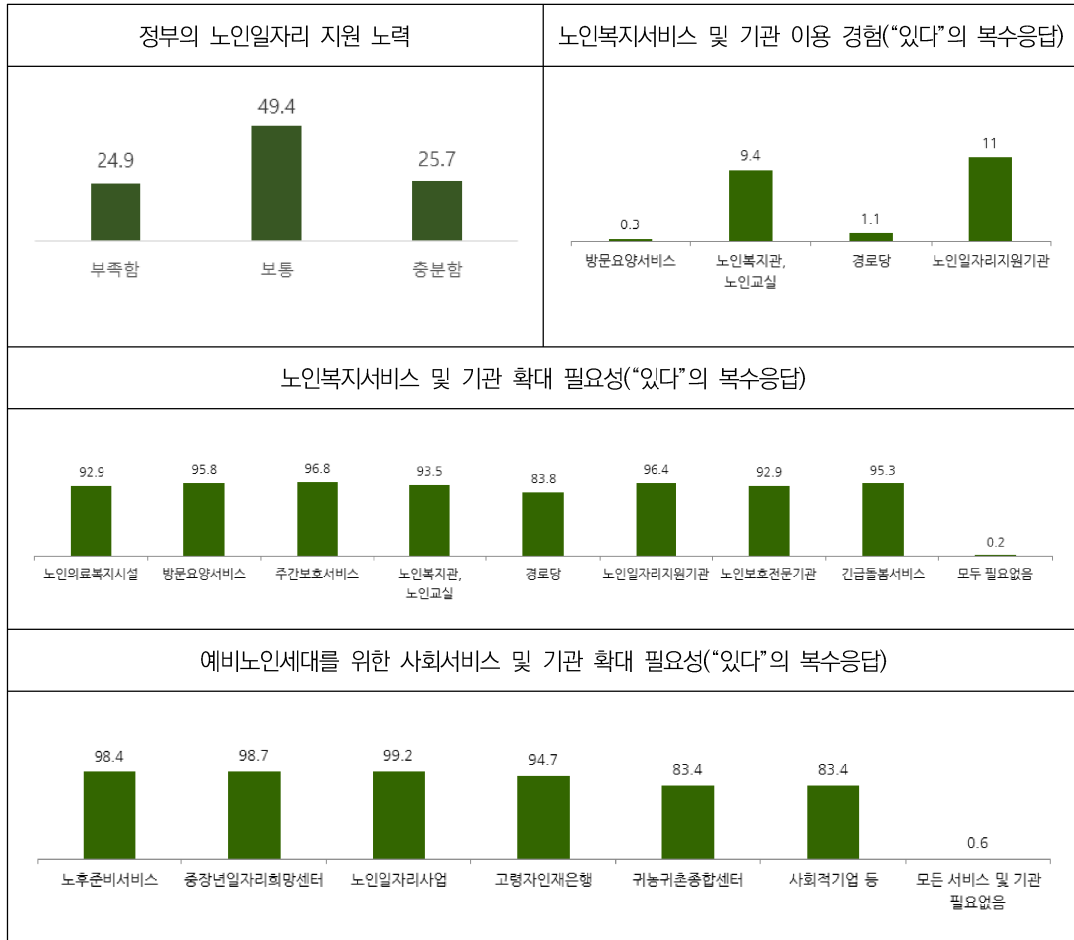


3. 노후준비 경험





#### 4. 정책욕구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정책연구 2024-03

## 인천시 노인의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 조사

발행일 || 2024년 12월

발행인 || 박정숙

발행처 ||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주소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10층

전화 || (032)715-5491 팩스 || (032)715-5319

홈페이지 || <https://www.inlife.or.kr/>

인쇄 || 포커스인천 (032)268-6918

ISBN 979-11-90449-08-3 : 비매품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에 있으며,  
본 센터의 허락 없이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